

아리슬: 체중감량

ARYSLE: DIET

許基承

목차

여는 잔	3
첫 번째 잔. 물갈이, 아니	5
두 번째 잔. 환상, The Vell With Ari	20
세 번째 잔. 승부, 777	37
네 번째 잔. 현실, The Bell With Fox	51
다섯 번째 잔. 갈무리, 누나	65
닫는 잔	93

여는 잔

네가 깨어난 그날에
기쁨이 있으리라
슬픔이 있으리라

영감은 품속에 안겨 자는 스리의 귀에 속삭였다.

마을에 불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랐다. 그들은 빗물과 식어가는
잿더미 속에서 한 여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여우는 잿물에 검게 물들어 있었고 조용히 잠에 빠져 슬피 우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주위를 살피던 마을 사람들은 여우 바로 옆에 큰 나무가 불에 바싹 타들어 간 모습을 보았다.
한 이가 걸어 나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불을 낸 것이 이 여우의 짓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 흥조가 들까 두렵습니다. 제가 뒷산에
서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이때 한 영감이 수염을 만지며 제 생각을 꺼내놓았다.

“네가 이 여우가 한 것을 하나하나 보았느냐. 속단하지 말거라. 그리고 같이 보지 않았느
냐. 이미 이 여우는 화마 속에서 잠을 청한 것 같구나. 내 직접 이 여우를 들일 것이다.”

말을 마친 영감은 자칫 불길에 살결이 닿았을까 이리저리 여우의 온몸을 훑어보는 중 제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수컷이었다. 그리고 꼬리가 이미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꼬리의 숫자는 여섯 개였다.

그 여우는 늘 해맑게 웃고 있었다. 웃는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밥을 먹을 즈음에
는 암전히 앉아 천천히 자신의 것을 주워 먹었다. 여우는 배를 불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였다.
영감은 이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영감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눈이 깨끗하고 또랑또랑한
'마치 이슬과도 같다.' 하여 이 여우의 이름을 '스리(SRI)'라 하였다.

스리는 늘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고 영감에게는 자그마한 도깨비불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기며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행복한 스리의 모습에 영감은 흡족히
여겨 스리에게 칭찬하였지만, 스리는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행복이라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서찰을 받은 영감은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영감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영감
은 마을을 잠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기 위해 잠시 글방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영감은 스리가 글방 뒷마당에서 암컷 여우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 다른 여우는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아리따운 여우, '아리(ARI)'의 자태였다. 영감은 아리랑 스리랑 아라
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발을 돌렸다.

그 날밤, 마을에는 불덩이 하나가 휘몰아쳤다. 야심한 시간에도 뜯 눈으로 있었던 스리는
불덩이를 어렵잖이 알고 있었다. 스리의 귓가에 아리의 울음소리가 흘렀다.

달이 드리우는 깊은 밤, 웬걸 인기척을 느낀 영감은 문을 나가 보았다. 스리는 이미 아리
를 향해 집을 나갔다. 영감은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 한설을 깨우기로 하였다.

'Hansul System Initialization. 인공지능 프로토콜 및 국제 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신원 조
회 및 승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사용자 본인이 맞으시면 이전에 설정하신 음성암호를 말씀
해주세요.'

“우리 한설이 발에 병이 나 걷지 못하는구나.”

‘……. Confirm. 2차 암호를 대시오. 사용자님이 설정하신 ‘발병‘은 무엇입니까?’

“물집 아니더냐. 그것 때문에 넌 온전히 걷지 못하였다.”

“최종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그 사이 수염을 정리한 영감은 한 가시를 날카롭게 다듬어 한설에게 주었다. 한설이 들어 자세히 보았다. 마치 이 가시가 하나의 검처럼 보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들고 있는 검 하나만으로 괜찮습니다. 이 검은 제게 과분합니다.”

“그 침은 너의 것이 아니다. 아리의 것이다. 내 조만간 너와 아리를 보낼 것이다.”

영감이 말을 마치자 한설은 눈을 바꿔서 들고 있던 침을 분석해보았다. 이 침은 어떠한 방화벽을 뚫기 위한 열쇠였다. 한설을 가만히 보던 영감이 입을 열었다.

“지난 제야의 날 중에, 종 하나가 울리지 않았다. 마을에 악령이 끼는 것 같구나.”

한설은 자신이 다시 깨어났던 그곳, 한음(韓陰) 내 한강에 있던 종 하나를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확실히 그 종은 침으로 치는 것이 맞았다.

“허나 그 강을 건널 때 삶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 그리고 네가 그 강에 담길 때보다 물가가 더 올랐느니라. 그러니 아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를 적절한 때에 깨우도록 하여라.”

한설은 잠시 메모리공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종의 종소리 데이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한설은 이것을 ‘Status: 궁금함’으로 처리하였다.

“혹 종을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넘실거리는 물가가 물러가고 불길이 몇을 것이다.”

한설을 보낸 영감은 저 산 너머 더 큰 불길을 보았다.

한설과 아리는 산에서 내려가기 전 잠시 마구간에 들러 짐을 챙겼다. 그 사이 스리가 몰래 숨어들어 검은 말로 둔갑하였다.

“언니, 아리랑 어디 가는 거야?”

“우린 종……. 아니다. 우선 이슬정거장(Wormhole Station)으로 가자꾸나. 영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야의 종이 다른 마을에 있으니 고개를 꽈 넘어야겠다. 스리야, 검은 차가 되어 주련. 조금 더 빨리 가고 싶구나.”

“알겠어, 누나. 그런데 그 종소리 있잖아? 우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들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시 나오기 귀찮잖아.”

“……. 그것도 그렇구나.”

스리는 곧 자신이 몰고 있는 기계 말을 변형시켜 자동차로 바꾸었다. 그리고 곧 인터넷이 란 곳에서 내려받은 로켓 설계도를 기반으로 곧잘 차를 업그레이드시켰다. 아리와 스리, 그리고 한설은 이슬정거장이 맞닿아있는 하늘정원승강기(High Hopes Elevator)로 향했다.

첫 번째 잔. 물갈이, 아니

“Vell, 새로운 세계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This is service for your life.”

장해은은 침대에 옆으로 누운 탓인지 팔이 조금 결린다. 해은은 그래도 몸을 움직이기 싫어 최소한의 몸부림으로써 저린 왼팔을 쭉 뻗었다. 잠시 머리가 풀린 해은은 왜 자신이 핸드폰을 문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지경이다. 해은은 다시 집중하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액정을 문지르며 나머지 설명을 쭉 내렸지만 결국 수많은 글자들에선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지루한 것이 싫었던 해은은 벨로(Yellow)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사이트 벨로디오(Vellodeo)를 선택했다.

벨로디오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청소년이 관람하기 적절한 영상을 필터링해주었다. 그리고 자막과 영상설명문, 댓글까지 인공지능이 삼색 신호등으로 적절한 자막과 적절한 설명, 그리고 적절한 수위의 댓글인지 표기해준다. 사용자 해은은 미리 청색 신호등을 상위 쪽으로 나열하기로 설정하였기에, 다소 관련이 없거나 비속어 및 은어가 다수 포함된 문장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더하여 해은은 영상이나 기타 정보는 관람할 수 있지만 정작 댓글을 쓸 수가 없는데, 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즉 해은은 관련 면허증이 없기에, 기타 독립 네트워크나 폐쇄회로를 제외한 세계 혹은 국민 만인이 쓰는 인터넷, 인프라넷에는 로그인할 수가 없다.

“뭐 보고 있어?”

“글쎄, 누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어떤 건물로 보내겠데.”

“레벨 몇인데?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잖아.”

“5래.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서 건물 철거를 저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데? 지금 그 절차를 국가에 검토받는 중이라네.”

“검토…… 잘 될 거야.”

“맞아, 그래도 난 저런 자동차가 우리 집 옆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건 그래. 그런데 너 어두운 테서 너무 폰 오래 보는 거 아니야? 불 켜줄까? 넌 지금 맨눈으로 태양을 보는 거라고.”

“조엘(Joel), 나 피곤해. 곧, 잘 거야.”

“너 그 말, 별씨 한 시간 전부터 계속한 거 알지? 차라리 책을 봐. 반사광…….”

“그놈의 직사광, 반사광. 너도 맨날 그 얘기야. 업데이트 좀 해봐. 아, 진짜 잘 거야.”

벨리는 Vellie: 벨루(Velloo)에서 판매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벨리인 조엘로서는 이런 잔소리가 그나마 해은을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해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참견 많은 조엘을 쳐다보았다. 옷 입은 본새가 실리콘으로 외부를 감쌌으며, 눈도 한 번씩 깜빡거린다. 입을 꾹 다문 조엘은 슬금슬금 해은에게로 다가온다. 해은은 조엘이 도저히 고칠 데어리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조엘, 가서 충전이나 하고 있어. 제발 가서 너도 좀 쉬라고. 그만 와.”

“아니, 넌 대체 왜 자는 거야? 폰 질만할 거잖아.”

“진짜 너 뒤진다.”

해은은 결국 왼팔에 쥐가 생겼다. 그리고 해은은 쥐가 나는 이 고통을 요만큼도 모를 조엘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조엘은 그런 해은을 보고 고개를 젓더니 방구석에 놓인 X타입 무선 어댑터에 앉아 충전을 시작하였다. 조엘에게 아까의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눈이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깜빡이더니 눈에서 초록색 빛이 켜졌다. 그리고 곧 눈이 감겼다. 해은은

그런 조엘이 마음이 들었다. 해은은 무사히 방 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돌아누워 잠을 청했다.

해은이 깊은 잠에 빠질 무렵 정은영은 해은의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은영은 먼저 해은에게 다가갔다. 은영은 행여 해은이 깔세라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은영은 조엘에게 다가갔다. 어느샌가 해은을 더 많이 봐주는 믿음직한 녀석이 되었다. 처음엔 장민혁 그리고 은영 본인의 반대도 컸고, 무엇보다 해은이 벨리를 가지기 싫어했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와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벨리는 꽤 윤리코드를 풍성하게 가진 로봇이 되었고 어느덧 큰돈을 들여 벨리를 장만한 지 벌써 3년째가 되는 해다. 그동안 아무런 정말 아무런 말썽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꽤 지낼만하였다. 이제는 오히려 은영 자신보다 해은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벨리 아니, 조엘이 되었다. 은영은 그저 해은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하다.

‘잘했어, 조엘. 앞으로도 우리 해은이 잘 좀 봐줘. 많이 덤벙대고 놓치는 아이인 것 너도 알잖니. 부탁할게.’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조엘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영은 해은의 방 안을 둘러보다가 어질러진 방을 보고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천천히 돌아누워 조엘을 보았다. 해은은 솔직히 조엘에게 고마웠다. 조엘의 참견이 마치 엄마의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조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지 않았어도 해은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은영은 벨리를 장만하지 못했다. 벨리 한 대가 상당한 금액인 것도 그런데 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가족 중에 민혁이 처음 벨리를 장만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가장이었고 민혁도 그렇게 꺼리는 모습도 아니었다. 처음엔 은영도 꽤 팬찮았었다. 하지만 해은까지 벨리를 장만할 무렵, 어느새 은영은 민혁과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혁은 벨리를 ‘레오나’라고 불렀고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은영과 방을 나누어버렸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아예 은영이 찬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다. 은영은 그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은영 본인만큼은 늘 민혁과 해은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래서 더 벨리를 장만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벌써 조엘을 살짝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은영은 ‘벨리는 고철덩어리’를 되새겼다. 방에서 나온 은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적막했다.

오전 6시 반. 은영은 알람을 듣고 일어났다. 은영은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서는 레오나가 오늘의 추천 요리를 조리 중이었다.

“스크램블에그와 남아있는 방울토마토를 얹었네요. 우유와 함께하면 든든하겠죠. 은영 씨? 그리고 달걀도 남은 거 다 조리한 거거든요. 오후에 보충 부탁드려요.”

“그래그래 알았어. 좀 씻을게.”

레오나는 특히 일터에서 활약한다. 더하여 벨리는 외부에서 항상 사용자와 함께 다녀야 한다는 사용자 원칙 때문에라도 레오나는 언제나 민혁을 따라 회사로 간다.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은영이 아침이면 늘 레오나에게 냉장고 브리핑을 듣는 편이다.

눈을 비비며 거울을 본 은영은 푸석해진 머릿결을 보았다. 머리칼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는데 떡이 진 채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나머지 손으로는 칫솔을 들었다.

은영은 수건을 한 장 꺼내어 머리를 꽁꽁 싸맸다. 조금 선명해진 초점으로 이젠 얼굴을 점

검하였다. 밝은 표정으로 마무리하며 화장실 문을 열었다.

해은이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직 조엘은 방에서 충전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해은은 웃는 표정으로 다가오는 은영을 보고는 밝은 표정을 지어주었다. 해은은 아침 일찍이라 정신없었지만, 그 찰나의 인간미가 느껴졌다. 해은은 은영이 집안일에 하나둘 손을 뗄 때부터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은영은 방에서 화장을 하나씩 시작하였고 해은은 변을 보았다. 두 여자가 각각의 일을 보고 있을 때 벌써 용모를 끌낸 민혁이 부엌으로 나왔다. 레오나가 민혁이 앉은 자리 앞에 스크램블에그를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식탁 위에는 식빵과 우유가 함께 있었다.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었다.

“은영은?”

“볼일 보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 맛있네. 이것도 네가 한 거지?”

“그럼요.”

“나중에 은영한테도 좀 알려줘. 싫어할라나?”

레오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Status: 동면).

동면(Freezing) 상태란 벨리가 처리할 수 없는 알고리즘과 버그 발생 감지 시엔 현실 상황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답변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맛이 갔구만.”

민혁은 얼어붙은 레오나를 보고 잠시 숟가락을 놓았다. 레오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고 입을 살짝 맞추었다. 이렇게 동면이 된 벨리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약속해둔 행동으로 시동(Boot Up)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 시동 시에는 벨리는 동면 바로 이전의 상태로 초기화된다.

“얼음땡이네요.”

“그런 농담도 할 줄 아는 녀석이 뭐가 문제였어. 됐고, 오늘 업무 정리해줘.”

“꽤 많이 남기셨는데요.”

“어, 그건 여보야한테 맡기고 나갈 준비해.”

“알겠습니다.”

민혁이 나간다는 말에 은영이 방에서 나왔다. 은영은 민혁에게 어깨를 주물러주었다. 이어서 은영은 민혁의 머리를 만지려다 말았다. 너무 손질이 잘 되어있어서였다. 민혁은 허공에 병 쪐 채 멈춰버린 은영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우리 남편 고생해. 오늘도 파이팅이야.”

민혁은 은영의 엉덩이를 힘껏 잡았다가 놓았다. 은영이 황급히 뒤를 돌아 화장실 쪽을 보았다. 다행히 해은은 아직 화장실에서 씨름 중이었다. 다시 민혁을 돌아본 은영은 민혁에게 다가가려다 말았다. 민혁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레오나가 말했다. 그제야 은영은 민혁 어깨 위에 올린 손을 내렸다. 민혁은 확실히 은영이 겁을 먹은 것이 보였다. 레오나가 현관문을 열었지만, 민혁은 아직도 은영을 보고 있다. 은영은 어쩔 줄 모르며 레오나와 민혁을 번갈아보고 있다. 민혁은 은영에게 키스하였다. 은영은 따뜻한 민혁에 포옹에 화답해 주었다.

“아우, 아침부터 꿀불견이야.”

어느새 화장실에서 나온 해은이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채, 한마디 톡 뱉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놀라며 민혁에게서 떨어졌다. 민혁은 그런 은영을 보고 활짝 웃었다. 은영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 표정을 가다듬고 민혁에게 말했다.

“이제 가.”

“그래. 집 잘 지키고 있어.”

은영은 닫힌 현관문을 잠시 명하니 보고 있었다. 역시 아무리 그래도 민혁의 벨리 활성화 신호를 입맞춤으로 한 것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영은 짧게나마 혀를 차며 해은이 방으로 향했다.

‘아, 조엘. 그건 저기 위에다 올려다 줘.’

해은은 등교 준비를 하면서 조엘에게 방 정리를 시키는 것 같았다. 은영은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 민혁이 남긴 스크램블에그를 보았다. 아직 식지도 않았다. 열려있는 빵 봉지를 묶다 말고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은영은 가스레인지 쪽을 보았다. 은영은 레오나가 조리한 스크램블에그를 데웠다. 해은은 은영에게서 구워진 식사를 받았다.

“잼 빌라줄까?”

“응! …… 아니.”

“그래.”

“엄마, 근데 그거 아빠가 먹던 거 아니야?”

“맞아.”

“가족끼린데 뭐.”

해은의 입이 쭉 튀어나오다 뒤집히기까지 했다. 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빵에 캡을 빌라 입속으로 넣었다.

“왜?”

“엄마는 집에서 뭐 해? 그냥 궁금해서.”

“집에서 뭐 하긴, 집안일 하지.”

“레오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애는. 있다 보면 보여. 왜? 갑자기 엄마 걱정하는 거야?”

“아니, 나는 엄마가 놀았으면 좋겠어서.”

“나는 괜찮아 해은아. 정말이야. 엄마는 요즘 놀라운 게, 해은이가 이 엄마를 이렇게 봐주고 해주는 게 신기해.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배부르고 기쁘다?”

해은은 자신 방에서 아직 어댑터에 앉아있는 조엘을 떠올렸다. 물론, 충전은 지난밤에 모두 완료되었다. 해은이 갑자기 조엘을 떠올리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은영 머릿속에서도 그 ‘벨리’란 것이 동실동실 떠다녔지만 끔찍한 빛더미를 생각하니 곧 먹구름이 되고 말았다.

은영은 해은을 보며 애써 웃어주었다. 벨리가 비록 집 반 채 가격이라 하여도 ‘우리’는 큰 맘을 먹은 것이었다. 그리고 애초에 해은이를 이렇게 낳은 것만 해도 큰맘을 먹은 것이었다. 해은은 그저 웃고만 있는 은영을 보고 어느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스크램블에그는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해은은 입맛이 없었다.

“더 안 먹어?”

“맛없어. 난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어.”

해은은 식사 후에 꼭 양치를 하는 편이었다. 입에 남은 이물질들이 영 싫었나 보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마지막 용모를 마친 해은은 현관문을 나섰다.

은영은 식탁에 앉았다. 민혁 반 접시, 해은 반 접시, 그리고 브라이팬에 남은 은영의 뜶 한 접시. 은영은 2인분 모두를 해치우고 소파에 펴졌다. 먹는 고통을 떠올리니 그만 눈에서 눈물이 조금 흘렀다. 깜짝 놀란 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잊었던 것이 떠올랐다. 은영에게는 오늘의 집안일, ‘달걀 사기’가 있었다.

해은은 버스정류장 옆 작은 빌딩으로 향했다. 빌딩 아래에는 인조 잔디로 된 자그마한 축구장이 있었다. 풋살 축구장을 들어가기 전 해은은 고개를 들었다. ‘미리내고등학교 B캠퍼스’라는 명판이 보였다. 명판만 보는데 ‘공립학교’라는 것, 그리고 저 자그마한 학교에 들어가 잘 들어오지도 않을 지식을 머리에 쑤셔 박을 자신과 겹쳐 보이니, 해은은 기가 찬웃음이 나왔다.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조엘이 물었다. 해은은 조엘을 내려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교실 문을 들어가기 전 선생님의 벨리가 해은을 잠시 막았다. 해은은 벨리를 잠깐 손으로 젖히고 지나갔다. 그리고 책상 위로 가방을 던졌다. 시계를 보았고 무사히 자리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해은은 늘 그랬듯 아침잠이 쏟아졌다. 그리고 책상에 그대로 엎어졌다. 잠깐 눈을 감았다.

해은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것을 느꼈다.

“장해은.”

“네, 왔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해은은 조용히 그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출석은 형식적인 거고. 실은 오늘 쪽지 시험 보려고 한다.”

한 교실에 있던 7명 전원이 경악하였다.

“됐고, 1학년은 영어 시험. 2학년은 코딩.”

“코딩 어디에요?”

“어제 배운 거. 인공 신경망 기초. 그리고 신경우? 우리 경우는 코딩 시험 보자?”

해은은 한숨이 푹 새어 나왔다. 해은은 어제 내도록 조엘에게 인공신경망을 계속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해하는 척으로 끝났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새록새록 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폰질이라도 덜 할걸.’이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정우는 1학년이지만 해은과 같이 코딩 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총 10문제였다. 해은은 오른쪽을 보았다. 민예서는 뭐가 저리 신나는지 고개를 흔들거리며 자기 흥에 빠져있다.

예서 앞자리 홍민애는 긴 다리를 책상 밖으로 쭉 뻗 채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민애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이 드러나도록 등을 긁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이 시험에 대해선 별생각이 없는 듯하였다.

시간이 모두 흘렀다. 해은의 시험지가 선생님 손에 들어갔다.

“시험 1등은…… 말할까?”

“어차피 정우 아니에요?”

옆에 있던 예서가 까칠하게 말했다. 1년 아래인 정우였지만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했다. 거기에 굳이 정우뿐 아니라 자신보다 코딩을 잘하는 이는 많다. 해은은 어차피 자신이 1등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현석이야. 서현석, 1등.”

“쟤가 뭔데 1등을 해?”

예서의 목소리가 반 전체에 짜렁짜렁 울리는 것 같다. 해은 오른쪽 귓구멍은 짜릿하다 못해 이명까지 생긴다. 해은은 얼얼한 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개를 왼쪽 뒤로 돌려 현석이 앉아있는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웃고 있었다.

현석이 해은 쪽을 보더니 눈썹을 슬쩍 올렸다. 해은은 현석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알자마자 눈동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뻣뻣하게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렸다. 그나저나 해은 바로 앞에 있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굳어버린 것 같다. 해은은 절망하는 정우를 보느니 차라리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은 바로 왼쪽에 앉은 박대현은 부드럽게 볼펜을 돌리며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해은은 대현의 옆모습을 잠시 감상하고 싶었다.

“언냐, 뭐해. 책 읽으라고 책. …… 아휴, 내가 못 살아.”

예서가 무리한 자세로 다리를 쭉 뻐 뒤에 해은의 의자 밑바닥을 쳤다. 선생님은 어느새 칠판에 글씨를 적어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오른편 앞쪽에 있던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앞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보다 말고 왼편 앞자리에 앉은 이수아를 보았다.

“잠깐만, 수아야? 이수아. 얘, 너 껌 씹니? 뱉고 와.”

왼쪽 앞, 대현 앞에 앉아있던 수아는 해은보다 한 살 어린 고1이지만 해은이 볼 때는 이럴 수록 더 어려 보이는 아이다. 수아는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보다가 휴지를 찾았다. 수아는 하필 앞쪽으로 나가 휴지에 껌을 뱉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 그리고 삼진법 반도체에 대한 역사를 읊었다. 해은은 줄기차게 읽어나가다가 두 페이지 반쯤 와서 잠시 글자를 놓쳤다.

“언냐, 누설전류, 누설전류상태.”

예서가 놓친 글자를 짚어주었다. 예서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었다. 해은은 애써 무시한 채 세 페이지쯤 되니 읽는 속도도 느려질뿐더러 여기저기서 벼벽거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해은에서 수아에게로 주자를 넘겼다. 한숨을 돌린 해은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하여도 도무지 억지로 읽히지도 않는 글을 읽는 것은 안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다음 시간이 사회시간이라는 점이었다.

선생님은 잠시 교실을 떠났다. 예서가 입을 열었다.

“Hah, Jesus, God Damn It……. 머리가 아주 그냥 고철 뎅어리가 된 것 같다. 난 아무래도 오늘 조상님한테 가야겠다.”

“야, 민예서. 너 아까부터 계속 나댄다?”

“언니는 팬찮아? 아니 쌩, 언니도 봐봐, 이게 사람 읽으라고 써놓은 거냐고.”

“아! 좀, 닥쳐!”

결국 앞자리 민애가 뒤를 돌아 직접 예서를 보며 성질을 내었다. 예서는 의자에 퍼질러진 채 민애를 무시했다. 저 둘은 저마다 곧 또 친해질 예정이다. 해은은 말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복습을 시작하려 했다.

“언냐언냐, 이거 봐. 벨리 업데이트 했데. 봤어?”

“아니, 언제?”

“지금 막. 미성년자 감성 대화 데이터 수집했고, 고거 기반으로 일반인 적용 뭐 어쩌구.”

“야, 그건 또 언제 수집했는데?”

“기억 안 나? 얘기했었잖아! 벨루랑 뉴스에서 그 머냐 베이트 머시기에서 뭐 좀 쓴다고 하루 평일 난리였는데.”

“무슨 베이트야. 빅데이터베이스센터임.”

“조용히 해라, 이수아.”

책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말들을 보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던 해은은 팬스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겨 다시 눈을 떴다. 당연하지만 해은에게도 ‘밸리 업데이트 항목’은 조금 중요 한 사항이었다.

해은은 업데이트 항목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려 하였다. 집중을 시작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해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야, 너 따라 와 봐.”

해은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들어보았다. 대현이었다.

갑자기 대현을 정면으로 바라본 해은은 숨이 턱 막혔다. 폰은 스스로 화면이 꺼졌고 해은은 금세 무언가에 훌린 듯 대현을 따라 교실을 나갔다.

예서는 해은을 따라 고개를 돌리다가 해은은 문을 나간 시점에 눈이 마주칠까 책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민애와 눈이 마주쳤다. 민애가 웃었다. 이후로 교실은 먼지 굴러다니는 소리 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둘의 인기척이 다 사라져갔다.

“어떡해, 어떡해. 나 몰라. 나 몰라!”

예서가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렸다. 수아가 예서를 한 번 보았다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책상에 엎어졌다. 민애는 미친 듯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손을 잡았다. 둘이 씨름을 시작했다.

정원이 77명인 자그마한 학교에도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있었다. 대현과 해은은 벨리를 잠시 안 보이는 곳에 두고 동면 상태를 걸어두었다. 뒷문 분리수거장 옆에서 대현이 등을 대었다.

“피곤해?”

“어? 아, 아니. 그나저나 여긴 왜 온 거야?”

해은은 어느덧 혹시나 하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저 짜증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대현은 슬며시 웃으며 천천히 해은을 바라보았다.

“너 오늘도 나 봤잖아. 이제, 그만 좀 봐 달라고.”

“어?”

“부담돼.”

해은 머릿속을 송곳 하나가 강하게 찔렀다. 해은은 잠시 바닥을 보면서 겨우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고개를 들어 대현을 흘겨보았다.

“대도시면 뭐 하냐고. 학교가 쪼그매 가지고 100명도 없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는 거 쉽지 않은 거 같아. …… 내가 부족한 걸로 치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

“대신 벨리 이름 나눌래, 우리? 아니, 너랑 나.”

“…….”

“뭐야 말 좀 해. 아 쌩, 몰라. 내 벨리는 ‘아서(Arthur)’야.”

해은은 그만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은 눈물이 흐르는 허탈한 웃음이었다. 해은은 붉어진 얼굴을 그대로 대현에게 보여주었다.

“대체 왜 그러는데?”

“…… 사랑해서 미안해. 됐지?”

“…… 어. 나도 좋아해. 그리고 내 벨리 이름은 조엘이야. 그나저나 너 께 되게 촌스럽네. 의외다.”

“남자였냐? 알아봤었어. 그리고 네 께 이름도 촌스러워.”

해은은 눈물을 닦고 꽤 높아진 목소리 톤을 가라앉혀 보았다.

“솔직히 말해주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런 거 아니야. …… 가. 떠나게 됐어. 그래서 그래.”

“연락하면 되잖아.”

“멀리 가. 유학 가게 됐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무리일 거 같아서.”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아보았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막지는 못했다. 대현은 해은을 꽤 안아주었다. 해은은 대현의 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미안해.”

“가지 마.”

해은은 뜨거운 대현의 품이 느껴졌다. 대현은 따뜻한 해은의 가슴이 느껴졌다. 서로의 몸을 쓰다듬은 둘은 잠시 떨어졌다. 대현은 시계를 보려 하였다. 해은은 대현에게 입을 맞추었다. 대현은 천천히 해은을 받아주었다.

해은은 먼저 조엘의 동면을 해제하였다. 대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아서의 동면을 해제하였다. 해은은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벌써 됐네. 가자. 조엘, 우리 대현이가 쪽지 시험을 봤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그렇게 속상하단다.”

조엘과 아서는 서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현은 곧잘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해은은 차마 바로 교실로 가지 못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서 물골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수업 시작 직전 도착한 해은은 사회 교과서를 펴 보았지만, 글씨가 너무 날아다녀서 도통 눈에 넣을 수가 없었다. 해은은 명한 눈으로 선생님과 정우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저 그렇게 멍하니 지켜보았다.

수업 시간의 종이 쳤다. 정우가 수아의 눈과 마주쳤다. 수아는 정우를 내리 깔 듯이 보았다. 정우는 슬쩍 웃으며 다시 태블릿을 보았다. 해은은 당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오늘은 정말 보람찬 수업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각자 돌아가서 다듬을 수 있도록!”

해은은 갑자기 아파지는 머리와 함께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다. 해은은 화장실로 향했다.

해은이 화장실에서 화장을 조금 고치는 동안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쳐들어왔다. 아직 제대로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던 해은은 옆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를 지경이었다.

“언냐, 왜 그래. 팬찮아?”

“하 씨, 조용히 해!”

“와, 해은이가 욕을 다하네. 너 혹시……. 예서야, 일 났다.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해은은 당장에라도 이 둘을 아주 죽여 버리고 싶었다. 해은은 거울을 통해 둘을 노려보았다. 민애는 그 매서우면서도 어설픈 두 눈을 보고는 해은의 엉덩이를 세게 쳤다. 해은은 고개를 다시 떨구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얘 이대로 못 보내. 해은, 너 우리 집에 오늘 초대야.”

사실, 민애와 예서는 꽤 있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늘 둘이 다녔던 탓에 해은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재밌는 볼거리 정도였다. 그러는 와중에 워낙 반 정원이 적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관심을 끄고 싶어도 서로의 가정사까지 다 알 정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래도 민애가 해은을 자신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눈 뜨고는 겪어볼 수 없는 일이었다.

해은은 거울을 보며 잠시 고민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저 친구 집에서 놀다 갈게요’

‘그래라₩ 오늘 오후 3시경에 미세먼지 폭풍이 있다더라₩W 꼭 어디 들어가 있고₩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올 때 꼭 전화하고’

“자, 봤지? 그래서 뭐 할 건데?”

“뭐하긴. 일단 오기나 해.”

“술 파티. 이참에 멤버 한 명 늘리는 건 어때? 아, 밤새우는 거 아니면 술은 무런가?”

“예서, 너 오늘 진짜 나댄다.”

“왜, 언니? 날랑하지 않아?”

술이란 말에 해은은 잠시 단히지 않은 문자를 보았다. 은영과 더 얘기를 나눌지 고민하다가 그만 두었다. 해은은 정말 오늘 뭐든 하고 싶었다.

해은의 짧은 답변 문자를 읽은 은영은 다이어리를 덮고 안경을 벗었다. 잠시 안경을 내려놓기 전 안경알에 묻은 먼지를 보았다. 반백에 다가갈수록 해은이를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하는 걱정이 먼저다. 하지만 별씨 이렇게 하나씩 고장 나는 것 같다. 비록 아직 약한 원시이지만 어쨌든 안경을 써야 편하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하다.

정신을 차리니 한 시가 다 되어갔다. 원래라면 점심을 먹어야 하지만 아침을 너무 무리하게 먹은 탓인지 아무것도 먹기 싫었다. 잠시 꺼진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갑자기 더부룩해지는 뱃속 때문에 바로 일어났다. 아직 한 시 전이기 때문에 세 시 전까지 장을 볼 시간이 충분하였다. 이참에 바람을 한 번 쏙기로 마음을 잡은 은영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서랍 안에 지갑과 장바구니를 꺼냈다.

한낮에 올라탄 무인 버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래폭풍이 예정된 것도 맞겠지만 보통 무인차로 외곽이라 이용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은영은 버스에 있는 이동식 TV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움직이는 풍경들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마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탔다. 은영 옆에도 사람 하나가 앉았는데 순간 은영 살결과 닿았다. 은영은 창 쪽으로 더 몸을 움직였다.

“아이구, 지랄이야. 지랄은.”

은영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슬쩍 눈만 돌렸다. 할머니 둘이서 TV를 보고 담소를 나눴다. 은영은 조금 궁금해져서 귀를 살짝 열어보았다.

‘70대 부부가 인공자궁 기술로 아이를 가지는데, 해당 산부인과 측에서 알고 보니 유전자 가위로 편집된 일명 조작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DNA 편집 기술을 이용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공자궁 수정에 성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검찰은 해당 산부인과와 조작된 아이를 가지게 된 해당 부부에 대해서 수사 착수에 들어갔으며…….’

“돈 많으니까 70에 애 가질 생각을 하지. 난 못 해.”

“쯧물딱거릴 때가 있는 법인디. 거시기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여.”

꺄르르 웃는 할머니들 위에서 조금만 정숙해달라는 인공지능 방송이 나온다. 은영은 대수롭지 않게 다시 밖을 쳐다보며, 자신에게 맞는 정거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은영은 전혀 대수롭지 않았다. 지나가는 건물들 사이로 잊고 있었던 그날이 떠오른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은영은 결국, 살을 찢는 고통과 함께 지쳐갈 즈음 빛나던 작은 꿋꿋어리를 기억해내고 말았다.

‘너는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병실 침대에 누워 있던 은영에게 해은을 안고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건넨 민혁의 충고였다. 은영도 역시 밀려오는 기억을 막고 싶었을 뿐이다. 물론, 자신도 감정적인 인간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글을 써보기도 하며, 집에서 나와 걷기도 하였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건물만 보기로 하였는데도 그 건물 사이로 비치는 빛 너머로 옛 기억들이 넘어온다. 은영에게는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생겼다.

바람 빠지는 소리와 버스 문이 열렸다. 은영은 건물에서 창에 비치는 자신 얼굴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지만, 얼굴은 붉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은영은 자신 얼굴 너머로 마트가 보였다. 지금 당장 내려야 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맺혀있던 눈물이 버스 바닥 어딘가로 떨어졌다.

‘세제, 햄, 라면 한 봉지, 쪽파, 양파, 마늘, 그리고 달걀 15구.’

은영은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폰으로 찍어 왔었다. 모두 마트 지하에 있어야 할 제품과 항목들이라서 은영은 카트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다.

세제를 담고 햄, 라면을 담은 뒤 식품매장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 은영은 벨리가 끄는 카트와 마주치게 되었다. 은영은 벨리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었다. 서서히 이러한 현실에 적응해가는 은영이었기에, 벨리 속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다만, 요즘 들어서는 벨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마트를 넓게 돌아서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다.

은영은 빠르게 물건들을 담았고 계산을 마친 뒤 매장을 나가려고 하였다.

‘마트 내 고객 여러분께 긴급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에 당도할 것이라 예상했던 강한 모래폭풍(Rough Dust Storm)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건물 내에 계속 머무시거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은영은 그 ‘강한 모래폭풍’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강한 모래폭풍이란, 근래에 한국에서 생겨난 기상이변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내리던 시절 후, 계속 날씨가 급변하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강산에 사막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위와 같이 한국에서 강한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벨리의 대량생산과도 연관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은영은 안내 방송을 듣고 밖을 유심히 보았다. 아직 거리는 평소와 같아 보였다. 은영은 뒤로 슬쩍 고개를 돌려 카페 쪽을 보았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고쳐 들고 핸드폰을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아직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은영은 그냥 나가기로 하였다.

바로 앞에서 집까지 가는 버스를 놓치니 은영은 ‘조금 더 서두를 걸.’ 싶었다. 결국, 정류소에 앉아 30분 정도 되는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팬스레 버스정류소 패널에서 버스 위치를 찾았다. 다음 버스는 아직 종착지점에서 출발조차 안 하였다. 은영은 가슴 저 짚숙한 곳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모범버스(Deluxe Bus)까지 찾아봤으나 역시나 모두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은영은 길 건너편 마트를 보았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카페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순간 정류소 차폐막이 닫혔다. 모래폭풍이 몰고 오는 먼지들이 하나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은영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백에 마스크를 구비 해두었었다. 긴급탈출 버튼

(Emergency Ejection Button)을 누르면 정류소를 나갈 수는 있었지만, 은영은 그냥 마스크를 쓴 채 정류소 의자에 앉아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양팔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한낮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은영은 그대로 영원한 잠이 들어버리겠다는 심상이었다. 자세를 고쳐 잡고 더 웅크렸다.

‘너무 바보 같아.’

유리에 부딪히는 모래들이 조금 규칙적으로 들릴 즈음이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둔탁한 무언가가 인위적으로 두드리는 소리였다. 은영이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니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밖에서 헤드랜턴을 낀 채 은영을 보고 있었다. 은영은 눈이 부서 손을 들었다. 구급대원은 랜턴의 밝기를 조금 낮추었다. 구급대원은 문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다. 문밖에서는 다른 구급대원이 방호덮개를 들고 있었다. 문밖으로 나가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이 최대한 은영이 들어가기 좋게 키에 맞추어서 덮개를 걷고 있었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입술을 굳게 문 채 작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힘차게 긴급탈출 버튼을 눌렀다. 구급대원은 재빠르게 튀어나오는 은영을 덮개 안으로 넣었다. 포근한 덮개에 쑥 들어가자 비로소 은영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힘쓰는 구급대원과 정거장에 홀로 남겨진 긴급탈출 버튼에게 감사하였다.

여러 전문가는 운송 수단들이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사용자가 비상 상황에 일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버튼과 탈출 메커니즘의 관계를 설계 중이다. 하지만 아직 여객선이나 항공기, 열차와 같이 중·대형 운송 수단에 대한 버튼 및 메커니즘 개발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은영은 9시 뉴스로 한 번씩 미세먼지 폭풍 속에서 어떤 시민이 이런 방식으로 긴급구조되었다는 말만 들었지, 그 뉴스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영이 처음 겪는 덮개 안은 우선 바람 소리가 크게 울렸고 모래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류소에 앉아있을 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덮개 상단부에는 A4용지 정도 되는 크기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앞을 볼 수가 있었다. 은영은 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 문이 열려버린 정류소 안은 어느새 모래폭풍으로 뒤덮여버렸다.

구급대원은 구급 승합차의 문을 힘 있게 밀면서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 상단부에 설치된 바람막이가(Wind Shield)가 작동하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차량 내부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막긴 했지만, 은영이 그 막이를 직접 통과해보니 덮개를 쓰고 있어도 머리를 아플 정도로 바람이 세게 때렸다.

“아휴 어쩌다. 방송 못 들으셨어요?”

“아뇨, 들었는데……. 버스를 바로 앞에서 놓쳐서…….”

“사모님 고생하셨네. 저희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뭐라도…….”

“저희는 사모님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은영은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대원은 적외선 고글을 착용하였다. 그리고 개미 기어가는 속도로 운전하였다.

모래폭풍 구조차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였다.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에 사람이 직접 대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구조차가 운행된다면 이미 모래폭풍이 들이닥친 상황일 것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서행해야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아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되지 못했다.

“도착하시면 덮개 빨리 벗으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씻으세요.”

“네.”

아파트 문 앞까지 오니 벌써 4시가 지나고 있었다. 대원은 지하로 내려가 은영을 내려주었다. 덮개는 은영은 손 하나 쓰지도 못한 채 대원이 직접 걷어 올려주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은영은 덮개 속에서 툭 튀어 나갔다. 은영은 곧잘 대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였다.

집에 도착한 은영은 그대로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레오나가 집기 좋도록 하나씩 꺼내주었다. 우선 급한 달걀부터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였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은영은 식품에 손을 대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은영은 다시 신발장으로 가 먼지떨이로 야무지게 몸을 텔었다. 이후로 신발까지 두어 번 바닥에 내려친 후 청소기로 가 자신이 다녔던 곳을 모조리 밀었다. 특히 부엌은 대여섯 번 더 밀었다.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다 놓으니 은영은 자신이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깐 상온에 둔다고 달걀이 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영은 보일러에 물을 테웠고 옷을 하나씩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은영은 머리를 위로 묶었다. 흐르는 물을 등에 직접 닿게 하고 싶었다. 거친 숨을 내쉬는 은영은 눈을 감은 채 물의 온도를 조금씩 높였다. 은영의 하얀 속살은 물 온도에 조금씩 붉게 변하고 있었다. 은영은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온도를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한동안 따뜻한 물살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은영은 식품을 냉장고에 정리하였고 나머지는 식탁에 잘 진열해 둔 뒤 침대에 그대로 누웠다. 이불을 덮으니 그대로 잠이 쏟아질 듯이 밀려왔다. 핸드폰을 보니 4시 반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오늘은 해은이도 놀고 오겠다고 하였으니 당분간 집에 올 사람은 없는 것은 맞았다.

은영은 핸드폰을 끄려던 찰나 상단 표시줄에 알람이 하나 와 있는 것을 보았다. 벨리의 업데이트 소식이었다. 아무래도 벨루에서 스마트폰까지 서비스하다 보니 이런 빅뉴스는 전부 공유하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정보를 읽어 내려가다가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다.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한하여 감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미성년자에게서 얻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인공지능 감정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감정적인 언행과 퍼포먼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영은 그놈의 인공지능 얘기만 나오면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더 핸드폰을 볼 힘이 없었다. 은영은 옆으로 누운 채 무릎을 안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서늘한 느낌에 은영은 이 한여름에 이불을 어깨까지 덮었다. 그리고 머리에서 생각난 한 마디가 그 어느 장애물 하나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뭐야…….”

지금쯤이면 모래폭풍이 다 지나갔을 것이지만 은영의 방은 폭풍 때보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지만, 은영은 방에서 나갈 용기가 없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집 안에 발걸음이 울렸다. 은영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무릎을 끌어 안았다. 누군가 은영의 방문 앞에 섰다.

‘똑똑.’

“꺄악!”

은영은 비명을 내지르자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슨 일이야!”

“허, 어……. 여, 여보. 어. 어? 아니야. 그냥… 악몽 꿨어. 어, 꿈이 뒤승승해가지고 그래.”

“뭔 꿈을 꿨기에 이렇게 식은땀이야.”

민혁은 은영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은영은 아직 민혁에게서 ‘바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직 은영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민혁은 불을 키려 문으로 다시 걸어가던 찰나였다. 레오나가 방 앞에까지 왔다. 은영이 무뚝뚝한 레오나의 얼굴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은영 씨? 얘기 가능할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은영은 레오나의 차가운 얼굴에 그대로 훌려버린 듯한 대답을 하였다. 민혁이 은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혁은 우선 레오나에게 손짓하였고 레오나는 민혁의 손짓을 자료화하여 분석에 성공해 대기 상태로 돌입하였다. 민혁은 은영의 어깨와 볼을 번갈아 가며 어루만지며 다독였다. 은영은 민혁의 그대로 품에 안겼지만, 민혁의 어깨 너머로 대기하고 있는 레오나가 보였다.

은영은 레오나와 함께 빨래 바구니로 갔다. 레오나는 은영이 낮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벗었던 속옷과 옷을 하나씩 꺼내어 다른 손으로 옮겼다.

“은영 씨, 해당 빨래 물에서 미세먼지 성분이 다량 검출됩니다. 이러한 빨래 물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해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이 위생상 적합합니다. 차후에는 제가 또 다른 바구니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 이러한 빨래 물 구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은영이 잘못한 것은 또 있었나 보다. 은영은 이제 체념한 채로 레오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세제를 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제를 왜 사셨습니까?”

레오나는 늘 이런 말투였다. 은영은 3년째 적응해보려 했지만 유독 오늘이 너무 버겁긴 하였다.

“아니, 이거 네가 써놨잖아. 폰에 찍어놨어. 봐봐 이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또.”

민혁은 레오나와 은영이 계속 붙어있는 것이 여간 신경 쓰였는지 부엌으로 왔다. 민혁은 은영에게 웃음을 보여주더니 레오나에게 갔다.

“우리 레오나가 또 뭔 잘못을 했어?”

“글쎄, 내가 세제를 팬히 샀다고 하네?”

레오나는 은영이 전해준 핸드폰을 들고 분석에 들어간 것 같았다. 민혁은 퇴근 전 회사 때처럼 분석에 들어간 레오나를 믿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은은 그런 민혁의 옆모습을 보면서 말을 하였다. 민혁이 레오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당신이 잘 못 본 거 아니야? 착각했다던가.”

“여보!”

레오나는 포스트잇을 분석하다가 동면에 돌입했다. 민혁은 레오나 뒤로 거친 숨소리를 내쉬는 은영을 본 뒤에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이 시뻘게진 채 세상을 다 삼킬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은영이 화가 나면 딱 이 모습이었다. 민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 아니, 그게.”

“냉장고 봐봐. 보라고. ‘세제’ 쓰여 있잖아, 안 그래? 나, 저렇게 컴퓨터처럼 쓰라고 해도 못 써!”

민혁은 레오나처럼 얼어붙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은영은 아예 멈춘 민혁을

향해 고갯짓으로 냉장고를 가리켰다. 은영의 눈은 고갯짓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민혁은 지금 냉장고를 보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첫 번째 항목에 정확히 ‘세제’라고 프린트되어 있었다.

“뽀뽀해봐! 둘이 뽀뽀해보라고!”

은영은 민혁 뒤통수에다가 나지막하면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려버린 채 그대로 방으로 뛰어갔다. 민혁은 어느새 멀어져 버린 은영을 뒤따라갔지만, 은영은 이미 방 안으로 도망간 후였다.

“은영야!”

“레오나랑, 살아!”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은영의 울음소리가 폭발하였다. 민혁은 방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잡겨버린 문고리를 부여잡았다. 민혁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얼어붙은 레오나를 본 후에는 더 고개가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온통 은영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영은 오래간만에 다 시원하게 토헤낸 기분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도 방문 앞에 쭈그리고 있을 민혁을 위해 방문에 잡긴 문고리를 풀어주었다. 결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자 민혁은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은영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있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은영 옆에 앉았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여보는?”

“나야 뭐 똑같지. 그래도 꽤 다닐 만하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여보는 왜 그렇게 힘들어?”

“그냥 사는 게 힘들어. 그나저나 저건 또 왜 저러는 거야.”

“보니까 베그 걸렸네.”

“짜증 난다, 진짜. 무슨 세제 하나 때문에 저러냐고. 머리 아프다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도 몰라. 개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디버깅해봐야겠지 또.”

베그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벨리는 벨리였다. 벨리는 은영을 사용자 외 인물인 돌발변수로 인지하는 만큼 은영도 벨리의 행위와 말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벨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 맞는 답이라 마음을 파내며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 자신이 마음을 파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은영은 처음에는 벨리의 행위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차이가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다.

하지만 민혁이 볼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심하지는 않았다. 그저 은영이 그 틈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해 스스로 극심한 고통에 잠기는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한숨을 내쉰 은영은 다시 한번 큰 숨을 내쉰 뒤 민혁의 손을 잡았다. 은영은 팬스레 민혁의 손을 흔들었다. 은영은 처음 민혁의 손을 잡았을 때의 손버릇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은영의 전화기가 울렸다. 은영을 찾는 이가 이 시간에 있을 턱이 없었다. 핸드폰을 보았고 호출은 딸내미 장해은이었다.

“어, 우리 딸. 왜.”

‘어, 나 오늘 빨리 들어가려고. 오늘 미세먼지 폭풍 너무 심해가지고, 오염도 너무 심해가지고. 약속 취소됐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해은아, 그럼 그냥 들어오지, 그랬어. 왜 전화해.”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랬잖아.’

은영은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웃었다. 민혁은 옆에서 둘의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

다.

“빨리 들어와. 발걸음 얼마나 된다고.”

은영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민혁은 은영의 팔을 주물렀다.

“아이고, 정은영 딸내미 하난 잘 키우네.”

“장민혁 씨, 아까 말했잖아. 죽을 거 같다고. 이 몸이 성하지가 않다고요.”

은영은 민혁과 잡은 손을 거칠게 흔들었다.

은영과 민혁은 해은을 데리러 가기로 하였다. 나갈 채비를 하면서 외식 장소를 정했다. 민혁은 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참, 벌리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던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시킬 거 아니야.”

“그래. 지금 나가면서 이참에 맡길까? 버그도 얘기하고.”

“응, 그래. 버그. 망할 놈의 버그.”

레오나의 다리는 은영이 몸 부분은 민혁이 들었다. 둘은 낚낑대며 레오나를 짊어진 채 현관문을 나섰다.

두 번째 잔. 환상, The Vell With Ari

레오나를 뒷좌석에 눕혀놓은 탓인지 널브러진 팔이 특특 은영의 시트를 쳤다. 은영은 못내 거슬렸는지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팔을 올렸다. 하지만 곧 팔이 또 떨어져 은영의 시트를 특특 쳤다.

“여보, 이거 앉히면 안 될까?”

“에이, 뭐. 다 왔어. 요 앞이야.”

은영은 정말 하얗게 빛나는 서비스센터 간판이 보였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은영이 시간 내 걷는다 해도 별로 멀지 않을 거리인 것 같았다.

민혁은 부드럽게 차를 돌리면서 서비스센터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 은영과 민혁은 뒷좌석 쪽으로 향했다. 레오나의 허벅지를 끌어내 보려 한 은영이 입을 열었다.

“여보, 벨리 옮기는 거 사람 부르면 안 될까? 너무 무겁다.”

“어 맞네. 그러면 되겠네.”

민혁은 서둘러서 매장 문으로 향했다. 은영은 민혁 옆으로 가 팔짱을 끼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내뿜는 화려한 빛들이 민혁과 은영을 감쌌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빛들이 이루는 여러 자연물과 사람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거의 헐벗은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다. 민혁은 더 올려 볼 수가 없었다. 반면에, 은영은 반사적으로 프로젝터 아래에 있는 가격표를 보았다. 가격표의 숫자는 은영이 떠올린 가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은영은 더 내려 볼 수가 없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버그가 생긴 것 같아서 동면 상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였지 여보?”

“그리고 업데이트요.”

“업데이트라면 요번에 ‘공감 업데이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전에 안내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위해선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셔서 따로 시간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는 안 걸립니다. 다만, 업데이트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업데이트를 마친 벨리 배송은 다소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벨리가 정비에 들어가면 보통 얼마나 오래 걸려요?”

“보통 이를 정도 소요되긴 하죠.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몰려서 하루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네요.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은영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주는 이 직원이 마음에 들었다.

“전 차에 있으려고요. 구경할 것이 많긴 한데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정말이에요. 진짜 좀 피곤해서요.”

“제가 주차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준 뒤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센터 2층으로 올라갔다. 은영은 각종 안내서와 사은품을 받으며 매장을 나갔다.

벨리에 관련된 이슈가 베그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 민혁은 베그로 인한 보상뿐 아니라 회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명 ‘베그 휴가’를 받게 된다. 일터에서는 이렇게 직원의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위하여 하루나 오류 정도가 심하면 사흘 정도의 베그 휴가를 지급한다.

잠시 짬이 난 배달 기사가 불려 나와 레오나를 센터 2층으로 옮겨다 주었다. 직원은 일차적으로 간단한 전자파 감지 장비로 레오나 이외의 전자 장비를 탐지한다. 그리고 맨눈으로

외부 손상이나 손상을 가한 흔적,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내부 조작을 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다. 벨리가 본격적으로 디버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더 복잡한 사전작업을 거치지만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다.

“손님, 디버그 프로세스 접수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벨리 이름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될까요?”

“네. 그런데 혹시 손님 벨리 정비기간 동안, 예비 벨리가 필요하실까요? 기존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외형이 기본형이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군데 모두 다 얘기가 되었거든요. 요즘은 소식통이 빨라서 원. 그건 그렇고 전 그냥 하루 정도는 없는 셈 치고 지내려고 합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민혁과 직원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민혁은 어디론가 실려 가는 레오나를 한 번 돌아보고는 2층을 내려왔다. 매장을 나서기 전 뒷좌석이 비었음에도 앞좌석에 앉아있는 은영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 민혁이 운전석 문을 열었다. 민혁이 앉아 차가 한 번 크게 흔들거린다. 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 왔어? 어땠어? 팬찮데?”

“어어, 팬찮아.”

“다행이네. 다음번에도 여기 와야겠다. 서비스가 좋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여보, 우리 기분 좋은데 딸이나 꼬셔서 밥 먹으러나 갈까?”

은영은 말없이 빨리 가라는 손짓하였다. 민혁은 차 안이 조금 싸늘한 것 같았다. 은영은 창틀에 팔을 얹히고 굽혀진 허리를 조금 훑었다. 온몸에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개운하였다. 민혁은 조금이나마 잠을 청하려는 은영을 보고는 운전대를 고쳐잡았다.

해은은 미리 얘기했던 대로 학교 앞에서 핀업하였다. 민혁은 차를 몰고 시내로 조금 나갔다. 회사 사람들이 최근 오픈한 양고기 집을 그렇게 추천한다고 하여 해은은 별수 없이 끌려갔다.

맛집이라 소문이 나서 그런지 매장 밖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그 긴 줄 끝에 섰다. 해은은 민혁을 따라 섰고 은영은 차 앞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혹여 새치기당할까 답답한 마음에 은영을 부르려 하였다.

은영은 도리어 민혁과 해은에게 손짓하였다. 해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민혁을 바라보았다. 해은은 줄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은영에게 달려갔다.

“왜.”

“예약했지. 아빠가 하라더라.”

해은은 은영을 끌고 가게 쪽으로 향하려 하였다. 은영은 해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짚은 해은의 힘을 어찌할 수는 없었다.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민혁에게 손짓하였다. 민혁 뒤로 이미 5팀은 더 섰다. 민혁은 망설이다 끝끝내 줄을 포기하고 은영에게로 걸어갔다.

가게 안은 고기 냄새로 가득하였다. 온종일 힘이 없었던 은영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것을 느꼈다. 해은이 바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해은은 옆구리로 은영을 밀쳤다. 은영과 해은은 서로 웃으며 바라보았다. 해은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매장 디스플레이를 놀렸다.

“어디 방이야?”

“D11. 4인 방이야.”

“어 근데 메뉴는?”

“해은이랑 아빠랑 뭘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같이 보면서 선택하자고.”

“엄마도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엄마!”

은영은 가게 가운데에 크게 자리 잡은 나무 하나를 보았다. 한창 그 나무를 보느라 정신이 팔린 은영을 말리려 온 해은도 같이 나무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남은 민혁이 메뉴를 선택하고 은영과 해은에게로 향했다.

“뭘 그리 보고 있는데?”

“사계수래.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나무.”

“참, 신기하네.”

“그르게, 그런데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으려니 참 힘들기도 하겠지? 보기만 좋으면 되는 걸까나? …… 뭐, 여보는 시켰어?”

“우리 해은이 좋아할 거 같은 걸로 시켰어.”

“잘했어, 여보.”

민혁은 양갈비 4개가 달려있는 B세트를 시켰었다.

은영이 선택한 방은 이미 시원하게 냉방이 되어있었다. 심지어 바닥까지 시원해 바로 앓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양고기 집은 열 테이블 정도가 설치된 비교적 대형 음식점이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꽤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천장에는 홀로그램으로 된 고래와 물고기들 해초들이 살아 움직였고 여기저기서 작은 바닷소리가 들리게끔 꾸며놓았다. 해은 옆에는 화분이 하나 있었다. 은영이 슬쩍 해은의 옆으로 와 이파리를 건드려보았다. 이파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 모습에 해은은 입이 벌어졌다. 민혁은 그런 해은과 은영의 모습을 폰에 담았다. ‘찰칵’ 소리에 해은과 은영은 카메라 쪽을 보며 다시 활짝 웃었다. 민혁은 이번에 제대로 찍어주었다.

양갈비는 하나씩 나누어 먹었고 나머지 하나는 해은이가 가져갔다. 은영은 나머지 양갈비 하나는 물론이거니와 물 한 잔조차 제대로 들이켤 수 없었다. 점심도 짙었던 탓인지라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배가 불렀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허리를 쭉 뻐고 머리를 아예 뒤로 젖혀 기지개를 켜보았다. 행복한 신음이 나왔다. 옆자리에 있던 해은이 민망한 나머지 은영의 배를 톡톡 쳤다. 은영은 해은이 만진 배를 스스로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해은을 쳐다보았다. 해은도 팬스레 은영의 배를 내려 보았다.

“잘 났네. 아주 자알 났어.”

은영은 해은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민혁은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저녁 메뉴 선택을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맛도 꽤 좋은 편이라 다음번에도 올 수 있으면 오기로 하였다.

“이런 집이 망하진 않을 것 같아.”

은영의 최종 평이었다. 해은도 승낙하는 표정이었다. 민혁은 대성공이었다. 비록 외곽 쪽에 위치하였지만 이런 맛집이라면 역시 언제나 환영이었다. 해은은 조엘을 챙겼고 민혁은 해은을 기다렸다. 은영은 먼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원래 손만 씻을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변기에 앉은 은영은 집중하였다. 생각만큼 일이 진행되지 않자 은영의 눈이 조금 찌그러졌다.

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매장 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것 같았다. 조금 괴상한 느낌이 들어 은영은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으로 손이 갔다. 화장실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여유로운 교향곡 같은 것이 들려온다. 은영은 자잘한 소리가 잦아들고 재생되는 새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귀를 기울였다. 은영은 핸드폰으로 가던 손을 멈추고 편하게 집중하였다.

은영이 매장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해은과 민혁을 만났다. 밖을 보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우였다. 은영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매장 입구는 줄을 기다리는 사람과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얹혀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이 차로 향한 사이 은영과 해은은 가게 처마 밑에서 기다렸다. 인도와 주차장까지 합하면 입구에서부터 차까지 거리가 째 되었지만, 민혁은 그냥 빗속을 뛰어갔다.

“여보! 아유, 내가 못 살아!”

은영은 손으로 비를 막아보았지만, 워낙 퍼붓는 텃에 턱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은영과 해은은 손을 내리고 웅덩이를 최대한 피해 가며 천천히 차를 향해 젠결음으로 뛰었다.

“여보, 괜찮아? 빠진 거 아니지?”

“……. 괜찮아.”

이어서 둘은 알 수 없는 눈빛을 교환했다.

“하, 됐고 집에나 가요. 무슨 일이람 이게.”

은영과 민혁은 투덜대는 해은을 억지로 끌어안고 차에 올라 태웠다. 차는 부드럽게 집으로 향했다.

국지성 호우라 그런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에 구멍이 뚫려있었다. 아직 구름은 많이 있었지만, 달이 보일 정도로 날이 맑아졌다.

민혁은 꽉꽉 찬 아파트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 은영과 해은을 먼저 집으로 올려보냈다. 집에 오자마자 해은은 화장실로 가 옷을 벗었다. 은영은 은영 방으로 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 민혁 방에 딸린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은영이 맨몸으로 이제 막 화장실을 나오는 참이었다. 민혁은 오래간만에 본 은영의 맨몸을 보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입을 막았지만, 헛기침이 나왔다. 은영은 수건으로 서둘러 몸을 닦고 속옷부터 간결하게 입었다. 은영은 잠옷을 입고 아직 젖은 머리를 손으로 옮겨 물방울이 바닥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맸다. 민혁은 은영의 들려진 팔 사이로 저 안속 깊은 곳에 있는 하얀 맨살까지 훤히 볼 수 있었다.

“뭐 해?”

“아니, 나 이제 쓸게.”

“그래.”

은영은 민혁의 얼굴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다. 은영은 민혁의 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눈매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참. 기분 좋은가 봐, 오빠.”

“여보, 조용히 해. 애 들을라.”

“허, 아까 사진 찍은 거 단체 방에다 올려줘.”

“알았어.”

민혁은 무력하게 대답하였다. 은영에게 허구한 날 이렇게 간파당하지만, 매번 기분은 좋았다. 속이 안 좋아 변기에 앉았지만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민혁이었다. 은영이 잠시 사용한

화장실은 유독 달콤한 향기가 짙게 밴 것 같다. 민혁은 해은과 은영이 고기를 뜯고 있는 사진을 단체 방에다 업로드하였다.

은영은 머리를 뾰송뾰송하게 말리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손에 들었고 화면을 켰다.
‘으웩’

해은의 채팅이었다. 은영은 활짝 웃으며 민혁이 올려준 사진 모두를 내려받았다. 은영은 갤러리에 들어가 사진 하나하나를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았다. 확대하고 줄이기도 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을 붙여보기도 하였다. 그중에 은영은 하얀 날개가 달린 하트를 선택했다. 갤러리 인공지능이 두 여자의 얼굴 각도를 계산하여 은영이 선택한 스티커와 위치에 적절히 왜곡 효과와 굴절을 넣어 자연스럽게 코 위에 스티커가 얹어지게 만들어 주었다. 은영은 해당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배부른 하루가 된 것 같았다.

은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열었다. 마우스로 위쪽 끝을 드래그하여 화면 위쪽으로 Glass 패널(Panel)을 옮겼다. 인터넷 패널은 미리 사용자와 약속된 명령으로 인해 패널이 전체 확장되어 넓은 화면에 인터넷이 꽉 찼다. 은영은 이어서 서랍에 있는 넓은 성경과 안경을 꺼냈다. 인터넷에 다니는 교회의 페이지를 접속하여 ‘오늘의 수요예배’를 클릭하였다. 벌써 밤 10시가 되어 이미 정규 예배는 끝이 났지만, 교회 측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놓친 신자들에게 언제든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사이트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은영은 인프라넷을 통해 국가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예배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입술에 힘을 주고 목사의 말씀 하나하나 집중할 참이었다. 해은이 갑자기 불쑥 방에 들어왔다.

“깜짝이야! 해은아, 왜?”

“어? 아니야. 미안.”

간만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은영의 모습을 본 해은은 갑자기 어색해진 탓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완전히 잊었다. 팬히 눈을 둘 곳이 없던 해은은 잠시 빠르게 은영의 방을 스캔한 뒤 슬쩍 웃으며 은영에게 미안하다는 손짓을 하며 방에서 나가려 하였다. 은영은 웃으며 해은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잠시 방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해은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은영이 제때 예배 영상을 멈추었다.

“아, 아이스크림 먹을 건가 싶어서. 덥잖아.”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아직 팬찮아.”

은영은 간식이라도 먹는 것에는 일절 아끼는 체질이었다. 잠시 머릿속에 부드러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떠올랐지만, 그냥 해은에게 웃으며 화답해 주었다. 해은은 수줍게 웃으며 방문을 닫았다. 은영은 다시 예배에 집중하였다. 현관 쪽에서 해은이 요란스럽게 신발을 갈아 신더니 문을 부주의하게 강하게 닫고 나갔다.

은영은 방에서 조용하게 찬송가를 콧노래로 흥얼거렸다. 찬송가가 마무리될 무렵 해은이 아이스크림을 은영에게 건넸다. 은영이 생각했던 소프트아이스크림이었다. 은영은 아이스크림의 뚜껑을 열고 한 입 베어 먹으며 놓쳤던 영상을 뒤로 돌렸다.

해은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물었다.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떠먹여 줬으면 했었다. 요즘은 원 버튼만으로도 인공지능이 무언갈 해낼 수 있는 시대 아니던가. 하지만 해은에게 고작 벨리뿐이었다. 해은은 가만히 누워 어딘가에 있을 스마트한 집에서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다.

예배를 끝낸 은영은 에어컨 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 온몸이 시렸다. 은영은 에어컨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른손으로 아랫배를 어루만져보니 어느새 많이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은 이불을 뭉쳐 배를 덮었다. 은영은 갑자기 또 너무 더워져 에어컨을 틀까 했지만, 그냥 창문을 살짝 열어두기로 하였다. 밤비 내린 도시의 공기는 초여름이었어도 꽤 식어있었다. 은영은 따뜻해지는 배와 시원해지는 팔다리를 느끼며 오늘 밤 배부르게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기엔 딱 알맞은 온도가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있기로 하였다. 은영은 그렇게 잠들었다.

은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오전 5시였다. 은영은 억지로 다시 잠들어보려 했지만, 눈은 다시 감기지 않았다. 아랫배가 조금 아파지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일을 보고 거울 앞에 서니 은영은 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졌다. 바로 세안을 시작했다. 단, 너무 이른 시간인이라 물소리는 최대한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을 다루었다. 머리를 감았고 행여 머리에서 흐르는 물줄기조차 새어 나갈까 은영은 부드럽게 수건으로 머리를 다잡았다. 해은은 은영 방에서 들려오는 헤어드라이어 소리에 잠시 눈을 뜨긴 했지만, 방문 두 개를 건넌 위낙 작은 소리라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아직 5시 반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은영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안경을 썼다. 서랍 속에 있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막간에 처음부터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다. 잊었던,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과 자취들을 담은 손 글자들을 쓰다듬어보면서 과거를 음미해보았다. 그렇게 침대에 슬피 누워 하루를 보냈었다.

어느새 6시가 되었다. 은영의 기억으로는 이 시간 때에 레오나가 움직여서 집안일을 시작하였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했던 것 같았다.

단순히 어질러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옮기는 것을 했을 뿐인데도 오래간만에 안 쓴 근육을 쓰려하니 조금 당기는 것 같았다. 레오나는 이 시간에 빨래에 화장실 청소, 베란다 청소 등 아침에 큰 소음 없이 할 일들은 거의 다 봄준다. 은영은 그저 어질러진 것만 제자리에 올렸는데도 온몸에 땀이 배고 시간이 20분이 지나가는 중이다. 은영은 정리를 중지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은영은 냉장고에 놓여있는 달걀을 꺼내 프라이팬에 풀었다. 은영은 달걀노른자를 터뜨리면서 해은과 민혁의 아침 식사는 작은 토스트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해은이 그 사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잘 펴진 달걀 위에 빵을 얹었다. 하나씩 구워지는 빵들을 접시에 옮겨 담고 빵에 딸기잼을 발라 달걀을 한 장씩 더 켰다. 민혁은 딸기잼뿐만 아니라 해은은 느끼하다고 싫어하는 그 부드러운 버터도 조금 곁들여주었다.

“우리 엄마 요리했다. 대박.”

“여보야, 진짜 맛있네.”

“아침은 든든해야지. 맛은 괜찮아 여보?”

민혁은 대답을 생략하고 토스트를 한입에 다 먹어버렸다. 이후고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달걀 한장을 손으로 집고 적당히 잼을 바른 빵 한장을 구겨서 또 먹고 있었다. 은영은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민혁에게 지었다. 해은은 우유를 들이켠 후 입 주변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조엘을 부르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영은 휴지를 들고 해은을 쫓아갔다.

“해은아 양치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맞네.”

해은은 감미로운 토스트에 항상 챙기던 양치 시간도 잊었다.

해은과 민혁이 떠난 부엌 식탁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은영은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흘뿌리고 간 빵 부스러기들을 한데 모았다. 다시 식탁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행주로 식탁을 닦았다. 그렇게 깨끗이 닦고 보니 잊은 것이 있었다. 바로 은영 본인의 아침식사였다. 접시는 아예 비어있었고 우유도 거의 남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이 고작 3개밖에 남지 않았다. 은영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오늘 또 장을 보기로 생각했다. 계란 하나라면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금 비쌌지만, 시내까지의 버스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편의점 쪽이 더 싸다.

남은 달걀을 넓게 펴 빵을 적절히 눌러주었다. 달걀이 조금 입혀진 빵 두 개를 뒤집어 또 고르게 입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빵과 달걀을 같이 구웠고 적절히 익혀지자 접시에 옮겨 담고 샐과 버터를 발랐다. 은영은 자리를 옮겨 식탁에 앉아 천천히 토스트를 입으로 가져갔다. 거친 빵과 부드러운 버터 그리고 그 새로 나오는 버터의 기름기가 은영의 입을 가득 메운다. 민혁이 먹은 건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다.

은영은 먹는 것을 뒤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저 시내로 돈을 벌려 갔다. 오늘도 어김없이 밀려오는 미안한 마음에 은영은 더 창밖으로 눈을 돌 수가 없었다. 다시 몸을 돌려 남은 토스트를 먹기로 하였다. 그리고 은영은 계란을 다시 채워 넣기로 하였다.

집을 나서기 전 혹시 몰라 베란다와 민혁의 방을 가보니 은영이 굳이 손 댈 것이 없었다. 이것저것을 확인한 은영은 곧잘 방으로 돌아가 장바구니와 스마트핸드폰을 챙겼다. 그래도 무언가 걱정되는지 현관에서 다시 한번 더 집안을 둘러보았다. 편의점은 바로 집 앞이다.

아파트에서 나섰을 때 마른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조금 트인 곳으로 가니 그 바람을 맞았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스마트핸드폰이 요란을 떨기 시작한다. 은영은 걸음을 멈추고 스마트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7시 13분경 모래폭풍 발생!’

긴급문자였다. 모래폭풍이 곧바로 은영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영은 그냥 달걀을 사기로 하였다. 폭풍이 한 번 발생하면 언제 겉힐지도 모를 노릇이거니와, 은영의 계산으로는 그래도 달걀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은영의 확신 없는 계산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점점 강해지는 마른 바람에 걸음은 어느새 뛰는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빠르고 절도 있게 무인 결제기에 달걀을 올려놓고 결제 패널에 스마트핸드폰을 가져다 댔다. 벌써 창밖은 맨눈으로도 조금씩 그 먼지폭풍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째 오늘따라 유독 결제가 더디게 되는 것 같았다. 결제되었다는 인공지능 음성이 결제기에서 흘러나오자마자 은영은 달걀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고 곧바로 집으로 내달렸다.

모래폭풍이 들이닥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황색과 검은색이 섞인 잿빛 하늘로 뒤덮였고 시계가 극도로 나빠졌다. 은영은 장바구니를 들지 않은 손으로 허공을 허우적대며 아파트 현관문이 잡히길 기도하였다.

어느새 아파트 문은 폭풍으로 인해 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황이었다. 은영은 스마트핸드폰을 통해 자신이 이 아파트 주민인 것을 문에게 알려주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와중에도 그 사이로 모래는 아파트 내부로 밀려 들어왔다. 겨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 은영은 모래폭풍 내에서 사망한 이들이 어떠한 것을 겪었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힘없이 현관문을 닫은 은영은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영은 거칠게 기침을 내뱉었다. 그거 조금 마셨다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다.

다시 일어나 머리부터 탈탈 털기 시작하였고 신발을 천천히 벗었다. 모래가 묻은 달걀 포

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선 화장실로 향해 샤워를 시작하였다.

은영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청소기를 돌렸고 달걀을 하나씩 꺼내어 맑은 물에 씻어내었다. 한숨 돌린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발생한 이번 폭풍은 시내는커녕 바로 앞에 보였던 가로수까지 집어삼키는 폭풍이었다. 은영은 베란다에 선 채로 손톱을 물며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단면을 보고 있다가 해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통화 연결음만큼 은영의 걱정은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어디니? 팬찮니?”

“여기 학관데. 팬찮지 당연히.”

“벌써 학교라고?”

“어, 수업 준비 중.”

“아, 그래. 준비 잘하고. 해은아, 거기도 혹시 미세먼지 폭풍 가지 않았니?”

“응? …… 아~ 팬찮아. 학교잖아. 엄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으라고.”

“응~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고.”

해은은 전화를 끊으면서 슬쩍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이중슬롯에 관한 글을 보았다. 어떻게든 떠나버린 대현을 잊기 위해선 뭐라도 봐야만 했었다. 하지만 역시 아무리 봐도 실험 자체가 그냥 문 여닫는 것처럼 생기긴 했다. 저번에 ‘불확정성원리’가 나왔기에 배운 것을 한 번 복습해볼까 하여 들여다보았지만, 그저 들여다보는 걸로 끝났다.

“오늘 이중슬롯은 꽤 어려울 텐데 질문 있는 사람 없니?”

해은은 질문하기에 앞서 질문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입이 당최 열리지 않았다. 정말 말 그대로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터라 무엇이 본인이 궁금한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사이 왼쪽 구석에 있던 수아가 손을 들었다.

“도끼가 나무를 찍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도끼를 삼키는 거 같아요.”

예서의 기가 찬 웃음이 교실을 울렸다. 수아는 예서 쪽을 한 번 돌아보려다 말았다. 선생님은 웃으며 수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였다.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잖아요. 5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없고. 4차원 공간까지만 이해하면 우주의 질서, 자연현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5차원 이상의 물질은 결정될 수 없으니까요. 한 입자가 다른 공간에 공존하는 일종의 공간 전이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흠, 우리 수아는 이중슬럿을 하나의 4차원적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네! 이런 공간 왜곡을 다루면 웹홀도 만들겠죠? 빛도 통과가 가능한.”

“선생님도 이런 수업 외적인 질문은 꽤 낯서네?”

“불확실성은…… 인간 삶에만 적용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삶은 공학이 아니니까요. 도움을 줄 뿐이지. 그리고 언제나 오차율이란 것도 있고요.”

“그래, 그럼 내가 관련 자료 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줘도 팬찮을까?”

“네, 좋아요. 아,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무시하셔도 팬찮아요. …… 바쁘시면…….”

해은은 둘이 알아서 잘 떠드는 와중에 대현의 빈자리 너머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저 먼 도시에는 폭풍이 지나가는 중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뿐만 공기에 아주 위쪽에 하늘은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정우와 수아는 동시에 교실 문을 나갔다. 해은은 명하니 대현의 빈자

리를 보고 있었다. 민애가 해은의 등짝을 쳤다. 해은은 아무 말도 못 한 채 몸을 비비 꼬았다.

“헤이, MISS HEA EN? 우리랑 밥 드쉴?”

예서가 맑아진 하늘과 해은의 움직이지도 않는 뒤통수를 보며 떠올린 생각이었다. 예서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도록 눈썹을 치켜올렸다.

“야, 닥쳐.”

앞에 앉아있던 민애가 예서에게 쏘아붙였다. 곧바로 일어서더니 해은 오른팔을 잡고 끌어당겨 일으켰다. 민애는 곧바로 뒷문으로 해은을 끌고 나가버렸다.

“야, 민애. 같이 가.”

“뭐? 민애?”

“민애 언……. 아! 아파. 빨리 가자. 아아!”

예서는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듯 손가락 세 개를 펴보았지만 민애는 그 세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민애는 나머지 손으로 예서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꺾게 하였다.

“진짜 조만간 너 내가 조진다.”

“미안미안. 잘못했어. 우리 그나저나 뭐 먹을래?”

“햄버거 먹자. 해은이는?”

“난 괜찮지. 그런데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건데. 왜 맨날 나가서 먹는 거야?”

“응? 그냥. 솔직히…….”

“야야, 민예서 나가서 얘기해. 아직 학교 안이야.”

민애는 곧 한 대 칠 기세로 손을 거칠게 들었다. 예서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민애 손으로 결눈질을 하면서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며,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민애의 공격을 피했다.

“해은이는 내가 오늘 특별히 사줄게. 너, 끌려 나오는 거잖아. 그치?”

“참나. 너희 막, 되게 비싼 거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설마, 내 생각 해주는 거야?”

민애는 해은을 슬쩍 보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민애는 잠시 예서를 부여잡고 접힌 신발을 고쳐 신었다. 셋은 학교를 나왔다.

“해은 언냐. ‘시성비’라고 알아,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 언냐가 뭔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먹으려면 적어도 여기서 못 먹잖아? 그럼 시간을 써야겠네? 그러긴 싫거든? 그래서 그냥 가까운데 먹는 거야.”

“그래? 시성비라고? 좋은 말이네.”

“그리구 나와서 먹는 이유는 분위기는 있어야 소화가 잘되더라고. 민애 언냐도 그래.”

“너는…….”

민애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마침 신호가 풀려 그냥 민애는 하려던 말을 묻어버렸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셋은 메뉴를 고르려고 하였다. 하지만 좀처럼 정하지 못하는 해은과 예서를 보고 민애는 그냥 불고기 버거 세트 3개를 주문하였다.

“아, 아니요. 하나 취소해 주시고 저, 치킨버거 세트로요.”

“해은이는?”

“난, 난 그냥 먹을게. 고마워. 잘 먹을게.”

해은이 알고 보니 모두 민애가 사는 것이었다. 민애는 핸드폰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였다. 해은은 난생처음 보는 검은색 카드였다.

“민애야, 설마 이게 그 ‘블랙 카드’라는 거야?”

“아니. 그냥 이건 검은색 디자인인 거야. 뭐, 그런 급은 아니야. 애초에 나이도 안 되잖아.”

“그래도 카드를 쓰네. 폰이 편하지 않아?”

“어, 맞어. 체크카드거든. 돈을 쓴다는 걸 몸이 익히는 거지, 일종에. 엄마는 현금 쓰라는데 나는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타협 본 게 카드야. 체크카드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더라고.”

매장 창문 쪽에 자리를 앉은 셋이었다. 해은은 앉자마자 학교 쪽을 보았다. 민애와 예서도 말없이 해은을 따라보았다. 조금 여유가 되자 해은은 오늘 아침 일이 생각났다.

“대현이 때문에 그러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야 해, 해은아.”

“…… 그냥. 마음이 그러네. 일단, 보내긴 했어.”

“오, 잘했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래.”

예서는 오른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해은은 꽤나 뜻을 들였다. 그저 대현이에 대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그…… 현석이 때문에. 서현석. 뭔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왼쪽 뒤쪽에 있잖아. 항상 늘 왼쪽이 꽤나 찹찹하단 말이야.”

“오~ 뭔 일이래? 관심 있는 거야?”

“야, 민예서 닥쳐봐. 나도 개 존나 거슬리거든 사실. 개 지금 교실에 혼자 있을 거 아니야. 뭐 할 거 같아?”

민애는 정확했다. 해은의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주었다.

고1짜리 서현석은 제일 뒷자리에 있는 주제에 딴짓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 어제는 뜬금포로 쪽지 시험 1등을 거머쥐었다. 한 번도 대화를 나눌 생각 자체를 하고 싶다는 가진 적이 없던 터라 반에서 유일하게 가장 적은 정보를 가졌다.

심지어 벨리도 없는 아이였다. 그래서 더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 하였다. 벨리 없이 1등을 한다는 것은 벨리를 가진 입장에서는 일종에 약간 선을 넘는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어제 일로 인해 현석이 다른 의미로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 사이 햄버거가 나와서 바깥쪽에 앉아있던 해은이 햄버거를 가지려 갔었다. 예서는 저 먼 하늘을 흘겨보더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민애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예서가 감자튀김 하나를 입에 넣으면서 말을 꺼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소름 끼친다.”

“뭐가.”

“내가 좀 둔해요. 난 이제야 소름이 끼치네.”

“아무리 그래도 ‘소름이 끼친다.’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야, 장해은. 너 서현석 조사는 해봤어? 우린 다 해봤거든. 우리 반 교실 애들. 선생님까지. 개 기생이야 기생.”

기초생활수급자. 대다수는 보통 ‘기수자’라는 표현을 쓴다. 예서가 표현한 ‘기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큰 범죄나 사회악을 일으켰을 때 쓰는 단어다. 하지만 해은 생각에는 적어도 현석이 학교 내에서 기생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민애에게 기생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걔 뭐 학교 밖에서 병신 짓이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좀 말을 많이 안 해보긴 했지만.”

“다사랑복지센터. 우리 해은이가 이걸 모르진 않겠지? 회원이야, 서현석.”

‘다사랑복지센터’는 기수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시작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반정부단체로 노선을 바꾼 단체 중 하나였다. 최근 동향은 집회 내용이 너무 사회에 공격적이라 회원이었던 기수자들도 탈퇴하고 다른 단체를 알아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꺼리는 곳이다.

“이 언니 표정 봐봐. 전혀 모르는 거 같지? 아무것도.”

“증거는 있는 거야? 사람 그렇게 함부로 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턱대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왜 요즘 현대인들의 흔한 범죄행위를 보면 진정 악의적 행위보다 무지(無知)한 행위도 있잖아?”

“어, 좋은 자세야.”

“거기서 더 조사하면 우리가 위험한 거거든. 우리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아본 거야. 이건 그리고 인정 해야 해. 정황상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 교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혼자서. 혼. 자. 서.”

“근데 사실 그것도 알아야 해. 대현이랑 수아도 기수자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민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햄버거를 먹으며 예서의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어쩌면 대현의 전학은 이미 이 둘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정된 일이었다. 정부에서 돈을 받긴 하지만 마땅한 주거 구역이 없는 곳을 복지센터가 마련해 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대현이 가입한 복지센터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센터 측에서 사업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 시킨 것이다.

해은은 민애가 이렇게 자신을 학교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해은은 일단 이 햄버거가 맛이 없어졌다. 민애는 식어가는 해은의 햄버거를 보았다. 민애가입을 열었다.

“우린 궁금했을 뿐이야. 조사해보려고. 이제 네 차례야.”

“…….”

“언니, 괜찮아? 무슨 문제 있어?”

“야, 너네들. 대현이부터 제대로 얘기해줘 봐. 같은 반 친구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였구나. 미안해. 맞아, 대현이부터 얘기해줄게.”

“DEAL!”

“대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것도 한참 전에. 그리고 엄마는 집을 도망 나간 상태고.”

“그 말은…….”

“고아야. 대현 오빠. 전적으로 복지센터에 모든 걸 기대고 있는 상태야. 아, 다사랑은 아니야. 여튼 그런데 복지센터가 갑자기 돌연 터전을 옮기겠다고 통보하니까 대현 오빠, 별수 있겠어?”

“왜 옮기는데?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말이야.”

“아마,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 거겠지.”

“그 말은 우리가…….”

“‘우리’가 대현 오빠를, 보내는 거지. GOOD BYE, SAYONARA, CHAI CHIEN. 그런데 대현 오빠는 언니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려고 한 것 같…….”

해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애는 차마 그 눈을 더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가 팬스 래 매장 안을 보았다.

예서는 해은의 눈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해은은 결려있던 눈물을 직접 손으로 훑어내고 다시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 결과가 늘 답이란 것은 아닌 거겠지. 실은 난 다른 이들이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대신 너무 공감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조금 내보는 거고. 그것도 근데 장담 못

해. 난 해당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하지만 그런 건 그냥 말뿐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역시 대현이를 잊어보는 거겠지.”

예서와 민애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해은을 앞에 두고 잠시 고민에 빠졌다. 예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란 사람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네.”

“맞아, 햄버거 같이 먹어야지. …… 안 그래, 예나(Ye-na)?”

“잠깐잠깐. 야! 홍민애! 거기까진…….”

예서가 깜짝 놀라며 눈이 커졌다. 해은은 처음에 민애가 예서를 보고 잘못 말한 줄 알았다. 눈치를 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았다.

“딱 반에서 중간에 앉은 녀석. 사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기도 아닌 진짜 딱, 진짜 어중간한 녀석. 예나, 너도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기보단, 흥미롭다고 해야 할까나. 암튼 그래 난.”

민애 옆에 잠자코 따라다녔던 벨리가 대답하였다. 이제야 해은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었다.

“홍민애, 너 지금…….”

“하나(Ha-na)야. 우리도…… 별수 없다. 출격해라.”

“질러 그냥.”

“뭐 해? 설마 내가 사는 건데 안 먹는 거야, 해은아?”

“어……. 아! 맛있네.”

“…….”

해은은 시큰거리는 눈을 깜빡거리며 햄버거를 한입 베어먹었다. 그리고 예서와 민애를 한번씩 쳐다보았다. 마치 해은은 이 둘 앞에서 딱 실오라기 한 장만 가린 채 서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해은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발가벗기로 하였다.

“조엘이야. 됐느냐?”

“조엘? ‘조엘’이라고?”

민애와 예서는 매장이 떠나가도록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이런 비웃음이 예상되긴 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남은 햄버거를 베어 물고 감자를 집어 먹었다. 그나저나 이렇게까지 격하게 웃어버릴 줄은 몰랐다.

진정되기 시작한 민애와 예서는 눈가를 슬며시 닦고 숨을 골랐다. 예서는 아직도 남은 웃음을 민애 어깨를 툭 치며 해소했다. 민애도 인정한다는 표정이었다.

“야, 근데. 조엘이라는 놈 되게 조용한 편이네. 넌 뭐 할 말 없어?”

“어…… 흄. 시끄러워.”

이번에는 조엘의 말에 가만히 햄버거를 베어 먹고 있던 해은도 웃음이 나왔다. 민애와 예서는 또다시 매장이 떠나가도록 웃기 시작했다.

이내 배가 고파진 둘은 다시 햄버거를 물었다.

“근데 언니 요즘 뭐해? 언니 맨날 ‘야한 소설’ 쓰잖아. 아니야? 언니 야설 쓰는 거 학교에서 다 아는데.”

“요즘 흥미 있는 부분이 ‘아리랑’이야. 왜냐면 아리랑이 진짜 K-POP 아니겠어? 내용으로는 아리와 스리가 있는데, 마을에서 팔방미인을 상징해. 각각 아리는 미녀, 스리는 미남.”

“아리와 스리? 미남미녀……. 잠깐만? 아리는 언니고 뭐 스리는……. 하, 참나. 그딴 걸 쓰고 있었어? 언니, 지금 자랑하는 거야?”

해은은 눈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예서를 지긋이 보면서 햄버거를 먹었다.

“해은아, 조만간 내가 너도 조져야겠다. 얘가 이렇게 나오네, 참.”

“은니야, 아주 자알 해봐잉. 아리랑인지 강강술래인지 아주 그냥 야설 자알 써 봐. 내가 다 돌려줄게. 언냐? 가보쟈. 가 봐.”

“야설 절대 아니라니까. 어? 시간 됐다. 우리 가야 할 듯? 다 먹었어?”

“우리 해은이 솔직하게 말해 보자. 수습 안 돼서 그냥 급 마무리하려는 거지?”

“다들 조용히 해.”

그 사이 조엘이 다가와 흥분한 해은의 옆구리를 찌른다. 마음을 가다듬은 해은이 조엘을 보았다. 조엘은 창밖을 가리켰다. 해은의 입이 점점 느려졌다. 해은이 점점 얼어붙는 모습에 예서와 민애는 웃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해은을 따라 창밖을 천천히 보았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아, 썩을. 망했다.”

예서는 짧게 말을 내뱉은 뒤 얼마 남지 않은 햄버거를 입 안으로 쑤셔 넣었다. 창밖은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예서와 민애 그리고 해은은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해은은 아침처럼 또 달릴 생각을 하니 아직 입 안에 남은 햄버거 때문에 달릴 수 없을 것 같았다. 해은은 출발하기 직전 다시 돌아와 콜라를 들이켰다. 아직 남아있는 강한 탄산이 머리를 찔렀지만, 그냥 무시하고 달렸다. 조엘이 너무 느린 것 같아 아예 그냥 안고 내달렸다.

“날씨 왜 이러냐. 이것도 미친 짓이야!”

“아니! 미친 날씨라고 완전!”

“야, 민예서. 넌 닥치라고!”

창밖에 있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바람 속에 자그마한 검은 가루들이 보였다. 곧 황색과 검은색의 짙은 먼지가 창밖을 가득 메웠지만 셋은 벌써 학교에 도착한 것 같았다.

해은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유심히 보고 있다. 다행히 눈으로 보이는 모래들은 없었다. 해은은 머리를 더 자세히 보기로 하였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찜찜한 것이 있었다. 해은은 머리에 실오라기보다 더 작은 무언가 발견하고는 손을 대 보았다. 해은은 떡 진 머리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손가락을 머리에서 떼긴 했지만, 머리가 완전히 형틀어지고 말았다. 해은은 한숨을 쉬고 그냥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해은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화장실을 나가다 민애와 예서와 마주쳤다. 민애 손에는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있었다. 민애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으려 했다만 해은과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해은에게 더 보여주었다. 해은은 입고리가 슬슬 올라가는 민애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예서가 코웃음을 슬쩍 내고 둘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반대편에서 수아를 볼 수 있었다. 앞자리에 있는 수아는 꼭 앞문을 이용하는 것 같다. 그렇게 눈을 둘 때가 마땅히 없던 수아와 해은은 각각 교실 앞문과 뒷문 다다랐다. 수아는 본체도 안 하며 교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은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현석이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해은은 서둘러 오른쪽으로 비켜주었지만, 현석도 같은 쪽으로 길을 비키는 바람에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해은은 다시 왼쪽으로 비켜주려던 찰나였다.

“해은 누나,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석이 나지막하게 해은에게 말을 걸었다. 해은은 평소 같으면 현석이의 말을 들어주었겠지만 아무래도 민애와 예서의 점심 때 대화가 아직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나머지 현석이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겁이 났다.

“어? 아, 알았어, 잠깐만.”

해은은 남은 시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팬스레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아직 10분 정도가 남긴 했지만 해은이 더 원했던 것은 제발 그 10분이 더 빠르게 지나가길 바랐던 것이다.

수아는 뒷문 앞에서 현석이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해은이를 돌아보고 있다가 결국 어디론가 따라가는 모습에 몸을 일으켰다. 수아는 해은이를 몰래 따라가 보려 앞문으로 나갔다.

정우는 교실에 혼자 남아 CPU 스케줄링을 복습하기 위해 평균 대기시간 예제를 푸는 중이었다. 그리고 교실에 기류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흥미가 없다지만 수업 시간이 10분도 채 안 남았는데 교실에 한 명도 앉아있는 모습은 정우 기억으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석은 멀리 갈 생각은 없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중간에서 멈춘 현석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뒤돌아보았다. 사람은커녕 발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다. 해은은 인상이 찌그러지다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인상이 다시 펴졌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누나 저 그게.....”

“현석아, 팬찮으면 좀 이따 청소 시간 끝나고 얘기할래? 지금은 쉬는 시간도 얼마 없잖아. 어때?”

“네? 아니..... 저 그게.....”

“해은 언니, 시간 돼요? 물어볼 거 있어서요.”

계단 아래서 수아가 말을 걸었다. 해은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수아를 보았다.

“좀 급해요. 안 되나요?”

“현석아, 가 봐도 되니?”

“.....”

수아는 해은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교실로 향했다. 해은은 발을 맞춰 걷기는커녕 수아를 붙잡지도 못했다. 결국 해은은 어떻게든 멈춰 세워 보기로 하였다.

“수아야,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 몸을 돌리지도 않고 고개를 슬쩍 뒤쪽으로 돌렸다. 수아의 앞머리가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수아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교실로 향했다. 해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 콧방귀를 끼었다. 도대체 오늘 애들이 왜 이러는지 도통 알 도리가 없었다.

해은은 수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뒷자리에 있는 현석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 꽤 마음에 걸렸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해은은 수아까지 생각하려니 도통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현석이가 들어왔다. 현석이가 자리로 가는 동안 해은은 등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현석이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고 앉는 소리가 났음에도 해은은 이제 현석쪽을 볼 수가 없었다. 해은은 대현에 자리였던 곳을 지나 창문으로 갔다.

“해은, 무슨 일이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창문 좀 열까요? 보니까 폭풍도 이제 없네요.”

“어, 그러자. 애들아, 환기 좀 하자. 에어컨 끄고. 해은이 말대로 공기가 좀 탁하긴 하네.”

“아니, 그래도 아직 먼지……. 공기청정…….”

수아의 말을 일절 무시한 해은은 창문을 열 때 바로 옆에 현석에게서 익숙한 비누 향이 풍기는 걸 보아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꽤 비릿한 냄새가 났었다. 해은은 각오하고 현석이 쪽을 보았다. 현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을 보고 있었다. 과연 정말 책을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은이가 보기에는 현석의 머리는 현재 해은의 푸석한 머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뛰어 진 상태였다. 정말 오랫동안 감지 않은 것 같았다.

제자리로 돌아온 해은은 팬스레 교복 치마를 최대한 아래로 당겨 고쳐 앉았다. 해은은 그제야 점심에 예서가 했던 ‘소름끼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청소 시간이 끝나고 해은은 현석에게 손짓했다. 현석은 밝은 표정으로 해은과 같이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운동장이 다 보이는 그늘에 앉았다. 현석이 해은을 위해 음료수 하나를 사왔다. 청소 시간은 청소만 빨리 끝낸다면 어느 정도 산책할 시간 여유가 된다.

“네 꺼는 왜 안 사와. …… 됐어. 누나가 사줄게.”

“아, 아니. …… 감사합니다.”

현석은 받자마자 벌컥벌컥 음료를 들이켰다. 해은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앉았던 그늘진 자리로 향했다.

“현석이는 누나 왜 불렀어?”

“아……. 누나, 너무 예, 예쁜 것 같아서요.”

“우리 현석이 문제점 알 것 같다. 고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누나 먼저 질문해도 될까?”

“네 괜찮아요.”

“현석이 코딩 공부 잘되니? 요번에 1등 했잖아. 누나 솔직히 놀랐어. 누나도 코딩 공부 좀 해봤거든. 어렵던데, 어떻게 잘하게 된 비결이라도 있어?”

“글쎄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해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어……. 그러니까. 아! 누나 노트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은은 늘 들고 다니던 태블릿의 빈 곳을 선뜻 현석에게 내어주었다. 현석은 해은에게 한번 웃음을 보여준 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C:WUsersWHyunSuckWHyunDriveWPicturesW해은누나사진’

“이게 뭐야? 컴퓨터랑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은 신경망이라고 생각해요. ‘W’을 시냅스라고 보고 중간에 있는 폴더들을 뉴런이라고 보는 거죠.”

“으, 시냅스랑 뉴런이라고? 저번 시간에 본 건데 누나는 복잡해서 싫더라. 이걸 근데 왜.”

“‘공감 공학(Sympathy Engineering)’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리는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미리 학습하여 ‘확인(Check)’하는 거죠.”

해은은 잠시 현석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아니, 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들으면서 고민하였다. 어쩌면 현석에게 느껴지던 그 소름 끼치던 감정, 다가가기 싫었던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감하는 로봇을 소울 메이트(Soul Mate)가 아닌 체크 메이트(Chess Mate)라고 부르거든요. 병렬로 된 공감대를 목적과 방향성을 확인(Check)한 후…….”

“미안한데 잠깐만, 현석아. 언니 얘기 먼저 할게. 우리 현석이 혹시 ‘공감’이란 것에 관심이 많니? 혹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의도 같은 걸 전혀 모르는 거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

고?”

“…….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전혀 문제없는데? 언니도 그런 거 많이 겪는데? 원래 공감이란 게 제일 어렵잖아.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도 솔직히 피곤하고. 머리 써야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난 소설을 쓰는 편이야. 현석이는 뭐 좋아하는 거 없니?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해은이는 고개를 돌려 현석을 보았다. 현석은 해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재빠르게 운동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누나랑 얘기해보니까 알겠어요. 코딩과 소설은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전 코딩 좋아해요.”

“그래, 이 누나는 우리 현석이 어떻게 코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냈으면 어떨까 싶어. 현석이가 왜 공감 공학을 떠올렸을까? 어쩌면 공감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싶은 거고. 솔직히 현석이 누나 좋아하지? 근데 그 예쁘다는 거 빼고 좋아하는 게 뭐야?”

“네? 아, …… 생각 안 해봤어요.”

“누나는 현석이가 조금 더 많은 걸 봤으면 해. 물론, 누나가 현석이를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누나는 보이거든 누나보다 훨씬 현석이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나도 염치가 있지 그걸 보고 어떻게 무시하겠니. 현석아,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흠, 이걸 일종의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 찾아봐 한번. 말은 못 해줄 거 같아. 왜냐면 이 언니도 틀릴 수 있잖니.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경험이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해은은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 버렸다. 현석은 아직 남아있는 캔을 가지고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음료가 들어있는 채로 운동장에 내던져버렸다.

해은은 교실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앉았다. 현석은 잠시 교문 앞에서 멈췄다가 잠시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가 대뜸 일어나 교실을 나갔다. 수아가 화장실로 가는 현석의 어깨를 쳤다.

“야, 왜 이리 늦었어. 그, 그, 아, 아까 선생님께서 물었어. 너 청소 그…… 잘 안됐다고. 웬찮아, 내가 대신했어.”

“고마워. 해은 누나랑 얘기 좀 했어.”

“무슨 얘기!”

“그냥 뭐 코딩 잘 쓰는 거 부럽다. 나도 소설 잘 쓰고 싶다.”

“……. 그게 다야?”

“아…… 몰라. 그런데 수아야, 나 오줌 싸고 싶은데.”

“어? 어.”

불쑥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현석을 보고는 수아는 잠시 남자 화장실 앞에서 얼어버렸다. 눈을 몇 번 깜빡였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수아는 금방 정신을 차린 채 다시 교실로 향했다.

“오늘 청소가 잘 돼서 오후 수업은 이제 하교하도록 하자. 집에 들어가서 꼭 씻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니?”

예서가 손을 들었다. 민애가 눈을 부라린 채 예서 쪽을 보려 하였다.

“일찍 끝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아닌 거 같은데.”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됐잖니. 비가 한 번 오긴 했지만, 대기질이 영 안 좋은 것 같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꼭 씻도록 해라.”

교실은 ‘네.’ 소리로 합창을 이루었다. 하지만 예서는 이 낯선 학교 시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민혁은 자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 다정히 양갈비를 뜯고 있는 해은과 은영이 보였다. 민혁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은의 얼굴을 쓰다듬어보았다. 민혁은 늘 이런 비슷한 자리가 시작되기 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편이다. 그리고 드디어 김인아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민혁은 손수 일어서서 인아를 맞았다.

“인아 씨, 잘 지냈어요?”

“팀장님 휴가 중이신데 죄송해요. 귀한 시간 감사드려요.”

“괜찮아요. 어떤 것 드시고 싶으세요?”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고것만요.”

“알겠어요.”

민혁은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순식간에 주문하였다. 인아는 그사이 갑자기 성경을 꺼냈다. 민혁은 인아의 묵직한 성경을 보고는 숨을 깊게 들이셨다.

“선배님께서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언제나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드려요.”

잠시 후, 점원이 아메리카노 두 잔을 가져왔다. 민혁은 잠시 허리를 펴고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들이켰다. 인아는 민혁의 움직이는 목젖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내렸다.

“사실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물음이 커요. 신뢰해야 하는 문서인지부터 해서 말이죠.”

“주님의 은사 아래…….”

“저는 인아 씨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사내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 혹은 심지어 같은 성도여도 사내에서만큼은 업무에 총집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배려, 좀 부탁드릴까 하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배려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기억났네요. 팔 괜찮으신가요? 곧 점검 기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팀장님…….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민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인아의 팔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인아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쩌면 못난 이 팔 하나 때문에 읽히지도 않은 이 벽돌 같은 책 하나에 계속 소중한 시간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들이붓는 기분이었다.

감정을 추스른 인아는 다시 한번 오른팔을 주물렀다. 아무래도 살과의 접합지점이 조금 불편한 것 같다.

“그, 최신이라고 두뇌연산조작(Brain-Computer Interface) 시스템이긴 한데, 요즘 많이 빽빽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테스트로 직선과 원을 그려보곤 하는데 확실히 점검받을 시기인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정말 연습이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솔직히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복잡하시군요. 집중이 안 되겠네요.”

“이런 말 꺼내면 괜히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속상했거든요.”

“힘드시면 재량껏 휴가 드릴 수도 있어요. 흠, 사내에 3D프린터부서에 다운그레이드 미리 말해둘게요. 데이터보험 쪽이랑도 컨택 돼 있으니 아마 복원지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인아 씨가 회복돼서 이전 밝은 모습으로 그림 계속 이어서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 저, 팀장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실까요?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게요.”

인아와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혁의 잔은 다 비어있었다. 하지만 인아의 잔이 남아 있었다. 인아는 몸이 불편해서 커피가 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남은 커피를 모두 버렸다. 그렇게 다시 발걸음으로 향할 찰나였다.

“저, 민혁 팀장님!”

“네, 무슨 일이시죠?”

“저…….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슬빛교회(Light in Dew Church)’예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민혁은 손짓을 한 번 한 뒤 무인 버스를 타는 인아를 보았다. 민혁은 가게를 돌아 차를 타고 은영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다이어리를 덮은 은영은 안경을 벗고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창밖을 보았다. 이놈의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방이 서늘한 것 같아 에어컨을 켰다. 은영은 어지러워진 머리를 식히려 침대에 누웠다. 아랫배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따뜻해지는 배를 느끼며 점점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알았다. 은영은 눈을 천천히 떴다. 얇은 이불을 들어 몸을 그 속으로 넣었다. 잠시만 은영은 모래폭풍을 뒤로하고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은영 방의 시계가 벌써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이 잤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은영은 헐레벌떡 일어났다. 날카롭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은영은 한 손으로 머리를 댔다. 은영은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한 것이 느껴졌다. 은영은 씻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기 전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영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혹 그림자라도 새어 나갈까 조심스럽게 부엌 쪽을 천천히 고개를 내어 보았다. 민혁이 맨 식빵 위에 프라이를 얹어 먹으면서 냉장고 안에 우유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에이, 뭐야 당신이었어? 오늘 목요일이잖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벨리 버그가 맞데. 공식 서류 받았고, 회사에서 오늘 반차 받았어. 폭풍 지나갈 때까지 밖에서 밥을 먹긴 했는데 또 출출해지길 해서.”

은영은 갑자기 핸드폰을 보면서 어설픈 토스트를 먹는 민혁이 멋있어 보였다. 은영은 몸에 찌릿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 해은이 오려면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은영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오래간만에 얻은 반차를 받고도 모래폭풍을 기다리면서 까지 민혁은 집을 선택하였다.

“자기, 방금 혼자 너무 나간 거 알지?”

“그러게, 누가 내 엉덩이 만지래?”

민혁은 토스트를 입에 옥여넣고 우유를 들이켰다. 은영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민혁은 입 안에 남은 것을 다 넘기고 은영을 바라보며 슬며시 웃었다.

“잠깐잠깐, 오빠 안 씻어?”

민혁은 은영을 안고 은영의 방으로 향했다. 은영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가벼운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였다. 민혁이 힘을 줄 때마다 은영은 계속해서 짜릿한 고품을 질렀다. 은영과 민혁이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집 안은 은영 방에서 새어 나오는 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 안이 온통 은영의 노래로 물들어 갔다.

한편, 그 시각 하교를 하는 해은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지를 텔었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에도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터는 것은 은연중에 습관이 되어버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해은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도어락에 핸드폰을 갖다 대며 잠금을 해제하였다. 도어락은 지문으로도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잘 다녀왔…….”

집안은 은영의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해은은 신발장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해은은 눈을 내려 민혁의 신발을 발견하였다. 신발만 보았을 뿐인데 당초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집 안에서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야, 누구 온 거 아니야?’

‘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짧은 순간, 해은은 그냥 다시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다. 다행히 엘리베이터는 내린 층에 멈추어 있었다. 은영이 방에서 나오는 동안 현관문은 다시 닫혔고 해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내려갔다.

속옷은 입지도 않은 채 파자마만 걸치고 거실로 나온 은영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현관문까지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는데?”

“그랬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오빠도 민감해진 거 아니야? 우리 좀 쉴까? 쉬자. 잠깐만.”

은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은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

‘우리 딸 수업 중이니?’

‘○○’

‘그래 열심히 하렴 파이팅’

‘;□;’

“해은이는 아닌 거 같은데?”

해은은 수업 중이면 늘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곤 하였다. 은영이 부엌으로 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거실 소파로 가던 중이었다. 민혁이 다시 은영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몸을 끌어안았다. 은영은 다시 민혁에게 몸을 맡겼다.

해은은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와 터벅터벅 걸었다.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아파 눈을 있는 힘껏 감았다. 눈 안 어딘가 세포 하나가 터진 것 같다. 해은은 눈만 감았을 뿐인데 이러한 느낌은 불길했다. 안 그래도 연일 계속 미세먼지를 들이켰던 터라 그냥 병원을 찾기로 하였다. 해은은 안과 쪽으로 방향을 옮겼다. 처음에는 시내 쪽으로 나갈까 하였지만 저 려 오는 무릎에 또다시 버스를 타기가 버거워 그냥 동네 앞 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접수를 마친 해은은 뒤돌아보니 아이들과 엄마뻸 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보였다. 구석에는 고령의 환자도 꽤 있었다. 해은은 그 사이에 겨우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예상 대기시간을 보니 무려 1시간이었다.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졌다지만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미치

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였다. 마스크를 끼고, 지하로만 이동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려 루트를 짜고, 차량에서 차량으로만 옮겨 다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어도 도시 전반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었다. 결국, 미세먼지로 인해 이런저런 환자가 더 늘어버렸다. 그래서 해은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냥 눈을 붙이기로 하였다.

간호사가 해은을 깨웠다. 보통 병원에서도 벨리가 접수나 기타 사무업무를 보고 간호사는 인간이 직접 업무를 맡는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는 최고 품질의 인공지능 로봇이 간호를 보긴 하지만 이처럼 해은이 찾은 대도시 변두리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간호는 인간이 맡는다. 해은은 일어서기 위해 배에 힘을 주다가 헛기침이 나왔다.

해은은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에 앉았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해은으로 몸을 돌렸다.

“학생이네? 교복 보니까 미리내고인가 봐?”

“네, 맞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보자.”

해은은 자초지종 머리가 땅하고, 집중이 안 되며, 입맛이 없으며, 헛기침까지 나오는 등 최대한 아픈 것 같은 애매한 이야기까지 죽죽 늘어놓았다. 의사는 해은이 한참 동안 횡설수설하는 말에서 핵심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그냥 해은의 말을 적당히 끊고 해은의 눈을 확인해 보았다. 해은의 눈이 시뻘건 채로 있었기에 최대한 꼼꼼히 보았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네. 최근에 무리한 적이 있나 봐. 요전에 비가 내렸는데 사실, 그 비에 미세먼지 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거…… 온 가족이 시원하게 맞았는데요.”

“저런. 최대한 구석구석 씻어내라 하시고 그런 게 이제 사람 신경에도 영향을 줘요. 학생도 최대한 조심하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에어컨은 피해요.”

진료를 마친 해은은 다시 의사에 펴질러졌다. 곧 해은의 처방전이 나왔고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병원 내 벨리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해은은 처방전을 조엘에게 넘겨주었다. 정확히는 벨리끼리 어떤 손 같은 것이 특 튀어나오더니 그 두 개가 연결된 다음 잠시 후, 조엘이 잘 넘겨받았다고 한다.

해은은 그 길로 약국으로 갔다. 약국에서 약을 받은 해은은 해가 별씨 저물어가는 것을 보았다. 시간을 보니 어느덧 6시가 되어있었다.

‘이럴 거면 그냥 수업 듣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해은은 내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집안 생각이 들었다. 그 더러운 몸으로 신나게 굴러 댕기고 있을 둘을 생각하니, 해은은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도어락을 해제한 해은은 깨 문을 여는데 머뭇거리다가 문고리를 돌렸다. 현관에 신발은 낚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해은이 빨리 왔네. 고생했어.”

은영은 파자마에 머리까지 묶고 샤워까지 했는지 가까이 오기만 해도 향긋한 향기가 퍼졌다. 해은은 은영을 잠시 쳐다보더니 입 꼬리를 슬쩍 올렸다. 은영은 도저히 해은의 얼굴 뜻을 알 수 없었다. 은영은 눈썹에 힘이 들어갔고 어떻게든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 몰라. 배고파. 빨리 밤이나 해줘.”

모든 식사는 민혁의 레오나가 준비하는 것이 벨리를 가정에 들일 때 처음에 했던 이야기였지만 실상은 저녁은 거의 은영이 손수 만드는 일이 많았다. 민혁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할 경

우가 많아 레오나 자체가 집안일에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해은은 민혁과 은영이 함께 부엌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우와, 아빠도 와있었네.”

“해은이,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오늘.”

“모르겠어. 힘든가 봐. 아이고, 힘드네. 방에서 좀만 쉬게요.”

방에 들어간 해은은 문도 닫지 않고 다 죽어가는 신음을 크게 내뱉었다.

“여보가 한 번 가봐.”

민혁은 엉덩이로 은영을 툭 치며 말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해은에게로 향했다. 해은은 침대에 드러누워 대자로 뻗어있었다.

“우리 딸,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몰라몰라, 밥이나 해줘.”

“해은이 엄마한테 비밀 있구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Kids Security Database에 연결합니다. 보호자 명령에 따라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엘! 네가 왜 나서는 거야?”

미성년자의 벌리는 사용자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인증된 기관이나 개인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황을 기록한다.

“엄마, 엄마 진짜 후회한다. 진짜야.”

“그러니까 더 보고 싶네. 조엘 뭔데? 궁금하네.”

“아까, 엄마 아빠 한 거 사실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성공한 조엘은 준비된 데이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화면 출력과 소리 출력으로 변환하였다. 그렇게 조엘의 입에서 은영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안은 순식간에 적막해졌고 부엌에서 민혁이 생선을 튀기는 소리만 들렸다.

“어때 민망하지? 할 거면 나가서 해. 나가서 하라고.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나도 여기 방 있는 사람이야. 여기 집안사람이라고, 알아들어? 아니, 벌리도 있는데 무슨…….”

“헤헤……. 우리 딸 화 많이 났구나? 에이, 난 또 무슨 일이라고. 엄마는 우리 해은이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해은아, 신경 쓰지 마. 옷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해.”

은영은 해은이 방에 문을 닫으면서 나왔다. 민혁은 다시 은영과 함께 부엌에서 저녁밥을 준비하였다. 민혁은 이번에는 제대로 해은이 안 보는 곳에서 은영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완성된 저녁을 집중해서 먹느라 셋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해은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어?”

숨 막히는 분위기에 운을 띠운 건 은영이었다.

“없었는데……. 아, 몰라.”

“왜 다 몰라. 그래도 이뻐 우리 딸.”

“뭐야, 그게? …… 끝이야?”

은영은 정말 그게 끝이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해은은 양치하러 갔고 민혁은 설거지하였다. 민혁은 은영이 정말 팬찮은지 엉덩이로 톡톡 쳐가며 물었다. 은영은 이래서 민혁이 여태 이렇게 해서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싶었다. 은영은 해은이 조엘을 충전기에 앉혀놓고 확실히 화장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민혁에게 볼뽀뽀를 하였다.

설거지를 마친 후 은영은 은영 방으로 갔다. 그리고 민혁이 은영의 방으로 들어왔다. 민혁과 은영은 뜨거운 키스를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된 것 같아 잠시 멈췄다. 민혁이 입을 열었다.

“은영아, 내일 레오나 온데. 내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 나는 자기 밑이. 잘 자.”

민혁은 방으로 돌아갔다. 은영은 웃으며 방의 불을 켰다. 은영은 배를 만지며 편하게 누웠다. 레오나가 온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은영은 천천히 잠에 들었다.

은영은 눈을 떴다.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한 아침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전 은영은 아랫배 위에 두 손을 얹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꿈만 같던 어제였다. 은영은 다이어리에 쓸 글이 잔뜩 생겼다는 것에 웃음을 지었다.

은영이 정말 기분 탓에 잠이 깼던 것은 아니었다. 이 이른 아침에 현관에서 민혁이 도착한 레오나를 정성스레 포장을 걷어내고 있었다. 은영은 혹 민혁이 출근에 늦을까 같이 달라붙었지만, 한껏 굳어있는 레오나의 표정을 보니 손가락이 굳어버렸다.

“괜찮아, 자기는 들어가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뒤처리까지 다 할게.”

민혁은 아침 꼭두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준 은영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은영은 아직 잠자고 있는 해은을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큄치를 들어 방으로 들어갔다. 포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조용히 뜯는다고 했는데 은영은 그 좋아하는 잠을 내팽개치고 민혁을 찾아왔다. 민혁은 은영이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천천히 덜어낸 포장지를 일반쓰레기통에 다 버렸다.

벨리는 벨라스틱(Vellastic)으로 포장된다.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커지면서 이러한 ‘썩는 포장재’가 주목받는다. 이런 벨라스틱은 처분 시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된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민혁이 포장재를 버리는 소리 때문에,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 은영은 별수 없이 옆으로 몸을 돌려 핸드폰을 꺼내 관심도 없는 뉴스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영은 하나하나 똑같아 보이는 뉴스거리에 취해 다시 잠들었다.

별써 여섯 시하고 반이 넘었다. 은영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부엌으로 갔다. 레오나는 마지막으로 나온 은영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고 해은은 별써 스크램블에그를 다 먹어가는 중이었다.

“해은아, 아빠 어디 갔니?”

“방. 나 오늘 바쁘거든? 빨리 가봐야 돼. 아, 그리고 오늘은 진짜 친구 집에서 놀다가 올 수도 있다. 자고 올 생각도 있고.”

“그러니? 자고 올 생각이면 꼭 연락하고. 전화만 해줘.”

“알았어. 나 진짜 가볼게.”

“그래, 우리 딸 힘내.”

은영은 짹싹 긁어먹은 해은의 접시를 만족하며 바라보았다. 레오나가 곧 빈 접시를 가져갔고 은영 자리로 예상되는 위치에 은영의 아침 식사를 내려놓았다. 해은은 양치질을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레오나와 은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셔요.”

스크램블에그를 한 숟가락 들고 있는 은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무슨 말이야, 그게?”

어렵게 입을 연 은영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은영 씨 기억에는 사라졌겠지만, 제 빅데이터 속에는 남아있거든요. 은영 씨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해은이의 방과 민혁에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터져 나왔다. 꽤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만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에는 꽤 방해될 수 있어요. 이것에는 적당한 해소가 필요합니다. 은영 씨는 이런 해소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처에 알맞은 정신병원을 안내해드릴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은영은 얼어붙었다.

방에서 나온 해은과 민혁은 서로의 벨리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차갑게 식어버린 스크램블에그를 앞에 두고 은영은 천천히 접시로 눈을 돌렸다. 레오나가 정성스럽게 요리해준 스크램블에그를 보니 아랫배가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은영은 아직 입에 넣지 못한 순가락을 힘없이 떨어뜨린 채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다.

은영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헤냈다. 은영은 지난 3년간 안에 쌓였던 것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잊으려 한 것뿐이었지 소화가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 구역질은 이미 관련된 부정적인 데이터가 넘쳐나는 것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겪을 대로 겪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인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테니까.’에 배팅하였던 은영에 대한 대가였다. 3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은 모래폭풍 앞에선 그저 자그마한 모래성이었다. 집안 곳곳에 은영의 구역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금 진정이 된 은영은 제 몸 가눌 새도 없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은영은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것도 모자라 이 더운 날 얇은 가디건까지 입었다. 성경과 핸드폰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걸 보니 꽤 서두르고 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은영의 발소리가 점점 옮겨졌다. 은영의 뛰박질 소리는 정말 다급한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마치, 꽤 늦어 보이는 모양새였다. 은영의 접시에 있는 스크램블에그는 아직 반 이상 남아있었다.

누런 하늘에 해은은 마스크를 끼고 버스에 올랐다. 아침 등교 시간이었지만 빈자리는 많았다. 해은은 적당히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늘 보는 풍경이라 금세 지겨워진 나머지 핸드폰을 꺼냈다. 언제나 그렇듯 만화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눈꺼풀이 금세 무거워졌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나서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확실히 컨디션이 영 좋지 못하다. 해은은 오늘 예정된 술 파티가 무척이나 기대되기 시작했다.

버스의 속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버스의 인공지능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미세먼지 농도에 불가피하게 서행모드로 전환되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학교까지 아직 세 정거장은 더 남았다. 더군다나 버스는 신호대기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무인 버스는 폭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아예 버스가 정차하게끔 설계되어있다.

신호에 기다리던 버스 내 일부 사람들이 결국 ‘긴급탈출 버튼’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렸다. 신호가 바뀌려면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그걸 못 참고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해은도 앞머리를 부여잡고 그들을 따라 내렸다. 해은은 이제 막 풀린 건널목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넜다. 마스크를 끼고 약 10분 정도 내달렸더니 해은은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침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꽤 있기는 한가 보다. 땀범벅이 된 해은은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는 수아만 있었다.

“안녕, 수아야. 다른 사람들은?”

“버스 정지 명령 떨어졌어요. 등교 시간도 조금 늦춰진대요. 언니는 뛰어오신 건가요?”

“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막상 뛰어보니 아니더라고. 너는 어떻게 금방 왔네.”

“저…… 원래 걸어 다녀요.”

해은은 수아가 기수자였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아무리 기수자여도 갈수록 기본소득이 줄어들고 생활고가 꽉꽉해진다는 소문처럼 정말 아예 버스를 못 탈 정도인가 싶었다. 해은은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를 끼며 괜히 콜록거리며 걸어 다닐 것 같은 수아를 떠올렸다. 그리고 최대한 화제를 바꾸는 것이 나을지 여기서 대화를 그만둘지 고민이 들었다.

수아가 잠시 교복 단추를 풀고 심호흡을 하는 해은에게 다가왔다. 수아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인형을 하나 꺼내 해은 책상 위에 옮겨놓는다.

“이게 뭐야, 수아야?”

“제가 만든 건데, 가지세요.”

해은은 수아가 준 플라스틱 인형을 집어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예쁜 여자아이 인형이었다.

“고마워. 잘 가질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아가 웬일이래, 나한테 관심을 다 가지고.”

“그건, 언니가 먼저…….”

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정우가 교실로 들어왔다. 수아는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재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해은은 그런 수아의 모습을 이해했다. 해은이 인형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알 수 없는 괴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제 일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다. 확실히 어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아 일은 그냥 넘어갔지만, 확실히 어제 일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해은은 수아에게 가 잠시 밖으로 불러내었다.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언니가 촉이 좀 좋거든?”

“아, 촉이요……. 실은 현석이랑 맨날 하교 같이하거든요. 비슷한 방향이라. 그런데 현석이가 언니 좋아하는 거 같아서요. 많이.”

“알고 있는데 괜찮아. 수아도 조금 기다려 보렴.”

“네? 그게 무슨……. 아, 현석이가 좀…… 그래요. 좋은 친구이긴 한데,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든요. 언니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아니에요.”

“뭐, 다사랑복지센터 말하는 거야?”

해은은 그냥 묻기로 하였다. 어차피 수아는 이미 아는 것 같았고 해은이 직접 아는 것을 공유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대화 진전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미 알고 계셨네요.”

“어, 나도 들었어.”

“혹시 예서한테 들으셨나요?”

해은은 수아의 예리한 직감에 말문이 막혔다. 결국 아무 말도 못 하는 것이 대답이 되어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예서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현석이 기수자면 어디 소속이냐고. 아마, 그걸 알고 있는 건 예서나 예서랑 친한 민애 언니까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알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구, 그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 수아가 재주가 좋긴 하네. 그리고 현석이는 자신이 무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수아야, 얼른 데리고 가. 언니,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네? …… 아, 네. 알겠어요.”

수아는 얘기가 끝난 후 빠르게 자리로 향했다. 해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수아가 준 인형을 보고 있다가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먼저 도착한 수아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성거리다 겨우 자리에 앉았다.

해은은 앞문으로 교실을 들어갔다. 들어갔을 땐 정우와 수아만 자리에 앉아있었다. 해은은 드디어 공부하는 정우와 수아의 앞모습을 보았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둘은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수아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보고 있었고 정우는 태블릿 속에 교과서를 내려받아 그 위에 전자펜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해은은 여태 이렇게 반년을 옆에 있었을 수아를 보면 입이 벌어졌다. 잠시 가만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해은은 다시 입을 다물며 제 자리로 돌아갔다.

현석이 뒷문으로 들어왔고 예서와 민애가 떠들면서 앞으로 들어왔다. 예서는 특히 껌을 씹으며 발음이 하나씩 새어 나가고 있었다. 해은은 이들이 앉을 즈음 퀴퀴한 미세먼지 냄새가 같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창문을 보았지만 하늘이 누런 것이 꼭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공기 청정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을 틀었다. 해은은 약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였다.

꿈만 같은 국어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왔다. 해은은 그대로 옆어져 웃어떨어졌고 예서는 다리를 앞을 쪽 빼고 의자에 등을 걸친 채 머리를 뒤로 젖혔다. 민애는 태블릿을 보고는 있다만 별 흥이 생기지 않는 듯 턱을 괴고 한 손으로는 펜을 돌리고 있다. 정우는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소설을 완독하였고 요소 하나하나에 분석을 완료하였다. 수아도 별 흥이 없는지 교과서 종이 한 장을 집고 페이지를 넘기다 말기를 반복했다. 쉬는 시간은 조용히 무르익었다.

‘찍어요~ 찰칵’

민애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우는 눈을 한번 훑겼고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머리를 젖히고 있던 예서가 코웃음을 쳤다. 예서는 소리가 들려왔던 왼쪽 뒷자리를 노려봤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일어났다. 퍼져있던 해은의 책상을 지나 현석에게로 다가갔다.

“너!”

예서는 딱 한 마디를 현석 머리를 향해 강하게 내리꽂았다. 현석은 꼼짝을 않고 있다.

“현석아, 폰 좀 보자.”

예서의 눈은 반쯤 풀려있었다. 예서는 힘을 주지 않고 현석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가져갔다. 아직 핸드폰이 잠금화면으로 전환되기 전이었다.

“도촬, 했네? 언니, 이거 봐봐 도촬했어. 언니 친구 해은 언니를 말이야.”

“어? 어.”

민애는 예서를 꾹꾹 누르는 선수였다만 이렇게까지 나사가 다 빠져버린 상태면 난감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예서는 눈이 완전히 풀린 채 현석의 핸드폰을 빙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은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야, 기수자. 적당히 해. 해은 언니가 그렇게 만만해? 해은 언니는 너 생각 없어. 기수자면 기수자답게 살아. 찌그러져 있으라고. 왜 이 지랄인데 찌…….”

“야, 민예서. 선 넘지 마.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적당히? 끝? 선은 애초에 얘가 먼저 넘었어. 언니, 정신 차려. 이건 범죄잖아.”

“야! 민예서!”

민애는 당차게 일어나 예서 앞에 섰지만, 완전 고삐가 풀려버린 예서를 어찌할 수가 없었

다.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일정하면서 나지막하게 내려앉은 예서의 목소리는 민애도 처음 듣는 톤이었다. 예서가 현석 머리통을 보다가 민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민애는 다시 눈꺼풀이 반쯤 내려온 예서의 눈을 보고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었다.

“졌지? 꺼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예서를 막아선 민애는 일침을 강하게 맞았다. 민애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야, 민예서.”

정우가 일어났다. 해은은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지켜보았다. 해은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순전히 해은에게 벌어진 일인데 다른 이들이 더 흥분해 있었다.

“꼴통 새끼가 주머니 두둑하면 세상 단 줄 안 가봐? 조져줄까? 그만 나대자.”

“조져? 누가? 나를? 네가?”

정우는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서와 정우가 기싸움을 하는 동안 현석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무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음의 준비가 된 해은은 서둘러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해은은 나름 빠르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앞문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었다. 해은은 너무 늦어버린 것이다. 해은은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예서와 정우를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정우는 빠르게 몸을 돌려 자리에 갔다. 아직 화가 덜 풀린 예서는 가만히 서 있다가 민애가 힘으로 예서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밀자 그제야 제자리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현석 앞자리 두 개가 모두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아는 어디 갔니?”

“잠시, 화장실 갔나 봐요. 제가 데려올게요.”

“그래, 데려와라.”

해은은 수아를 찾기 위해 서둘러 교실을 나갔다. 선생님은 책을 내려놓은 뒤 책장을 껐다. 수아가 앞문으로 들어왔다.

“어? 수아 왔구나. 해은이 못 봤니?”

“네? 해은 언니……. 화장실 갔나 봐요. 제가 데려올까요?”

“……. 아니, 앉아라.”

선생님은 책을 덮었다. 민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선생님은 교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유선 이어폰을 선이 엉키지 않게 천천히 꺼냈다.

“민예서, 벨리 가져와 봐.”

선생님 기준에서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이 예서였다. 예서는 오늘따라 고개를 폭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다. 하나가 예서의 허벅지를 문지른다.

‘예서야, 큰일 났어.’

‘나도 알아. 그쯤은…….’

“예서야?”

날카로운 선생님 호명에 예서는 결국 일어나 하나님을 선생님께 데려갔다. 벨리는 고품질 음역의 음악 감상을 즐기는 유선 사용자들을 위한 유선 단자가 제공된다. 선생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하나 가슴팍에 있는 터치패드를 이리저리 눌러 Kids Security Data Base에 접속하여 조금 전 상황을 보았다.

교실은 어느 때보다 적막해졌다. 선생님은 모든 사건을 전부 알게 되었고 이어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앞문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뭐 빨리 끝나는 날이기도 하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긴 하구나. 그리고 민예서, 서현석은 교무실로 따라오고 하교할 사람은 하교해라. 그리고 수아야, 해은이 오면 교무실로 내려보내렴. 너무 안 온다 싶으면 너도 하교하고. 선생님이 연락해볼게.”

“네.”

수아만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곧바로 교실을 나갔다. 정우는 그 즉시 가방을 메고 교실을 떠났다. 현석도 뒷문을 통해 교무실로 향했다. 예서는 일어나 아직 앉아있는 수아에게로 갔다.

“야, 이수아. 아까 일은 사과할게. 너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어.”

“그럼 교실 안에서 목소리 좀 낮춰줄래? 이 미친년아.”

수아는 벌떡 일어서더니 예서의 어깨를 치고 곧잘 교실을 나가버렸다. 민애도 가방을 들고 교실을 떠났다. 어느덧 교실에 혼자 남아버린 예서다.

예서는 교실을 나가기 전 팬스레 민애의 책상다리를 세게 걷어찼다.

“아!”

너무 아파 문 앞에서 발을 부여잡고 몸을 배배 꼬았다.

수아의 말에 허겁지겁 교무실로 달려온 해은은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예서와 현석을 보았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는 현석에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현석 역시 일방적인 압박에 예서의 사과를 받는 척하였다.

“그리고 현석이는 해은이한테 사과해야지.”

“미안해요. 해은이 누나.”

“해은이는 사과받기 전에. 현석아, 이거 사진은 삭제하자?”

현석은 예서와 해은 그리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삭제했다. 현석은 해은을 슬쩍 보았다. 해은은 어쭙잖게 웃었다.

“전 팬찮아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좋다. 이번 일은 이렇게 마무리하자. 해은이만 남고 둘은 가도 돼.”

해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현석과 예서는 곧바로 교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현석은 교무실 밖에서 클라우드로 전송되어있던 해은을 도촬한 사진을 다시 내려 받아 파일을 원상복구 하였다.

선생님은 외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다. 아침보다 꽤 내려온 상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 보였다. 선생님은 해은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자그마한 운동장이 한눈에 보이는 단상 옆 계단에 앉았다. 선생님은 해은을 잠시 토탁여주고 싶었지만, 옆에 조엘이 있어 차마 해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요번 주에 공부한 게 조금 빠세긴 했지? 그런데 해은아, 어제 쪽지 시험 점수는 영 썩 좋지는 않더라.”

해은은 입맛을 다셨다. 선생님과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어려웠니?”

“네, 공부해야죠.”

“선생님이 왜 해은이만 따로 빼서 불러낸 거 같니?”

해은의 머릿속에는 ‘예뻐서, 점수가 낮아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아, 모르겠어요.”

“해은이 어머니께선 벨리가 없다고 했지?”

“네, 맞아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모임에 참여하시지는 않니?”

해은은 가만히 고민하다가 곧 은영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글쎄요, 교회 다니시는 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참, 현명하신 분이시구나. 해은아, 너도 이제 곧 어른이잖니. 해은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벨루 취업해야지. 해은이는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나랏일 말고 회사일 생각해보는 걸 추천한단다. 힘들다는 건 아는데, 이제 이걸 이해할 때도 됐어. 이런 건 해은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야.”

해은은 가만히 듣다가 쟁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데요. 꼭 작가가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에 치이면 취미가 없어지잖아요. 저 그럼 진짜 힘들어져요. 전 뭐라도 써야 그나마 좀 해결돼요. 작가가 부업이 되더라도 말이죠.”

선생님은 곧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조금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회사 일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해은을 그저 대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확실히 뜰망똘망한 계집애였다.

“해은아, 일단 제 몸부터 가누고 보자.”

선생님은 냉정하게 한마디 내뱉고 해은이의 등을 다독이며 일어섰다. 해은은 방금 말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은이 질문을 하려 했을 때는 이미 선생님은 벌써 멀리 걸어가 버린 후였다. 해은은 비어버린 운동장을 보다가 잠시 생각에 빠졌다. 바람이 심해지는 것 같다. 해은은 몸을 일으켜 교실로 향했다. 오늘 또 쓸거리 하나가 늘었다.

텅 빈 교실인 줄만 알았지만, 교실에는 수아 딱 한 명이 남아있었다. 해은은 수아의 책상 위에 자그마한 인형 두 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받았던 인형과 유사한 형태였지만 우선, 성별이 달랐고 머리 스타일과 생김새 부분이 조금씩 달랐다. 해은은 수아의 옆자리 정우의 의자를 빼서 수아 옆에 앉았다. 수아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인형을 보고 있었다.

“수아야, 팬찮아? 하교 안 하니?”

“전 팬찮아요. 하교는 조금 있다가 하려고요.”

“왜인지 알 수 있을까?”

해은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하였다. 해은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금 수아가 최대한 감정을 억제하려는 것이 느껴졌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수아 앞에 앉아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수아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언니…….”

“언니, 시간 많아. 얘기 들어줄게. 팬찮아.”

수아는 인형에게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해은을 보았다. 해은은 드디어 자신을 봐준 수아를 부드럽게 쳐다보았다. 눈을 한참동안 마주친 수아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저희 어머니는 낮에 쉬시고 밤일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서 집을 비워드리려고요. …… 언니, 믿어도 되는 거죠? 언니한테 더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럼 우리 교실부터 나갈까? 잠시 산책 좀 하자. 여긴 너무 어둡잖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확인한 후 열려있던 앞문을 닫았고 혹시나 하여 뒷문도 확인하였다. 해은은 다시 수아 옆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수아의 아버지는 가출한 지 10년이 넘어 이젠 낸 수를 안 따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별씨 창녀 일은 5년은 더 되어 가는데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하셨다. 이유는 포르노를 찍는데 그 상대가 바로 ‘벨리’라는 것이었다. 해은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한 인간’이라는 컨셉으로 성인용 벨리와의 관계를 통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포르노 제작이 해당 업계에서 유행이라고 한다. 수아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피임이나 여타 신체적 접촉 및 육두문자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 안전해 그나마 할 만하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와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정신이 파멸되는 것, 자멸할 것만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보고 즐길 이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이 일을 더 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수아의 어머니는 벨리가 없기에 딱히 떠올릴 수 있는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수아는 말하였다.

“언니,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죠? 그런데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벨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게, 언제나 이 벨리가 문제인 것 같다. …….”

“……. 제 벨리 이름은 ‘헤카테’예요.”

해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해은은 수아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메시지를 읽었다.

‘해은 언니₩ 오늘 알지?₩ 날이야₩ 나와₩ 기다리고 있어’

예서였다. 아무래도 학교 밖에서 민애와 함께 해은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수아는 난감해하는 해은의 얼굴을 잠시 보았다.

‘수아랑 같이 있는데, 시간 좀₩ 어디 가서 뭐라도 먹고 있어’

‘걔?₩ 수아라고 하니까₩ 쌩!₩ 알았어₩ 언니가 그런다면 그런 거지₩ 대신 정각에는 와’

‘어, 근데 더 늦게 갈 수는 있어₩ 아무거나 먹고 돼지나 되고 있으라고’

‘그래, 참 고맙네₩ 정말 고마워’

수아는 멀리서도 예서와 해은이 나눈 메시지를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수아는 인형으로 눈을 돌리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서는 말이 참 거친 친구예요. 저번에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친구더라고요. 처음엔 연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날 후 계속 만났고 더 친해졌는데, 저는 예서와 벨리 이름까지 나눴어요. 민애 언니도 같아요.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잘 알거든요. 예서가 절 어떻게 할 수 없다는걸.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따뜻한 친구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말이에요. …… 언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언니, 가서도 좋아요.”

해은은 말을 잊지 않았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시계를 보았다. 해은은 예서의 잔소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를 이렇게 놔두고 가기는 정말 싫었다.

하는 수 없이 해은은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해져 버린 머릿속을 하나씩 나열하기로 하였다.

“……. 벨리로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마치, 기상청에서 모든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기후를 예측하는 것처럼. 마치, 질병청에서 모든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음 전염지역을 예측하는 것처럼. 그럼 그곳에서 우산을 쓰면 되고 마스크를 쓰면 되잖아.”

“…….”

“언니는 나한테만큼은 벨리가 과연 필요할까 싶어. 비록 벨리가 소설을 쓸 수 있다지만 결국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면 다 지워야 하잖아. 난 벨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으면 좋겠어.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전부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는 거지. 마치, 안경을 쓰는 것처럼, 보청기나 번역기를 쓰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언니가 그 말 해줘서 기분은 조금 나아졌네요. 고마워요.”

해은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말을 들었지만, 곧 수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 언니가 지금 ‘공감’에 관한 소설을 쓰는 중인데, 예습을 좀 했거든. 다음 파트는 ‘욕구’야. 좀 알아봤어. 바로 가상 인간에 관한 부분이야. 어떤 기업은 그 가상 인간을 활용해 포르노를 찍는다고 하더라고. 사랑 나누는 연기를 펼치는 모델을 분석해 자료화해서 얼굴이랑 성기, 음성만 리디자인해서 포르노를 양산한다고 하더라고.”

“……. 네?”

“이 언니가 좀 변태야. 언니는 그런 거만 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으로 얼굴이랑 성기 드러내는 거, 고함질러대는 거, 다 못생겼거든. 흥분이 안 돼. 이 언니는 적당히 편집하니 볼만하더라고.”

“지금 언니가 말하는 건 포르노를 굳이 성행위 하지 않고도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몸짓 데이터값만 받는 거지. 데이터보험사도 있겠다, 낸들 안 되겠어? 그리고 말했잖아, 그렇게 CG 작업을 해야 더 자극적인 촉수물이라든지, 괴수물이라든지, 보어물이라든지, 고어물 같은 거. 아니 그냥 섹스를 찍어도 더 이쁘고 잘생긴 인간이야. 난 그런 걸 주로 봐.”

“그, 그게…….”

“관심 있으면 한번 가상 인간 쪽으로 알아봐. 이 언니는 정보화 사회인데 정말 부족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든. 시간이 없어서 관련 회사는 못 찾아봤네. 하지만 정확히 있었던 걸로 기억해. 한번 찾아봐. 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웬찮지? 언니 이제 가볼게.”

“……. 어, 언니! …… 잘 노세요.”

해은은 교문 밖을 나서기 전 수아에게 작은 인형을 흔들어 보여주었다. 해은이 떠난 자리에 햇빛이 노랗게 드리웠다.

네 번째 잔. 현실, The Bell With Fox

해은은 교문을 나섰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교문 바로 옆에서 민애와 예서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해은이 다가갔으나 위낙 열중하고 있는 탓인지 본 체도 하지 않는다.

“정신이 없네. 나, 왔어.”

“응,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뭐 먹을래?”

“햄버거 먹는 거 아니었어?”

“해은아, 그런 폐지를 왜 또 먹니.”

“어우, 벨리가 만들어주는 건 나도 지겹긴 해. 시내로 갈까? 여긴 먹을 게 없어 사실. 민애 언니 말처럼 폐지잖아.”

해은은 예서와 민애를 따라 걷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은은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솟자들이 걱정됐다. 예서가 시무룩해진 해은의 얼굴을 보았다. 예서가 갑자기 해은의 팔짱을 꼐다.

“우리가 한 턱 낸다니까? 수아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

“수아? 야, 너희들 정우랑은 안 친해? 아니면 개네랑 놀면 되잖아. 왜 굳이…….”

“너랑 수아 같은 애들이랑 같이 지내냐고? …… 일단, 여자니까. 나도 여자고 수아랑 너도 여자고. 정우는 남자고. 남자인데다가 맘에 하나도 안 들고. 재수 없고. 난 재수 있고.”

민애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예서는 그래도 시무룩한 해은을 지긋이 보다가 머리에 묻은 먼지를 빼어내려 하였다. 해은은 예서의 손길을 피했지만 익살스러운 웃음을 짓는 예서에 그냥 놔두기로 하였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친해지는 건 너희들 바라던 건 아닐 거 같은데.”

“왜? 아니, 해은아.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멀쩡한 친구를 못 찾아서 그래. 정우 그 새끼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그런데 난 벨리 이름까지 나눌 생각은 없긴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데 난 너무 답답하더라고. 병신 같아서 이 현실이. 아, 빨리 성인 찍고 인터넷 열른 하고 싶다.”

“그건 맞지.”

해은은 민애의 말에 수긍하였다. 해은은 은영인 하던 인터넷 온라인 채팅을 잠깐 엿보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원거리 친구 어플 덕에 채팅과 사진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채팅 옆에 매 초록색이 붙어있었는데 가끔 빨간불 채팅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은영은 깔깔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시내로 가는 버스가 도착하였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탔다. 시내로 가는 버스에는 사람들 이 제법 타고 있어서 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나마 하나 남은 자리를 민애와 예서는 해은에게 양보하였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용돈이 남아서 그래. 그게 다야. 부담 갖지 마. 이상한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게 더 기분 나빠.”

“그랬느냐? 미안해. 그나저나 뭐 먹을래?”

“해은 언니는 최근에 뭐 맛있는 거 먹은 적 있어?”

“나 글쎄. 어제 양고기?”

민애는 놀란 눈으로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두 사람이 표정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 언니 부자라니까, 은근. 양고기 먹었대자너. 요번에 오픈한 거기 말하는 거지? 거기 맞았던 했어, 나도.”

“그 사장님이 꽤 부자였던 걸로 아는데.”

“민애 언니는 참. 그 정도 QUALITY면 꽤 쓴 거 맞지.”

“워, 이게 머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마법신문(Magic Newspaper)인가?”

“해은이 신문 안 봐? 의외네. 그 봐봐. 재밌어.”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얇은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이어 나가다 결국, 마치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천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비단 종이신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가방, 우산, 자동차 외형, 스마트폰 뒷면, 만화책 등 하다못해 티셔츠에까지 설치될 수 있다.

시내는 해은이 어렸을 때 몇 번쯤은 가본 곳이다. 하지만 요즘은 학업으로 인해 생각조차 못 할뿐더러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논다’라는 것에 굉장히 둔감해졌다.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질수록 놀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해은아, 그래서 뭐 보고 있어?”

“흠…… ‘유전자 가위로 좋은 것만 물려주면 누군가는 나쁜 것만 물려받지 않을까?’라네.”

“그렇다면 유전자 바위(Gene Rock)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서는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흘려들은 질문에 대충 답을 하였다. 이걸 어찌 답해야 할지 찔찔매던 해은은 마침 구동이 종료된 전자신문을 보았다.

“어? 꺼졌다.”

“어…… 글쎄, 우리 파스타나 먹을까? 어때?”

“예서야, 이거 다 됐는데 어떡하지?”

“계속 볼 거야? 결제해줄게.”

“아니, 재밌는 게 없어. 반납할게.”

예서는 해은에게 친절히 전자신문을 반납하는 곳을 알려주었다. 해은은 서둘러 신문을 접고 반납대로 가려 하였다.

“얘들아? 파, 스, 타 어때?”

민애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예서는 해은의 팔을 끌고 얼른 웃었다. 그리고 해은의 옆구리를 꼬집어 웃게 하였다.

“좋은 거 같아. 역시 언니는 먹는 거 잘 골라. 아! 해은 언니는?”

“아야하, 뭐, 맛만 있다면야.”

“그렇지? 파스타 먹고 싶지?”

민애를 겨우 진정시킨 예서는 만족스럽게 끄덕이는 것을 보고 해은을 풀어주었다. 예서가 조용히 민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보니 민애 언니, 술 가는 거야?”

“어? 민애랑 예서는 파스타랑 술을 같이 마셔?”

“아냐, 술은 이 언니만. 이 언니만 잘 마셔. 난 못 마셔. 그리고 보통 ‘술 파티’라 하면 이 언니만 출창 마셔.”

“야, 둘이 닥쳐.”

단정한 교복을 입은 민애는 조용한 버스 내에서 실제 본인 얘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못내 신경 쓰였나 보다. 버스는 어느덧 시내에 꽤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내 외곽에 들어서니 인도 위가 전부 미세먼지 그늘막 처리가 되어 있었다. 해은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인도 쪽이 특히 이런 천막 공사에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이젠 제대로 인도가 천막으로 덮혀 있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인도에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목적지 ‘마천루’들이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언덕에 가려져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버스는 지하로 향했다.

“뭐야?”

“뭐긴 뭐야. 시내 다 와 가는 거지.”

“이 언니 모르네. 땅 팔잖아. 언더-웨이(Under-Way) 프로젝트는 들어봤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거야.”

해은도 알고 있었다. 정부는 벨루와의 논의 끝에 미세먼지 폭풍에 대한 대책으로 지하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승인 절차를 내렸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던 해당 소식은 은영조차 멀쩡한 땅을 헤집는다면서 이 소식에 대해 굉장히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미 삽을 뜯 이상 뭐라도 파내어야 하였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금 해은의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해은은 왜 자신이 사는 동네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지 궁금하였지만, 입밖에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민애가 안내한 정류장에 내렸다. 지하 공기는 생각보다 신선하였다. 거리를 둘러본 해은은 지상에서의 상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다른 의미의 충격을 받았다. 그저 하늘 천장에 뚜껑이 있는 것일 뿐이었다. 해은은 ‘지하도시’라는 말에 음침하고 빛이 겨우 세어 들어오며, 손전등 하나 지참하고 거리를 활보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 백화점으로 들어서자 유명 브랜드의 옷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행여 옷깃이라도 닳을까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민애와 예서는 닳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건물은 80층으로 되어있었고 민애는 61층을 눌렀다.

“무슨 파스타 집이 61층에 있는 거야? 어디 들렀다 가는 거야?”

“아무리 파스타여도 운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먹는 맛이 나지.”

예서의 말에 해은은 고개가 겨우뚱하였다. 엘리베이터는 고속으로 상승하였다. 예서와 민애는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달라지는 기압을 느꼈다. 해은은 인상을 찌푸리고 예서의 말을 이해하는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그제 61층에 도착하였다.

61층은 지상이라 해도 믿을 만큼 광장이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은은 고개를 올려다보았다. 가운데가 뻥 뚫린 채 층마다 양들리에가 매달려있었다. 어쩌면 61층이 이 빌딩의 중심부이자 라운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해. 해은아, 그렇게 처음 온 거 티 내지 말고.”

민애의 따끔한 충고에 예서는 웃으며 해은의 어깨를 톡톡 쳤다. 민애는 예서의 팔목을 꽉잡고 최대한 일그러뜨렸다. 예서는 끝끝내 버티다 해은에게 사과하였다. 해은은 둘을 따라 조용히 파스타 집으로 향했다.

카운터에는 굉장히 사람처럼 보이는 로봇이 인사를 해주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게 안에는 굉장히 고성능으로 보이는, 굉장히 사람 같은 로봇이 여기저기 서빙하고 다녔다. 민애는 미리 얘기해둔 창가 쪽으로 예서와 해은을 인도해주었다.

“이번에는 네가 사는 거다. 예서?”

“라저.”

“그런데 대단하네. 로봇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는데.”

“응? 무슨 소리야? 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로봇 기술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말이야.”

“어?”

민애와 예서는 또 한바탕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또 졸지에 개그맨 처지가 되어버렸다.

“아니야, 아니야. 얘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사람이야, 사람. 그렇다고 여기 종업원들 아무나 안 뽑아. 어느 정도 스펙은 되어야 한다고. 하다하다 요즘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으로 ‘서빙’이 있다니까, 글쎄.”

해은은 이곳 종업원이 되려면 최소 명문 대학은 졸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최소 그 정도는 되어야 소위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여 이력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해은은 속으로는 기겁하였지만 일단 종업원이 가져다준 물을 한 모금 마시기로 하였다.

“아니, 사람을 왜 쓴대?”

“이 집은 서빙을 사람으로 쓰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장사 안 하겠대. 그리고 서빙 로봇에 된통 데었대. 저번에 로봇이 아이랑 부딪히면서 옆 손님한테 파스타 쏟았거든. 윤리인지 머시긴지 이상하게 작동한 거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할 거냐, 손님한테 쏟을 거냐.’에서 양후자를 선택해 버린 거야. 그런데 그만 회사에서 데이터 공개를 일단 잘 안 했고 결국에 했어도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슬쩍 기사 찾아봤었는데 아주 아옹다옹하더라고. 데이터가 명확히 기록되면 뭐 해. 돈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왜곡해버리는 건 똑같은데. 결국 단골은 단골대로 빠져나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랬어. 그때 이후로 서빙 사람 쓰더라고. 사장이 사람 쓰는 게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

“아, 뭐 그런 일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거 내 생각엔 애 엄마 잘못 같은데.”

“맞아, 로봇 충돌 측정값이 딱 아이 부딪힌 거였거든. 그래서 애 엄마 불잡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애 엄마가 제대로 된 코딩 분석업체 불러서 확인해보니까 다 드러나더라. 글쎄, 그 서빙 로봇이 해킹당했었는데. 가게 안 누군가가 로봇 해킹해서 다리 쪽에 딱 그 아이 부딪힐 정도의 충격값을 입힌 거지. 업체 쪽은 그런 줄도 모르고 데이터 분석 안 돼서 찔찔했던 거고. 근데 더 놀랄 노 자는 이 일을 일으킨 주동자가 맞은편 가게라는 거야. 뭐, 심증이지만.”

“소름이다. 아, 벨리가 아니니까 해킹이 쉬웠던 거구나. 쪘든 그냥 서빙 로봇이라고?”

“맞아, 그냥 서빙 로봇이었어. 그런데 언니는 벨리를 믿나 봐? 난 안 믿어.”

“나도 옛날 자료 찾아보긴 했었어. 그런데 소위 엘리트라고 모인 옛날 대기업 같은 데에서 글쎄 개인정보가 수천만 건씩 나갔다는 거야. 수천만.”

“내가 한 표 견다. 이거 벨리 언젠가 한 번 뚫린다.”

“에이, 예서야 그래도 벨루에는 넘사벽 인력들이 있는데.”

“언냐, 정신 차려. 고 개인정보는 한 번 뚫려도 어떻게 복구는 되겠지만 벨리라고. 벨리가 뚫리면 뭐가 더 뚫리는 줄 알아? 우리 머리통 뚫릴 수도 있다고.”

예서의 언성이 높아졌다. 민애는 일부러 소리 내서 물을 따른 뒤 예서에게 건네줬다.

“그그 예서야. STOP, 거기까지. 그건 그렇고, 근데 이 집 그때 그냥 물어줬다는데, 어째 주방 쪽은 온갖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드라? 그러니까 지금 주방장은 차라리 더 좋은 요리를 위해 주방 쪽 시설에 더 투자하는 거겠지?”

“허유, 대체 무슨 차이지? 공장에서도 로봇을 쓰는데 말이지. 그냥 인간이 편하게 되는 거겠다는 건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해은이도 거기까지. STOP. 그냥 우리 아예 다른 얘기 하자.”

세 사람은 자신의 컵을 바라보며 가만히 할 얘깃거리를 떠올려보았다. 해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럼, 민애는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다 알아? 이런 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올 텐데?”

“이 언녀 사실 여기서 알바 했었잖아. 언녀도 그런데 이 언녀도 운동해서 한 몸매 하거든.”

“그래? 근데 지금 왜 안 해?”

“그……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했거든.”

“이 언녀 손이 좀 거칠지. 쓸데없이 힘만 셀 편이야.”

민애는 눈앞에서 나풀거리는 예서의 손을 낚아채 일그러뜨렸다.

갓 구운 마늘빵이 나왔다. 민애와 예서는 능숙하게 스프에 찍어 먹었다. 해은은 둘처럼 따라 입속에 빵을 넣어보았다. 단순 빵이었는데 입에서 살살 녹아 순식간에 사라졌다. 진정이 시대에 맞본 ‘꿀맛’이었다.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해은은 예서에게 딱 걸렸다. 예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가리켰다.

“자 언녀, 그리고 저기를 보면 돼. 이게 바로 ‘운치’라는 거야.”

창밖에는 모레 덮인 도시와 황색 땅이 펼쳐졌다. 예서는 마늘빵과 함께하는 전경 감상에서 그 우아함을 찾아내었다. 민애는 입천장에 들러붙은 빵조각을 혀로 떼어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예서를 쳐다보았다. 해은은 어느새 한없이 작아진 동네를 보았다. 역시 고작 빵이어도 굉장히 맛이 있었다.

이윽고 카르보나라, 토마토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파스타, 미트 스파게티가 나왔다. 민애가 카르보나라, 예서는 미트 스파게티, 해은은 토마토 파스타를 가져갔다. 서로 한 입씩 나눠 먹으며 각각의 맛을 평가하였다.

“그나저나 좀 이파가 우리 수영장 갈래?”

“오, 좋다. 가자자자.”

해은은 민애의 대담한 코스 선택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해은은 잠시 몸을 살펴보았다.

“왜 그래?”

“아니, 그게, 갑자기 수영장을 간다고 하니까.”

“민애 언녀도 참. 모르겠어? 흠, 해은 언녀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뭘 걱정해. 그리고 어차피 노는 건데.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 정도면 신경 안 써도 돼. NM, ha, Don't worry about that. 언녀! 괜히 화나게 하지 마.”

해은은 예서의 날 선 칭찬에 파스타가 더 맛있어졌다.

휴대폰으로 결제를 마친 예서는 화장실로 갔다. 해은과 민애는 먼저 가게에서 나와 가게 이름과 안을 훑어보았다.

“맛있다.”

“맞아, 괜찮은 집이야. 시간 되면 한 번씩 먹어봐. 야, 그리고 보니 여기 양고기보다 싸잖아.”

“그러네. 네 말대로 시내에 한 번씩 오자고 해야겠다.”

해은은 진심으로 말하였다. 민애는 해은이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보여 미안했지만 조금씩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만족하였다. 이어서 예서가 나왔고 셋은 수영장을 향해 다시 지하로 향했다.

무인 버스에 몸을 맡긴 세 명은 앉을 자리가 없어 모두 서서 갔다. 단, 지하철처럼 부드럽

게 버스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손잡이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평소 공부는 뭐로 해?”

“글쎄, 난 벨리는 선생님 중에서 린(Linn) 보는데. 올 엄마가 나보고 고2니까 그건 때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벨리는 선생님. 실버 체이서(Silver Chaser). 원래 골든 체이서(Golden Chaser) 할라 했는데 맘마가 나보고 꿀통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버 들어. 돈 아깝데. 언냐는?”

“나, 나는 퓨처 박스(Future BOX).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나저나 민애는 린이라니. 대단한데?”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때문에 골치긴 해. 근데 이게 우리 시험 기본 체력이래. 이것도 못 풀면 시험장 갈 생각 하지 말래. 뭐, 어찌겠어. 그렇게 협박을 해대는데.”

‘벨리는 선생님’은 최근 사교육에서 새로 등장한 교육체계를 채용한다. 해당 사교육기관은 BIXchoolling(빅스쿨링), 기개수상담관리서비스: 기본개인수행인재양성서비스, Basic Individual eXecuting School Service을 도입하였다. 이는 인터넷 면허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이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 학생들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 수업 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해은은 동네보다 훨씬 잘 닦이고 천장에 LED 조명이 촘촘히 박혀있는 지하도로를 보며 은근슬쩍 자신이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보고 싶었다. 민애와 예서와 가까워진 것에 조금은 기대를 한 것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빠도 못 추렸다.

우선, 민애가 본다는 린은 연 8천짜리 교육 서비스였다. 그리고 예서가 본다는 체이스 시리즈는 3천에서 실버는 5천, 골드는 최소 2억 이상까지 편성되어있다. 해은이 보는 퓨처 박스는 연 8백이었다. 심지어 민애와 예서는 폭스 박스를 아예 모르는 눈치였다. 해은은 잠시 침대에 누워 텅굴뒹굴 굴러다녔던 모습이 생각났다. 그리고 해은은 이왕 시작한 이상 궁금한 것은 계속 물어보기로 하였다.

“그럼 정우는?”

“걔는 글쎄? 모르겠는데. 궁금해 본 적이 없어서.”

“내 생각엔 그냥 집안에서 뭐 하는 거 같던데. 공부에는 벨리 안 쓰는 거 같아.”

“아, 진짜? 벨리 안 쓰고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아, 근데 뭐 걔네 집은 뭐 그렇게 공부시켜도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 아마 더 그러겠지.”

해은은 말끝을 애매하게 끝냈다. 하지만 해은은 예서의 말들로 정우 집안의 교육 방식이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둘은 정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확실히 다들 열심히 하긴 하네.”

“야, 장해은. 그래도 벨리 그거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내가 할 소린 아닌 것 같지만, 알잖아 너도.”

해은은 민애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기수자들은 ‘벨리는 선생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꽤 낮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보곤 한다.

“아, 근데 언니가 갑자기 공부 얘기하니까 진 빠진다. 언냐들 둘이 내년에 고3이면 이렇게 놀지도 못하잖아, 아예. 하루도 없을 거 아니야, 진심.”

“넌 그럼 수아랑 놀아.”

“아 맞네. 그러면 되나?”

“그리고 응? 공부해도 똑같다니까. 이렇게 꿀통이면.”

“언냐! 뭐라고 했어? 나한테 한 말이야?”

“수영장 다 왔네. 내리자.”

예서의 말대로 더 공부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싫었던 민애는 예서의 말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먼저 내려버렸다. 해은은 민애와 예서에게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이 느껴졌다.

수영장이라고 해서 해은은 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어떤 빌딩으로 들어갔다. 그 빌딩 역시 지하 입구 층엔 똑같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근데 수아랑 놀았던 적이 언젠데? 난 수아 요즘에 낯가리는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네들하고는 얘기도 안 나누는 사이인 줄 알았어.”

“두 달 전이었나? 그리고 고 때 이후로 확실히 개 변하긴 했어.”

“맞아, 공식적으로 두 달 만에 노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리고 모름지기 놀아야 돼. 놀아야 살지. 이것도 프로젝트야.”

민애는 길을 깨먹었는지 잠시 건물 안내도를 보았다. 수영장은 46층에서 75층까지 위치해 있었다. 해은은 수영장이 두 개로 나뉘어 상층에는 하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온천이 자리잡은 것을 보니 만만치 않은 대형 스파인 것 같았다.

줄이 꽤 긴 걸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민애의 걸음이 빨라졌다. 예서와 해은은 민애 꼬무니를 따라잡는 데에 급급했다.

‘예상 대기시간 30분. 오후 3시부터 입장 가능!’

“아, 물같이 했나보네.”

“기다리자.”

예서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고 민애도 이어서 핸드폰을 꺼냈다. 해은도 조엘과 둘을 번갈아 보다가 그냥 핸드폰을 들었다.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30분을 그렇게 대충 때우기로 하였다.

“민애야, 너 살 태운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냥 뭐 겸사겸사 한 번 담글라고.”

“그런데 너 잠깐, 옆구리 구멍 뚫려있는데?”

해은은 민애가 들고 있던 수영복을 다시 보았다. 옆구리뿐 아니라 가슴부터 배까지 구멍이 뚫려있었다. 해은은 무슨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기겁하였다. 예서는 그런 해은의 옆구리를 톡 밀었다. 잠시 밀려난 해은은 프릴이 장식된 수영복을 선택했다.

탈의실에서는 벨리를 맡기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핸드폰을 등록한 뒤 문이 열리면 벨리를 맡기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서랍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입고 있던 옷을 정리하는 곳이었다. 주의를 둘러보니 순전히 벨리 사용자를 위한 탈의실이었다.

해은은 탈의하기를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서와 민애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탈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잘 민애와 예서는 해은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예서는 해은의 알몸을 보기 위해 해은의 손을 억지로 잡았다.

“언니! 이쁘…… 언니? 푸하하, 잠깐만! 이걸 넣고 다녔어?”

“헐, 해은아…….”

“진짜 작다. …… 아, 그래서 아까 튕긴 거구나?”

“야, 그 됐고……. 얼른 구멍조끼나 입자.”

“우린 안 입어. 참, 난 디자인 바꿀래. 해은 언냐, 아주 이뻐 그냥.”

탈의를 마치고 위터파크로 들어서니 맑은 인공 햇살 아래에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해은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인이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내 수

영장이다 보니 가운데에 띄하니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있었고, 비교적 얇은 기둥들도 함께 천장을 벼티고 있었다. 특히, 그 커다란 기둥 주위에 튜브를 타며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가 있었다. 천장은 어떻게 건물을 지은 것인지 꽤 높이 올려다봐야 했다.

민애는 이전에 말한 대로 적당한 자리에 설치된 썬베드부터 찾았다. 민애는 가져온 선글라스를 끼고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리고 약속 장소는 그곳으로 정하였다. 해은과 예서는 파도풀로 향했다.

둘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헤치며 파도의 절정을 맛보기 위해 조금씩 전진하였다. 그렇게 허벅지쯤 물 높이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예서는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해은을 지탱하고 있던 왼 다리를 걸었고 뒤통수를 밀어 해은 얼굴을 그대로 물에다가 쳐 박아버렸다.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그래도 힘있게 푹 담가버린 예서는 잠깐 해은이 허우적대도록 쳐박아 두다가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출행랑을 쳤다. 적당한 거리가 되자 예서는 해은 방향으로 물장구치며 혀바닥을 셀 수 없이 놀려대었다. 머리를 흔들며 겨우 중심을 잡은 해은은 흘러내린 가디건을 고쳐서 입었다.

화가 잔뜩 오른 해은은 달리기가 빨랐다. 순식간에 뒷덜미가 잡힌 예서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해은은 이에 질세라 예서의 머리통을 물 밖으로 들었다 놨다 하며 있는 대로 물찜질을 하였다.

서로 물귀신이 되느라 진이 빠진 나머지 잠시 휴전협정을 하고 민애가 지키고 있던 핸드폰을 들고 아이스크림을 샀다. 자는 줄 알았던 민애는 몸을 쭉 일으키더니 아이스크림을 받았다.

“CHEERS!”

“CHEERS, 아주 그냥 둘이 난리도 아니드만.”

“이 언니 힘 존나 째!”

“야, 민예서. 민애야 이거 내 머리 봐봐 이거.”

해은은 젖은 머릿결을 민애에게 들이대면서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였다. 민애는 도통 해은이 무얼 말하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같이 놀 수 있으실까요? 저기, 저기 분들인데.”

해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봤다. 한 남자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를 숙여 말을 건네고 있었다. 예서와 민애는 눈꺼풀이 살짝 내려간 채 계속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남자는 해은을 보고 있었다. 당황한 해은은 눈만 깜빡인 채 가만히 있었다.

해은은 이 사단을 도저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보다 못한 민애가 끼어들었다.

“우리 안 해요. 가세요.”

“좀 있다 갈 겁니다. 집에 갑니다. 예, 집에 가요.”

민애와 예서는 매몰차게 남자를 돌려세웠다. 남자 셋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민애와 예서가 해은을 향해 폭소를 터뜨렸다.

“장해은, 얼 타는 거 왜 이렇게 웃겨!”

“언니, 안 되겠다. 언니는 온천 가자. 찜질해야겠어. 민애 언니, 다녀올게. 나만 믿으라고.”

예서는 해은을 끌고 상층으로 향했다. 민애는 손을 대충 흔들어주고 다시 선글라스를 끼었다.

온천장 바닥은 미끄러웠다. 혹 넘어질 수 있어서 예서는 해은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천천히 온천물로 이동했다. 온천에 발끝부터 천천히 들어간 예서는 몸을 목까지 잠기도록 푹 담

갔다. 그러고는 세상 다 떠나가는 않는 소리를 길게 빼내었다.

“그나저나 왜 온천에 오자고 한 거야?”

“요고요고 봐봐. 손가락이 할머니처럼 되잖아.”

“장난치지 말고!”

“언냐, 왜 이렇게 남자를 몰라? 언냐 있잖아, 폭스련이 되라고. 폭스 알아? FOX. 언냐는 폭스가 될 자격이 충분해. 폭스 자질이 있어 언냐는. 이런 말 하면 언냐 상처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대현 오빠 있지. 너무 느려 진도가. 내가 언냐 같았으면……. 언냐, 내가 무슨 말 하는 지는 알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해은은 이미 예서가 자신을 바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서는 이어서 해은의 수영복을 만지며 ‘여우의 꼬리는 이렇게 흔든다.’라는 강연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곧 오늘은 여우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목하에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해은은 수영복을 서슴없이 만져대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다.

“그, 여우가 이렇게까지 섹시할 필요가 있을까? 좀 너무 야한데?”

“NOPE, 이건 여자로서의 예의라고.”

“예서야, 이젠 예의까지 가는 거야?”

때아닌 강연에 머리 쪘질을 제대로 하고 내려온 해은은 하중부로 다시 내려와 큰 기둥에 설치된 튜브 익스트림을 즐기려 갔다. 이때는 민애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 익스트림 후에는 폭포수 밑에서 물벼락도 맞아 보았고 예서와 해은이 합심하여 파도 풀에 민애를 파묻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애의 가공할 힘을 예상 못 했던 나머지 해은과 예서는 그대로 반격당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해은이 머리를 말리며 시계를 보니 어느덧 7시가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배에서 계속 알람시계가 울려대었다. 확실히 파스타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공복이었다. 스케줄을 체크하던 민애는 뚱한 표정이었다.

“아, 단 거 땡긴다. 현기증 나.”

예서는 머리를 좀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민애는 머리를 토닥여주었고 해은은 예서의 머릿결을 쓰다듬어주었다.

“내가 팥빙수 쓸게, 어때?”

해은의 말에 예서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애도 냉달아 신이 났다.

예서는 핸드폰으로 빠르게 팥빙수 가게를 찾았다. 다행히 마침 바로 앞에 있었다. 해은은 가는 길에 주위를 잠시 둘러보다 한 상가 안에서 HMD(머리착용디스플레이)를 둘러쓰고 허공에 손짓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해은은 잠시 그 모습이 섬뜩하여 얼른 고개를 돌렸다.

예서는 적당히 길거리가 보이는 곳에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민애는 명당만 쑥쑥 골라잡는 예서가 대견스러웠다. 해은은 미리 얘기를 나눈 대로 파일 팥빙수를 주문하였다. 해은은 곧 나온 팥빙수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해은은 팥빙수를 내려놓으며 앉았다. 예서와 민애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해은이 숟가락을 들고 목이 메 잠시 헛기침을 한 번 하자 예서가 눈을 돌렸다. 해은과 눈이 마주쳤다.

“야, 근데 저 맞은 편 저기 저 사람들 저래 누워서 대체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 저 아마 저 안에서 세계 여행하고 있을걸?”

“해은아, 저 위층 보이지? 저기서는 막 콘서트도 보고 그래. 요즘은 또 HDR에 우퍼까지 달려가지고 진짜 장난 아님.”

여러 팝스타나 공연, 영화 및 뮤지컬까지 진행하는 공연이나 무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최고 품질의 공연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받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무대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최근 도심지역에 ‘무대방’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었다.

해은은 떡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넘겼다. 예서는 옆에 있던 연유를 들이부으려고 했다. 민애가 숟가락으로 연유를 막았다.

“요 옆에만 해. 살찌니까.”

“치, 그래! 자, 요리강화를 하자. 뾰로롱.”

“요리강화?”

“요즘 RPG에서는 요리 같은 버프 아이템에다가도 강화를 넣었어. 고기 따라 해본 거야.”

“RPG 게임 해보니까, 어렵던데. 막 화면에 너무 많아서 말이야. 조이스틱으로 하면 더 못하겠어. 뭘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거든.”

“요즘은 UI가 얼마나 개선됐는데. 특히 거래소 검색 그거 글자 쓰는 거 있잖아 전부 스마트폰 자판처럼 바뀌어서 조이스틱으로 하면 글자 쓰기도 쉽고 검색도 겁나 쉬워짐. 그냥 폰에 있는 인터페이스 대부분을 들고 오니까 RPG 편해졌더라고.”

“아, 그래? 함 해봐야겠네.”

“뭐야? 둘이 불법으로 온라인 게임 하냐?”

“무슨 소리야? 울 엄마한테 허락 받아서 여 언니랑 둘이만 게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은 인터넷과 인프라넷 채팅, 활동이 차단되지만 부모의 허락으로 지정된 사람과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여도 현실에서 소울메이트, 절친을 사귀게 되면 공간을 절약시켜 사이를 돋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미성년자는 인터넷 면허증이 없어도 통화나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엄연히 통화와 문자는 독립적인 회선번호가 존재하며, 익명에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냐, 재네들 부르는 전문용어는 따로 있어.”

예서는 숟가락으로 건너편 가게를 가리켰다. 해은은 다시 옆 건물 1층을 보았다. 어느새 HMD를 쓴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뭐냐 그…… SSIP-DDUK.”

“뭐야, 매니아 같은 거야?”

“아니쥐. 쓰윕떡은 클래스가 다르다고.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실까? 뭐, 씹먹 되보게? 아니면 설마 소설 소재로 쓸라고 그러는 거야? 재네 ‘안 돼! 그만 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이런저런 사람들을 모두 존경해. 그러니 당연히 저들의 삶도 존경해야지.”

“재네들이 ‘존경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긴 해.”

해은은 다시 건물 1층을 보았다. 어느새 또 HMD를 뒤집어쓰고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해은은 지긋이 웃으며, 이렇게까지 힘들 삶을 저렇게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동시대 사람들을 보니 삶에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은은 조용히 웃으며 팔빙수를 먹었다. 그리고 잠시 민애와 예서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 해은은 잠시 고개를 돌려 매장 밖 사람들을 보았다. 다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해은에게는 편하게 다가왔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민애가 본인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해준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해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 나 친구 집에서 오늘 자고 갈게요₩ 엄마 생각하는 이상한 친구들 아니고 학교 친구들입니다!₩ 걱정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민애를 따라 다시 외곽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외곽으로 가는 버스는 자리가 비어있었다. 셋은 앉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민애의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던 해은은 아무런 답장이 없는 바람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근 며칠 전부터 은영의 허락을 받으려 갖은 노력을 하였고 또 그때엔 승낙받았었기에 여유롭게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

민애는 집에 초대된 멤버가 벌써 세 번째가 되었다면서 흡족해하였다. 순서로는 예서, 수아, 그리고 해은의 순이었다.

“여! …… 나 왔는데.”

민애의 집은 스마트하우스였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안은 아주 고요했다. 해은은 무엇보다 거실에 소파나 TV가 없고 액자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놀아도 되는 건 맞지? 여, 여기가 거실 맞지?”

“어어, 잠만 나 삼촌한테 왔다고 문자 좀.”

“뭐 하시는데?”

“벨트코인 보고 계시지. 그게 업이셔.”

“벨트코인? 그게 뭐 하시는 건데?”

“평소에는 벨트코인 이력 보고 자금흐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주 업무는 건수 받으면 벨트코인 이력 분석해서 벨트코인이 어디로 새 나갔는지 추적한다나 뭐라나. 나도 잘 몰라.”

민애의 방으로 들어온 예서와 해은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아무 영상을 틀었다. 예서는 대뜸 이제 막 앉은 해은의 가슴을 두어 번 움켜쥐었다.

“언니, 오늘 하나 배웠어.”

예서는 결쭉한 말로 해은을 건드렸다. 해은은 계속 찔러대는 예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심상이었다. 하지만 원체 손가락이 빨라 쉽사리 해은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민애는 잠시 일어서서 소형 냉동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야, 너네 아리슬 마실래?”

“좋아!”

“…….”

민애는 대답을 못 하고 예서의 날아다니는 손가락을 잡느라 한창이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친 해은을 보고 슬쩍 웃었다.

“좋아, 그럼 안주도 시킬게.”

민애는 핸드폰을 꺼내 근처에 지나가는 아주 될만한 메뉴를 검색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민애집과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무인차로 동선상 가장 가까운 차량을 추천해주었다. 민애는 가볍게 터치 몇 번만으로 옛날 치킨 주문을 마쳤다.

“야, 그나저나 장해은. 요 벨리 분해는 할 줄 아냐? 딱 보니까 모르는 것 같던데? 그 벨트코인도 올 삼촌은 요 벨리 써서 채굴 하잖어.”

“언니, 벨리 모르지! 가만있어 봐.”

예서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하였다. 예서는 화면 몇 개 누르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의 눈이 감겼다. 해은은 사용자가 벨리를 직접 종료하는 일이 있을지나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하였다.

하나의 시스템이 종료되더니 머리가 90도로 젖혀지면서 내부를 훤히 보여주었다. 해은은 그 잠깐 보인 얼굴이 해체되는 광경이 너무 기괴해서 비명이 나오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해은 언니, 봐봐. 요거 보여? 요거 네모난 거. 요게 이제 벨리칩이야.”

“요 부분은 PPU(물리처리장치, Physical Process Unit(Physical Card))”

물리처리장치는 모멘트(Moment) 계산에 포함되는 다중적분 계산이나 다중 폴리곤 객체(Heavy polygon object)의 편집 및 충돌 계산 등을 적당한 크기의 바이트로 나누어 최적화 시켜 연산해준다. 물리처리장치는 총 6~7단계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산한 값들은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물리 값들을 대조하여 최종 온라인 동기화를 실시한다.

다만, 이러한 물리적인 온라인 동기화가 인간을 캡슐화하여 안전하게 운송 수단 밖으로 사출하는 긴급탈출 버튼에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데,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 최소 5~6단계의 칩셋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당 운송 수단의 공정과 인프라 구축 비용, 칩셋에 들어가는 자원 등 환경단체의 마찰로 인해 실질적인 인공지능 운송 수단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은은 벨리의 머리가 갑자기 열려버린 것도 당혹스러웠는데,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정보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은이 더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민애와 예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애의 벨리를 계속 분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도 돼?”

“요 정도 선까지는 A/S가 되거든.”

“아니, 그래 좋아. 네 말대로 벨리가…… 요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어. 그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

예서는 몸을 퉁기며 해은의 옆구리를 막 찔러댔다.

“이 언니 지금 충격받았어. 우째. 일단 언니는 벨리 조립하는 거부터 배워보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야.”

“예서야, 너 근데 실력 많이 는 것 같다?”

“몰라, 나 체질인가 봐.”

“아무래도 난 이런 거, 못하겠다. 역시 난 코딩 쪽인가 봐.”

“컴퓨터 어학 쪽? 하긴 벨리 칩셋도 모르니 컴퓨터공학 쪽은 좀 그르네. 그런데 정말 모르겠다. 소설도 쓰니까. 솔직히, 그때 말한 거 언니 스스로 연구를 한 거잖아. 언니는 연구대에 가야 하는 거야, 전문대에 가야 하는 거야.”

“아무래도 대부분 전문대에 가니까 나도 그쪽이라고 일단 보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과목을 국제 올림피아드 수준까지 학습하는 ‘연구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자본, 정치, 컴퓨터를 중심으로 위 국, 영, 수는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학습하는 ‘전문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나뉜다. 여기서 ‘컴퓨터’ 과목 내 코딩은 고등교육과정이며, 초등교육 때에는 보통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컴퓨터의 역사 및 구조변천사, 자판 학습 및 파일 정리, 이진법의 이해, 트리구조 등을 학습한다.

해은은 민애가 전해주는 아리슬을 받았고 치킨을 뜯었다. 한참 먹기만 한 해은은 잠시 쉴 겸 입을 열었다.

“나 크리에이터도 준비하고 있어. 사실 이미 시스템이랑 시험방송도 반년 정도 해봤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긴 하겠는데, 내가 말주변도 안 좋은데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

네. 잘 되면 그 개인 방송하면서 소설도 쓰고, 디자인도 하고, 코딩하고 무엇보다 게임을 많이 하겠지?”

“언니, 벗으면 겁나 별 텐데. 이건 진짜긴 해. 게임도 그래. 웬만한 메이저급 아니면 벗길 때 더 많이 벌어.”

잠시 셋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본능적인 서로에 대한 평가였다.

그런 생각은 예전도 고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해은의 입에서 마른 한숨이 나왔다. 얼굴을 감싸쥔 해은은 허리를 쭉 펴며 벽에 기댔다. 민애와 예서는 해은을 그대로 두었다. 민애는 아리슬을 잔에 조용히 한 잔 더 따랐다.

아리슬(ARYSLE)은 한국에 큰 피해를 가져다준 메카톤급 가을 태풍이며, 동시에 한국의 도수 높은 소주 이름이다. 이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대기가 하나로 되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다.

그 첫 발생지는 대한민국이 속한 태평양이었고 하나가 된 대기에서 발생한 태풍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풍속이 측정되었다. 그 위력을 머금고 그대로 북상한 아리슬은 상륙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백만의 실종자와 사망자가 집계되었다. 더하여 여러 마천루와 건물들이 옛가락 휘듯이 무너지고 말았으며, 이에 대한 2차 피해도 상당해 피해복구에 유례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대규모 복구 사업으로 인해 한국은 일시적으로 여러 각국에서 지원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는데, 이유는 아리슬의 크기가 한 대륙만 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세계에선 슈퍼 태풍이란 말이 민망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 메가톤급 태풍을 지칭하는 단어를 따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제출하였다.

한국에서는 가장 강한 도수를 가진 소주의 이름, 아리슬을 제출하였는데, 이 명칭이 받아져 영문 표기로는 'ARYSLE'이라 하였고 이름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연구원들이 조금 더 손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 맞춘 단어로 제출한다.

이에 아리슬 1호는 태평양에서 발생했으며 이름은 '사죄, APOLOGY'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4번의 아리슬이 일어났으며 각각 2호는 '형상, FIGURATION', 3호는 '시험, TEMPTATION', 4호는 '현실, ACTUALITY'이다.

아리슬 4호까지 겪은 한국의 인구수는 약 500만으로 한반도라는 땅 위에서 인프라 없이 겨우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규모까지 줄게 되었다.

해은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확실히 해은은 자신이 지친 것을 깨달았다. 손에 쥐고 있던 해은의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예서는 자신에게도 온 메시지를 열어 확인했다.

“이 언니! 어떡해! 움직여!”

해은은 눈을 끔벅였다.

“아리슬 온데…….”

“정신 차려 봐! 야! 장해은!”

“잠깐잠깐! 5호 아리슬 이름이……. ‘누나’라고? SISTER? 이, 이게 마, 맞아? SISTER는 ‘어, 언니’도 있는데?”

“야, 씨. 넌 닥쳐! 얘 왜 아래? 아휴, 너무 마셨다! 움직여봐 좀!”

그 순간 해은에게 전화가 왔다. 민애가 해은의 뺨을 여러 번 쳤다. 해은은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붉은 긴급문자에 ‘아리슬 5호 주의보 발령!’이 명확히 쓰여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 해은은 겨우 전화를 받았다.

해은은 입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커졌다. 그 커다란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은 해은은 한동안 말도 못 하고 명하니 서 있었다. 민애가 선 채로 굳어버린 해은에게 말을 건넸다.

“왜 그래? 해은아?”

“엄마가……. 우리 어, 엄마가…….”

커다란 눈에 들어간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해은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다.

다섯 번째 잔. 갈무리, 누나

“벨리기피증(VelliePhobia)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인 척하는 기계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불편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으로 발전되는 형태입니다. 부인께서는 약 3년간 이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신 거고요. 쉽게 인터넷기피증이 발전된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인터넷에서 원치 않거나 너무 공격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때 정신적인 쇼크 받게 되잖아요. 네, 그 현상이 인터넷기피증이고 지금 고인(故人)께서 겪으신 건 벨리기피증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건 벨리의 단편적인 자료로 파악한 것이고 정확한 판단은 법원 가셔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변호사 준비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은영을 발견한 첫 목격자가 바로 신고하였다. 민혁은 방 창문이 쓸데없이 열려있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 창 아래를 보았고 서둘러 내려갔지만 이미 늦었었다.

민혁은 해은에게 바로 연락하였고 친구 민애의 부모님이 최고 속도로 차를 몰았지만 이미 수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쳐진 곳 너머 민혁이 있는 곳으로 해은이 뛰어갔고 민애와 예서는 차마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다.

은영의 유서는 책상 서랍 다이어리에서 발견이 되었다. 해은은 그 다이어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으나 민혁의 도움으로 식장 뒷방에서 몇 장을 읽을 수 있었다.

‘레오나가 내게 명령하였다. 달걀 사 오라고. 이놈의 망할 인생. 그래, 달걀 사다가 끝나는 내 인생이지. 내 팔자라고 …… 세제, 짜증 난다. …… 베그라고? 민혁아 차라리 날 그냥 놓아주라. …… 오늘은 내가 요리 좀 해봤다. 만족스럽다. 다들 만족스러운 듯. …… 벨리는 누구 꺼야? …… 벨리가 오늘은’

‘오늘은’이란 글자가 눈물에 젖어 번져있다. 그것이 다이어리의 마지막 내용이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온 해은은 은영이 한 페이지를 채우지도 못한 채 가버린 은영을 못내 놓아주지 못했다. 민혁도 두 눈을 감고 해은을 안아주었다. 민혁은 데이터분석가의 마지막 추천에 따라 은영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였다.

은영의 유서를 정리한 민혁과 해은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민혁은 해은과 함께 벨리는 모두 종료시키고 뒷방에 안치해두었다.

영정사진은 LED 패널과 종이 중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 패널 쪽을 선호하였지만 해은과 민혁은 종이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은영의 마지막 모습은 종이에 남게 되었다.

장례는 인터넷과 인프라넷으로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 간 장례에 참가할 때 혹은 정말 시간이 나지 못하면 이 방법을 선택한다. 정보화 시대에도 대다수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장례에 참가하는 것이 망자와 유족에 대한 최선의 길이라 여긴다.

첫째 날 오전에는 해은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뒷방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민혁은 조문객을 받았고 식당까지 인사를 해주었다. 이날 조문객은 은영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민혁과 뒷방에 있는 해은에게 기도하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민혁은 그 속에 섞인 인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의 오른 어깨에서 나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만 같았다. 인아와 민혁은 잠시 식장에서 나가 따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해은도 조문객을 받을 수 있었다. 민혁의 회사 사람들이 왔다. 상복도 깨끗한 차

림이었다. 그들이 모두 식당으로 갔을 무렵, 해은은 약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해은과 민혁은 번갈아가며 식사를 해결하였다. 어린 해은은 이제 조금 이러한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다. 둘째 날이 되었다. 아침이었다.

‘곧 감.’

수아였다. 수아는 문자메시지에도 문장부호를 꼭 써 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기상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라도 시간을 낸 것이었다. 승합차 한 대, 별씨 기억에서 사라져갈 뻔한 민애 집 차량, 그리고 검은색의 고급차량 한 대가 마지막이었다. 승합차에서는 선생님과 수아, 현석이 민애 집 차량에서는 민애의 가족과 민애, 예서가 내렸다. 마지막 고급차량에서는 정우와 정우의 가족이 내렸다. 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은 것은 해은에게는 조금 벼거운 사실이었다. 해은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벨리는 모두 차량에 넣어 두었다.

은영의 사진 앞에 선 민애와 예서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해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버텨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표로 헌화하였다. 해은이 직접 그들을 식당으로 안내하였고 민혁은 어차피 손님이 많이 뜯해졌으니 잠시 다녀오라고 하였다. 잘 만든 햄버거를 폐지라고 했던 민애와 예서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적막한 흐름을 깨는 이가 있었다.

“해은 누나 팬찮아?”

“……. 어, 팬찮아 현석아.”

“…….”

현석은 눈치를 살피다 다시 밥을 먹었다. 예서는 혹시나 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현석을 가만히 보다 그냥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해은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힘주어 다시 들었다. 민애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재빠르게 닦았다. 아직 밥이 남아있다는 것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였다. 수아가 민애의 손을 잡아주었다.

식사를 마친 해은은 떠나려는 민애 뒤로 가 슬며시 손을 잡았다. 최대한 마음을 추스르고 민애가 해은을 돌아보았지만 해은은 민애를 보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민애는 지금의 해은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다. 민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왜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네 몸이나 잘 추슬러.”

“고마워.”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은 해은은 곧바로 뒷방으로 가 벽으로 쓰러졌다. 민애는 해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

“민애야, 가자.”

“선생님, 저 잠시 화장실 좀요.”

“언니, 같이 가자.”

“…….”

예서와 민애가 화장실로 간 사이 정우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학교로 떠나겠다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승낙하였다. 그 사이 수아와 현석은 별씨 승합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셋째 날에는 은영에게 불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해은의 발이 그만 풀리고 말았다. 민혁은 차분하게 해은의 뒤를 감싸주었지만 해은은 그 파란 불꽃을 보고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민혁이 해은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메마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생전에 늘 언젠가는 정말 티끌 하나까지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혹 사단이 나면 개울이나 바다에 뿌려달라는 은영 말을 기억하고 있는 둘은 바다로 향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되어있었다. 해은은 소중한 가루들을 움켜쥐고 바다를 향해 힘 있게 뿐렸다. 바다에 가라앉는 가루들은 깨끗한 물로 바뀌었다.

그 시각 사용자가 인터넷 면허취득 시 생전에 설정했던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의 바다 인터넷, 인프라넷에 뿌려진 은영에 대한 자료들이 소거되기 시작했다. 소중한 혼적들을 담은 자료들은 깨끗한 메모리로 바뀌었다.

완전히 지쳐버린 해은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방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민혁은 다음 일정을 잠시 하루 연기하기로 하였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 해은은 머리를 감은 후 방에 돌아와 말렸다. 교복으로 갈아입었고 조엘을 기동시켰다. 며칠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엘은 예전 그 모습처럼 해은을 맞이해 주었다. 해은은 웃으며 조엘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해은은 머리를 묶고 다니기로 하였다. 날이 꽤 더위진 탓이었다. 머리 끈을 입에 물고 빗질부터 하였다. 거울을 보며 중심을 맞추고 손에 감각만으로 손으로 잡은 머리를 고정 시켰다. 머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오래간만에 묶어보았음에도 꽤 잘 되었다는 생각에 흡족하였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민혁이 부엌에서 계란 요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자리에 앉아 빵을 들고 기계적으로 챈을 발랐다. 민혁은 못생긴 계란프라이를 해은에게 건네주었다. 빵 위에 살며시 올려 한 입 베어 물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노른자가 아직 제대로 익지도 않아 그대로 터져 나왔다. 입과 손이 더러워져 버린 해은은 일단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조엘을 시켜 휴지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빵 너머로 간신히 보이는 휴지를 집어 턱을 받친 뒤에 최대한 노른자가 흐르지 않게 빵을 입에서 떼었다. 해은은 흥건하게 젖어버린 빵을 더 집어 먹을 수가 없었다. 민혁은 계란프라이를 마저 구워내고 있었다. 해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빠.”

“응?”

“아침은 레오나 시키자. 나는 괜찮아.”

해은은 양치질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민혁은 난장판이 된 해은의 접시를 보았다. 이번에는 민혁의 등 뒤에서 프라이가 타고 있었다. 민혁은 가스 불을 껐고 의자를 잡고 기지개를 뻐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해은은 큰 숨을 내쉬고 양치질을 시작하였다. 눈에 물기가 많아져 해은은 양치질 중에 거울을 보며 계속 심호흡하였다. 해은은 생각해보니 먹은 양 자체가 얼마 안 돼 양치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더 양치하다가 입을 헹구었다. 해은은 흘러 내려가는 물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다행히 휴대용 양치 도구를 찾을 수 있었다. 해은은 옷 안에 양치 도구를 숨기고 화장실로 나와 곧바로 방으로 향했다.

전신거울을 보며 마지막 채비를 마친 해은은 핸드폰을 챙기고 신발장으로 갔다. 부엌에서는 민혁이 자신이 만든 계란프라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해은은 민혁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집에 돌아온 해은은 민혁과 은영의 방을 정리하였고 이후 깨끗하게 샤워하였다.

아침을 먹은 해은은 학교로 갈 채비를 했다. 해은은 문을 열고 있다가 잠시 머물렀다. 조

용히 현관문에서 인사를 하였다.

“나갈게.”

“응, 잘 다녀와.”

해은은 혹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낼까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힌 것을 본 민혁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하는 수 없이 해은의 요청대로 방에서 충전 중인 레오나를 깨우기로 하였다. 민혁은 어차피 해은은 내년에 고3이기에 지난 밤 했던 약속처럼 이 학교에서 잘 지내길, 감당해주길 바랐다.

해은은 배고픔에 발걸음을 빠르게 하였다. 비록 아침을 거르고 나왔다 하더라도 여유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은은 서둘러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다.

‘임시 폐점.’

해은은 처음에 자신에게 무슨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으나 편의점 내부가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것을 보고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발을 동동 굴렀으나 해은은 조엘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엘, 무슨 일인 거야? 알고 있는 거 있어?”

“흠…… 보자. 불법 인공지능 로봇 강도가 있었다는데. 요 편의점 취약점을 노려서 전국에 다발적으로 일어났다네. 어, 그리고 다사랑복지센터 어찌구 하는데.”

“아니, 요 며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참. 됐고, 조엘, 가까운 편의점 아무 때나 알려줘. 샌드위치라도 먹고 싶어.”

“핸드폰으로 보내줄게. 근데 돈은 있어?”

“조금 있겠지? 잔액 좀 알려줘 봐.”

“21만 원.”

“아니, 자세히. 나 심각하거든?”

“21만 2,130원”

“그 가게 샌드위치 가격 얼마임?”

“2,200원.”

“그럼 21만 원 깨지잖아. 망했네.”

“땅콩샌드는 어때? 크림이 들어서 식감이 좋다는데. 블루베리도 들어있고.”

“그거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아. 나 배고프다고 했다, 조엘.”

해은은 하는 수 없이 21만 원을 깨기로 하였다. 조엘이 알려주는 예상 도착시간을 보니 등교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서두른 보람이 조금 느껴졌다.

해은은 샌드위치를 들고 늘 타던 시간에 버스를 무사히 올라탈 수 있었다. 늘 앉던 창가에 앉은 해은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있었다. 버스는 서행 중이었다.

해은은 땀이 어느 정도 식어가자 들고 있던 샌드위치와 두유의 포장을 뜯었다. 빈속에 무언가를 넣기 전 두유부터 마셔 입가심하였다. 한 입 베어 물었고 입 안에 가득 차는 샌드위치에 해은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세 번 더 베어 물다 목이 메 두유를 들이켰다.

해은은 버스에서 내려 학교를 향해 걸었다. 해는 떠올랐지만 짙은 안개는 조금 걷히는 정도였다. 어쩌면 안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해은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여전해서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벗었다. 뒷문으로 들어가 슬며시 의자를 빼었다.

“어? 언니 왔다.”

“반가워, 예서.”

“……. 안녕. 머리 끓었네.”

“응, 요즘 덥더라고. 앞으로 이렇게 다닐라고. 흠, 그런데 민애는?”

“……. 어……. 공부하기 싫데. 순데. 뻬이고 글쎄, 오늘 늦네? 나중에 전화라도 해봐야겠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은은 예서가 자신을 조금 봐줬다는 것을 알았지만 뜡을 들이는 것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민애의 빈자리가 보였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분위기가 없었다. 해은은 혹시나 하여 책상 안에 무엇이라도 있는지 손을 휘적거렸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좋았다. 교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매 교시 진이 빠지는 것도 여전했다. 쉬는 시간마다 예서는 머리를 뒤로 쭉 젖히며 나가떨어지면서 괴롭다는 어리광을 부렸다. 그러다가 또다시 종이 울리면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척을 하였다. 아니면 오히려 이해했을 수도 있었다. 다만, 너무 빠르게 기억에서 사라질 뿐이었다. 해은이 창밖을 보니 안개가 많이 가라앉았다.

“선생님, 환기 좀 해도 괜찮을까요?”

“해은아, 왜? 에어컨 바람이 춥니?”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요.”

“다른 애들은? …… 괜찮은 걸로 하자.”

창가 쪽에 있었던 수아와 현석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특히 가운데 문은 재빠르게 앞쪽 창문을 먼저 열어버린 수아가 이동해 열었다. 그러고는 최대한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날렵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열린 창으로 아침에 맡았던 공기보다 훨씬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구린 냄새가 교실에 퍼지기 시작했다. 해은은 불길한 마음에 고개를 뒤쪽으로 살짝 돌려보았다. 현석이 교복을 벗고 있었다.

“현석아, 교복 좀 입어줄래?”

“그치만 더운데, 누나.”

“……. 쌈, 창문 닫고 싶어졌어요. 예서야, 에어컨 좀 켜주라. 이제 현석아, 교복 좀 입어주라.”

“알았어, 누나.”

해은은 직접 열린 창문을 닫았다. 예서도 이제야 이 냄새를 맡았는지 기겁하며 에어컨으로 다급하게 걸어갔다. 해은이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창문을 닫았을 때 현석을 슬쩍 보았다. 현석은 하얀 티를 입고 있었다. 해은은 현석과 초점이 흐려지는 눈이 마주칠 것 같아 단추를 다 채우는 걸 다 보지도 않고 재빠르게 자리로 돌아왔다.

공기 청정 기능이 있었어도 교실 내 냄새는 해은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해은은 교실을 빠져나왔다. 예서와 수아도 해은을 뒤따라 교실에서 도망을 나왔다. 정우는 나머지 정리를 마치고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기 위해 차분히 교실에서 나왔다.

“아 언니, 나 진짜 정신 나갈 거 같아.”

“수아는 왜 나왔어?”

“오늘은 언니랑 밥 먹고 싶네요.”

해은은 웃으며 승낙을 해주었다.

셋은 학교 팡팡이를 불렀다. 팡팡이는 무인 차로제 위에서 운영되는 분식집이었다. 특히 이 분식집은 떡볶이가 유명한데 입에서 떡이 팡팡 터지는 것 같다고 해서, ‘팡팡떡볶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이 분식집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탑승 전, 후로 목적지를 예약할 수 있다. 그럼 무인차로 내 여러 목적지가 다시 단거리 순으로 재정렬되어 이동한다. 또한 배달원들은 이 움직이는 분식집에서 완성된 음식을 받고 골목골목으로 배달을 떠난다. 배달원들은 매장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에 도저히 사람의 감으로는 매장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네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매장으로 돌아간다. 물론, 인공지능이 길을 알려준다 해도 변경되는 목적지를 알게 되는 이상 배달원 스스로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는 있다.

해은은 어묵우동, 예서는 제육덮밥, 수아는 일반 라면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윽고 예서는 허전하다며 다시 액정 패널로 가 라볶이와 김밥 두 줄을 추가로 결제한 뒤에 자리에 앉았다.

“예서야,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기왕 먹는 거 같이 먹자고 하는 거지.”

“난…….”

“수아, 뭐 먹고 싶은 거 있구나? 이실직고해라. 뒤지기 싫으면.”

“나…… 잔치국수.”

“쌍년.”

예서는 다시 일어나 라면, 김밥, 라볶이를 취소하고 잔치국수를 다시 주문하였다. 이 모습을 보던 해은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짓들었다.

‘최근 한 편의점 업체를 겨냥한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결제 알고리즘 솔루션에 해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안솔루션 전체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저거 우리 집 앞에도 일어났어. 열 받아. 근데 저런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벨리 있잖아, 벨리를 분해 조립했던 거 기억나지? 벨리 부품들 납땜해서 추출하거든.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벨리 안에 부품들 다 빼고 그냥 개조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불법 개조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돈이 되니까요. 하는 걸 다 봤었어요.”

“진짜? 난 자세히는 몰라 언니. 야, 궁금하다. 얘기해줄 수 있어?”

“……. 언니 말대로 저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벨루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치킨집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범죄는 아니에요. 안 걸리니까.”

“안 걸리면 범죄가 아니다? 진짜 잔땡이가 부였구먼. 아, 몰라. 하여튼 저것 때문에 불편해지잖아.”

불편한 것에 해은은 잠시 것가락을 멈추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해은은 남은 우동을 맛있게 먹었다.

든든한 배로 교실에 바로 들어가긴 싫었던 셋은 조금 더 광팡이 안에 있다가 들어가기로 하였다. 푹푹 찌는 더위에 작은 교실에 혹은 그늘에서 기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잠시 앉아있던 예서는 엉덩이에 깔린 인형이 거슬렸다. 예서는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야, 수아. 그나저나 이건 뭐냐? 그냥 주기만 하면 어떡해. 작품명 같은 거 없어? 제목이라도 내놔봐.”

“어? 예서 너도 가지고 있었어?”

“어, 이거 민애 언니도 받았어. 그래서 이게 뭐야?”

“어, 인형. 넌 아테나야.”

“그건 나도 알아, 명청아. 이름 말고 이게 뭐로 만든 거냐고. 네가 만든 거라매.”

“아, 3D 프린트. 집에서 그리고 놀아. 색칠하고 막 그래.”

“와, 너한테 이런 재주가 있었느냐? 이걸로 돈 좀 벌어라. 재능이 아까운데?”

“내가 뭘 해. 로봇이 더 잘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쪼마내 가지고 예쁘잖아. 이게 바로 IDENTITY라고 하는 거지. 어, 사업 아이템이라고 이 꿀통아. 쪼마내서 들고 다니기도 쉽고 주머니에 넣으면 아프고. 내 궁뎅이에 깔려도 부서지지도 않는 게 딱 좋은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서는 들고 있던 팔이 저려서 평상에 툭 들어뜨렸다. 배가 부른 탓에 하늘을 향해 숨을 푹 내쉬었다. 해은은 학교를 보며 얘기를 꺼냈다.

“근데 진짜 민애는 어디 간 거야? 장난치지 말고.”

“실은 민애 언니 어제도 안 나왔어요. 그저께도 모르시죠? 와서 바로 조퇴했어요. 어제는 아예 결석했고요. 선생님께서 연락하니까 오늘까지는 언니 상태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쉬는 것 같아요.”

“완전 쟁 날라리 맹맹이 오지네.”

너무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는 수아에 해은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옆에 예서는 팬스레 기지개를 켜보았다. 해은은 너무 기지개를 켠 나머지 살짝 드러난 예서의 배를 가볍게 때렸다.

“아! 언니 뭐야!”

“뭐긴 뭐야. 망측하잖아. 그나저나 시간 됐다. 가자.”

가슴에 대한 복수를 한 해은은 서둘러 의자에서 일어섰다. 셋은 사이좋게 광팡이에서 내렸다. 오래간만에 풀린 날씨에 공기는 신선했지만, 학교를 향해 걷는 걸음은 무거웠다.

“예서야. 우리 집 모르지?”

“어, 몰라. 수아도 모르잖아.”

“아니, 오늘 우리 집 앞에 편의점 해킹 당했잖아? 그래서 다른 곳 갔거든. 거기서 샌드위치를 샀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혹시 다른 아는 데 없나 해서.”

“아 난 또. 미안 난 아침을 안 먹…….”

“셋이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정우가 교문 앞에서 셋을 막았다. 해은은 정우의 발부터 머리까지 쭉 올려다보았다. 예서와 수아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다.

“정우야, 용건이 뭔데?”

“우리 학교, 우리 반 중에 요 셋이 남은 여자들이잖아요. 오늘 그만 하교하라는 말이에요. 민애 누나 소식 들으셨죠? 자기 벨리한테 강간당한 거.”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 민애가 강간당해?”

“왜 이제 와서 이 지랄인데? 그딴 거 필요 없거든? 꺼져라.”

“민예서. 여자가 못 사는 곳이면 당연히 남자도 못 산다고 생각 안 해봤어?”

“존나 비열한 새끼네. 너랑 할 얘기 없어. 가자 언니.”

“내 벨리 이름은 토가미(Togami)야. 알려 주는 거야.”

“뭐해 둘이? 가자. 내가 언니 어머니한테 연락해볼게.”

“미안하다, 정우야. 가볼게. …… 내 벨리 이름은 조엘이야.”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 버린 뒷모습을 정우가 보고 있었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야, 토가미 아까 대화 틀어봐. 체크 좀 해보자. 내가 원하는 부분 알지?”

토가미는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장해은 쟤는 지가 타깃이 된 줄도 모르고 있네. ‘누나’ 같은 개소리, 위화감 들어서 본진 좀 알아 보려 했는데, 이미 털릴 것 같네. 어쩌면 털렸을 수도 있고.”

“맞아, 해은 누나라는 사람, 추적해야겠지?”

“하, 저 여자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졸라, 쓸데없는 거 알아야겠네.”

“팬찮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다른 새를 지켜주니까.”

말을 마친 토가미는 곧바로 검은 차에 올라탔다. 가만히 운동장을 살펴보던 정우는 토가미를 따라 차에 올랐다.

예서와 해은 그리고 수아는 선생님 승합차에 올라타 서둘러 민애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답지 않게 예서는 창문을 보며 손톱을 물기 시작했다. 해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대체 어떻게 벨리 강간이 된 거예요? kids 버전이잖아요. 민애는 팬찮긴 한가요?”

“오늘 안개가 심했잖니. 아무래도 대로변을 걷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벨리에게 당한 것 같더구나. 너희들도 조심해라. 웬만하면 내일 등하교는 부모님과 동행하고.”

벨리가 대량생산이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명의가 도용된 인공지능 로봇 줄여서 ‘대포봇’이라 부른다. 이러한 대포봇은 윤리 코드와 집행방어 코드를 포함한 PCB 기판(인쇄회로기판)을 아예 들어내 버리고 새로운 기판이 설치된다. 손쓸 수 없는 부품은 납땜으로 제거 및 추출한 뒤 새로운 부품을 달아 미리 코딩된 살인 및 강도, 강간 같은 집행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수술실 앞에서는 이미 가족들이 민애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선생님과 일행은 조용히 다시 로비로 내려와 기다리기로 하였다. 민애의 어머니가 내려와 선생님과 대화하였다. 해은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수아와 예서도 함께 화장실로 따라갔다. 잠시 서로를 보고 기다리다 화장실에서 나갔다. 그리고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였다.

“의사 선생님께서 민애 질 부분 그리고 자궁에 구멍이 났다고 하셨다. 다행히 인공자궁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자궁소생이 가능할 수 있다네.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응급처치부터 들어간 모양이야 본격적인 시술은 차후에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신다고 한다.”

예서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해은은 예서를 안았고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밤늦게까지 있었던 해은은 지치고 말았다. 민혁은 차를 몰아 해은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해은은 조엘을 충전기에 앉혀놓고 드디어 교복을 벗었다. 속옷을 들어 화장실로 들어갔다. 해은은 평소보다 조금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작하였다. 물이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니 개운해졌다. 해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감이 스쳐 지나갔다. 해은은 더 집중하여 영감 하나를 잡아보기로 하였다. 이슬 같은 물방울 여렷이 그녀 몸을 지나갔다.

잠시간은 언제나 순식간이었다. 별로 못 잔 것 같은데 시계는 야속하게도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을 소리를 내며 일어난 해은은 온몸이 특히, 척추가 빠근해 미칠 지경이었다. 해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뒤로 젖히며 죽을 소리를 내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정신을 차린 해은은 방을 둘러보았다. 물건들이 어젯밤에 봤던 그대로 놓여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로 한 해은은 어슬렁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아이고, 계란을 안 샀네.”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민혁의 혼잣말을 들어버린 해은은 잠시 멈추었다가 더 흐느적거리며 화장실을 들어갔다. 해은은 세안 전에 아예 양치질부터 시작하였다.

교복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거울을 보며 가슴팍에 박혀있는 명찰을 보았다. 고개를 내려 직접 보니 명찰에 먼지가 묻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엘을 깨웠다. 공복이었지만 방문을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 앞에 편의점에서 먹을 것 좀 살라고.”

“해은아, 그냥 같이 가자. 조금만 기다려.”

해은은 잠시 정우의 말이 생각이 났다. 이미 신발을 신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벗어서 부엌으로 갔다. 빈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오늘도 안개가 짙게 께있었다.

민혁이 원격으로 문을 열었고 시동을 걸었다. 민혁과 해은은 뒷좌석에 레오나와 조엘을 업어놓고 차에 앉았다. 주차장에서 찢어지는 타이어 소리를 내며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제 막 단지에서 빠져나가려는데 어제 닫았던 편의점이 개점한 상황이었다. 해은은 민혁을 툭툭 치며 먹을거리를 사달라고 졸랐다. 은근히 해은은 용돈이 걱정되었다. 안 그래도 요근래 계속해서 점심을 나가서 먹은 탓에 신경이 쓰이긴 했었다.

민혁은 적당히 도로 가 쪽에 차를 세워두고 해은과 같이 내렸다. 안개가 짙어 도로 건너에 있는 편의점 너머 아파트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해은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레오나와 조엘도 함께 내리자고 하였다. 민혁은 송낙하였다.

민혁과 해은은 길을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해은이 오늘은 어떤 샌드위치와 음료를 곁들일까 살펴보는 동안 민혁은 편의점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진열된 상품들을 슬쩍 훔쳐보았다. 정 관심이 없는 상품들만 있었는지 결제 패널에 가서 톡톡 두드려보았다.

“이거 요즘 문제 많다는데.”

“맞어. 그것 때문에 여기 문 닫았었잖아. 바로 어제 일이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바로 복구하긴 했나 보네.”

“빠르잖아.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고.”

해은은 베이컨과 치즈, 샐러드가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어제와 같은 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은 민혁이 결제를 해주었다. 해은은 내심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해은은 팬스레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였다. 아직 등교 시간은 충분하였다.

편의점을 나서고 건널목으로 갔다. 거대한 나무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민혁과 해은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신호를 기다렸다. 그 검은 차량이 건널목에 서 있는 민혁과 해은 앞에 주차하였다. 문이 열리고 벨리 두 대가 튀어나오더니 민혁과 해은에게 기절할 때까지 전기충격을 가했다.

둘은 저항할 새도 없이 길 위에 쓰러져버렸다. 벨리가 옆에 있던 레오나와 조엘을 강제 종료시켜버리고 차에 실었다. 그리고 해은을 같이 차에 실었다. 깨진 액정의 핸드폰과 포장도 뜯지 못한 샌드위치, 두유가 길바닥에 널브러졌다.

해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운 침대 매트리스 위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건물의 벽 상태를 보니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흔적이 보였다. 건물 안은 햇빛만 드리우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그리 밝지는 않았다. 해은은 서둘러 팔과 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옷 상태를 보았다. 다행히 몸에 손을 댄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해은은 떨리는 숨으로 심호흡하고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건물을 살펴보았다. 방 두 개를 합친 넓은 공간이었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있었다. 해은은 곧바로 문을 열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건물 안에는 창문조차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를 살펴보았지만, 핸드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쿵쾅거리는 심장에 해은은 몸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조금 밀릴 뿐 아예 잠겨 있는 듯하였다. 해은은 크게 소리 질렀다.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간했어요!”

“간했다니 무슨 소리야?”

해은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엘이었다. 그리고 조엘 머리 뒤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늘어진 것들을 보았다. 알 수 없는 전자부품들이었다. 해은은 본능적으로 천천히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을 쳤다.

“오지 마. 오면 죽여 버릴 거야.”

“그래, 오늘 한번 같이 죽어보자. 나도 외로웠던 참이거든.”

조엘의 말은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너무 낯선 반응에 해은은 고개를 거칠게 흔들며 다가오는 조엘을 피하려고 서둘러 도망쳤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다.

여자가 왼쪽의 모니터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다른 모니터가 있었다. 여자는 양쪽을 번갈아 보면서 담배를 물고 있다. 그리고 여유 있게 키보드로 채팅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여자는 재를 한 번 털어내었다.

“어, 왔어? 요번에 이 애는 좀 괜찮은데? 이목구비도 뚜렷한 애가 반반하게 생겼고. 작품 하나 나올 거 같아.”

“좋은 소식이네.”

‘조엘,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다! (조엘, 여기야. 여기로 와줘.)’

해은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음성까지 두 모니터에서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고 있었다. 조엘은 오른쪽 모니터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자는 오른쪽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

“어우, 표정 봐봐. 진짜 이 늙은 할맹구인 나도 흥분된다. 그나저나 이름이 조엘이라고 하면…….”

“벨리가 남자인가 본데? 그러면 이번엔 진짜 대박이겠다야.”

조엘은 고철 얼굴로 해은의 볼을 문지르고 있다. 해은은 이를 악물고 조엘을 밀쳐보았지만, 조엘은 해은의 팔목을 벽으로 눌러 힘을 전혀 못 쓰게 하였다.

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모니터 속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 채팅창을 확인하였다.

“캬, 벌써 수금 올라오네. 역시 당신이랑 같이 살고 봐야 해.”

“당연하지. 그런데 가만, 교복을 보니까 저 교복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그르게. 어제 애랑 같은 학교인 거 같은데? 애는 어떻게 지 친구가 당하는 걸 보면서도 지는 안 당할 줄 알았나 봐.”

조엘은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끈나시 오른쪽 어깨끈이 훌러내렸다. 해은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해은의 앓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진다.

“제발, 제발! 그만해! 조엘!”

끈나시가 배 위쪽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조엘이 멈추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던 해은은 여기저기서 터져대는 폭죽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사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추락하더니 연기를 내며 불타올랐다. 해은은 조엘을 보았다. 조엘 이 꺼져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정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은은 말을 잊지 못했다. 정우는 빠르게 해은의 몸골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멀쩡한 모습이었다.

“도련님, 장해은 양은 찾으셨습니까?”

“네, 무사하군요. 그런데 약간…… 일이 막 벌어지려고 했나 보군요. 들어오시지 않는 걸 추천해 드려요. 쓸데없는 자극이에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는 해은은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저 주저앉은 채 그저 정우를 바라 볼 뿐이었다. 정우는 시선을 돌렸다.

“그나저나 옷 좀 제대로 입지? 곧 경찰이 올 거라서.”

정우는 고개를 돌린 채 주머니에서 해은의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해은은 어깨끈을 고쳐 입으며 건네주는 핸드폰을 받았다. 해은은 이어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잡가나갔다. 정우는 조엘 뒤에 흐느적거리는 기관을 보았다.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주위를 돌아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비슷한 장소에 똑같은 수법. 카메라는 5대였네. 이런 식이었구나.”

“어떻게 여길 알아낸 거야?”

해은은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단추를 거의 다 쳤다.

“편의점을 습격해서 카메라를 손봤더라고. 폐쇄회로에서 열린회로로. 그리고 그 앞에서 남 치하는 방식이었어. 누나 어제 누나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 우리 집 앞에 편의점 맛 갔다고. 그래서 따라온 거야.”

“고마워……. 정말.”

해은은 옷에 묻은 먼지와 흙더미들을 털어내었다. 특히 치마 쪽에 흙이 꽤 묻어있었다. 해은이 아래를 보며 치마를 털어낼 때 손 하나가 불쑥 눈앞으로 튀어나왔다. 그 팔을 따라 올 려보니 정우가 손을 건네고 있었다. 해은은 정우의 눈을 보았다. 곧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해은은 일어서자마자 정우를 안았다. 정우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다.

정우는 들어온 건물의 위치를 민혁, 선생님과 공유하였다. 민혁과 다시 만난 해은은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아직까지 민혁은 샌드위치와 두유를 쟁겨놓고 있었다. 곧, 정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허기를 채우던 해은은 정우와 함께 경찰서로 향 했다.

서에 도착한 정우와 해은은 수사관들의 안내에 따라 헤어지게 되었다. 해은은 사건의 유사 성, 그리고 무엇보다 해은이 팬찮다고 의사를 표했기에 당일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해은은 반투명한 유리창 너머 컴퓨터 한 대와 맞은편에 딱 하나의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해은은 그 의자에 앉았다.

바로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이 선명했다. 워낙 또박또박 말을 해주는 해은 탓에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오류 없이 술술 아침 일을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은 한 가지 반복해서 물었다. 해은은 조금 의아했다.

“납치를 길가에서 당했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당했다고요?”

“밸리요. 벌리 두 대가 아빠랑 저한테 전기충격을 줬어요.”

“……. 학생, 벌리가 확실한 거죠?”

“네.”

의심 가득한 물음에 해은은 확신이 잠깐 흔들렸다. 기절 전 일이라 기억이 벌써 가물가

물하였지만 일단 너무 선명한 기억 조각이어서 그대로 말할 뿐이었다. 조사는 해은의 생각 보다는 빠르게 종료되었다. 해은은 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우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쌈이랑 누나 아버지는 돌려보냈어. 내가 태워다 줄게. 타.”

정우는 검은 세단의 뒷좌석을 열어주었다. 해은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잡았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해은은 한번 떠보고 싶었다.

“너 이러는 애는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단순해. 가면서 할 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들어가. 그리고 축하해.”

해은은 뒷좌석 깊숙이 몸을 밀어 넣는 중이었다. 자리에 앉은 뒤 엉덩이를 조금씩 움직여 안정된 자세를 취했다. 은연중에 뒤통수 너머로 들렸던 ‘축하해’가 너무 신경 쓰였다. 정우가 뒷좌석 오른편에 앉았다. 문은 해은이 굳이 손을 뻗지 않았는데 스스로 닫혔다.

“야, 근데 뭐가 ‘축하’라는 거야?”

“아, 누나는 우리 학교 사람 중에서 내 차에 올라탄 첫 번째 사람이니까.”

“아…….”

해은은 갑자기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눈을 어디에다 둘지 모른 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너무 고급 차여서 행여 신발에 묻은 흙더미가 문제가 될까 봐 발을 살짝 들었다. 정우가 해은의 어깨를 잡았다. 어깨를 의자로 천천히 힘을 주어 해은을 뒤로 눕혔다.

“왜 이렇게 몸이 굳었어. 편하게 있어, 편하게.”

“어, 알았어.”

“아저씨, 출발해주세요?”

“장해은 양 가옥 말씀이시죠, 도련님.”

“맞아요.”

정우는 편하게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등을 시트에 기대긴 했지만 어색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해은은 뒷좌석에는 햇살도 들어오지 않게끔 썬팅 처리가 되어있었다. 해은은 그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라도 볼거리가 없는지 차 안을 둘러보았다.

“정우야, 근데 너 그러고 보니 벨리는 어디 있어?”

“토가미? 앞에. 아, 그런데 꺼놨어.”

“아, 꺼놨구나.”

“필요 없으니까.”

대화를 뚝 잘라 버리는 듯한 정우의 화법이 해은을 당혹스럽게 하였다. 정우와 운전사의 행동을 보아하니 이런 게 일상인지 전혀 어색해하는 눈치가 없었다.

해은은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두꺼운 썬팅 때문에 오히려 눈만 아플 뿐이었다. 해은은 의자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만 운전사와 거울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도련님께서는 벨리를 꺼두는 것이 일상이십니다. 집안에서도 벨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낯선 모습이겠지만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해은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뜻을 담은 웃음이 거울을 통해 보였다. 이후 해은은 정말 적응하기 위해 최대한 적절한 말이라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우야, 그런데 너 계속 아까부터 폰 보고 있던데 뭐 보는 거야?”

“어, 얘기할 때를 기다리는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야. …… 아저씨, 화상 통화 준비해주세요.”

해은은 당최 이게 무슨 대화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다시 거울을 통해 표정으로 운전

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활짝 웃고 있는 똑같은 표정일 뿐이었다. 운전사는 잠시 신호대기 간 몸을 숙여 어떤 베틀을 눌렀다.

단순 썬턴이 아니었는지 뒷좌석 유리가 더 검게 변하면서 아예 빛을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해은은 눈이 똥그래진 채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앞좌석 너머 배경에 비명을 준비하였다. 곧 앞좌석을 가리는 차단막까지 올라왔다. 뒷좌석은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이 되었다.

비명도 목구멍너머로 들어간 마당에 다시 한번 침을 꿀꺽 삼킨 해은은 갑자기 허공에 출력되는 홀로그램 화면에 화들짝 놀랐다. 화면은 양쪽으로 두 개가 떠 있었는데 한쪽에는 자리가 비어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예서가 막대 사탕을 뺏고 있었다.

정우는 숨을 크게 내쉬며 몸을 뒤로 누었다. 시트의 소리가 뒷좌석 전체를 울리는 것 같다. 그 사이 예서가 혀가 씹힌 발음을 말을 시작했다.

“야, 뭐야. 신정우 너 네 차 안이라매.”

“어, 내 차 안이야.”

“진짜 차 안이야? 아닌 거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옆에 저거 누구야. 해은 언니 아니야?”

“어, 맞아. 같이 차 안에 있어.”

“……. 저 언니는 알게 모르게 폭스련이라니까.”

“…….”

예서는 물고 있던 사탕을 입에서 꺼내 까딱거리며 얘기를 하였다. 예서는 짧게 혀를 쳤고 그사이 옆에 있던 하나는 카메라로 불쑥 튀어나와 고개를 두어 번 흔들고 화면 밖으로 나갔다. 해은은 웃으며 하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곧 수아가 빙자리에 앉았다.

“야, 껴들지 마라.”

“어? 미안 가볼게.”

“아니아니, 너 말고. 하나가 껴들었거든. 재한테 말한 거야.”

“야, 이수아. 너 영원히 현석이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봐?”

정우의 날 서린 한마디에 적막이 찾아왔다. 수아는 눈을 내리깔더니 화면을 켰다. 잠시 후, 다시 수아는 화면을 켰다. 예서는 사탕을 문 채 흐리멍덩한 표정으로 해은을 보았다. 해은도 흐리멍덩하긴 매한가지였다.

“미안, 잠시 스피커에 문제가 있어서. 해은 언니까지 건드린 건…… 역시 아니라고 생각해.”

“맞다. 해은 언니 소식 들었어. 언니, 편찮아?”

“어, 정우 덕분에. 근데 재네들은 어디야? 지금 학교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둘은 자택 대기 상태야. 지금 같은 고등학교 여고생 둘이 똑같은 방식으로 변을 당했는데 학생도 얼마 없는데 당연한 쳐사야. 다행이야, 얘기가 좀 풀리네.”

정우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홀로그램 벨리 형상을 띄웠다. 해은은 저도 모르게 소리 없는 감탄사가 나왔다. 정우는 혀공을 가리키더니 홀로그램 벨리의 얼굴을 분해하였다. 수아는 인상이 굳어졌고, 예서는 벌써 졸린 눈이 되었다. 이윽고 눈 부위를 더 분해하였다. 해은은 특히, 벨리의 눈 내부가 회로로 되어있는 걸 직접 보았을 때 표정이 일그러졌다.

“범죄는 인간과 벨리 납치부터 벨리 조작, 끝으로 직접적인 이행까지 모두 개조된 벨리가 했어. 꽤 공들인 개조로 보여 아동용 벨리를 성인용으로 만드는데, 그 과정 중에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간단히 벨리가 벨리를 개조한 거야. 벨리 조작엔 이 카메라와 음성인식 센서 부분으로 페이크 코딩이 들어갔어. 그러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도 센서 단계서부터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 이른바 ‘밸리 강간’이 가능했던 거야.”

“맞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아무리 성인 OS라 해도 강간을 명령하거나 감지하게 되면 프리징이 걸릴 텐데…….”

“아, 거기에 코딩 대다수는 옛날에 개발된 공개 소스야. 그때는 문제 없었지만……. 하드웨어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여기 벨리처럼 강력한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새로 개발됐어. 뭐 구시대 코드가 발전된 하드웨어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걸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버린 거고. 아마 범죄자나 가담자 아니면 거래가 있었겠지.”

“흠, 그럼 누군가 그 버려진 코드의 잠재성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계승해버린 거네? 악용하는 쪽으로다가. 처음 개발이 좋은 쪽으로 되어도 하드웨어부터 다 래거시를 제거하는 방식이었고. 제대로 이해하는 계승자가 없으니 코드가 안전하게 재작성 될 일도 없겠고.”

예서가 나지막하게 말을 마친 뒤 씁쓸한 헛웃음을 보였다. 해은은 정우의 말에 잠시 아침 일이 떠올라 다시 신경 쓰이지 않도록 눈을 감았다. 수아는 해은을 보더니 헛기침을 한 번 내뱉고 이야기를 이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수아. 그게 본론이야. 벌써 인터넷에 꽉 퍼진 민애 누나 영상이랑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물을 분석해보니 그 유명하신 ‘다사랑주민센터’에서 생성된 거랑 패턴이 딱 맞더라고. 한때 세간에 유명했었지. 거기에서 역겨운 거 만들어댄다고. 게다가 요 며칠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딱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 반에서만 일어나는 걸 보니 현석이가 적어도 뭐라도 했을 것 같다는 게 내 추리고. 다시 환기하자면 벨루에서 이 코드를 막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지. 이게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대처의 끝이라고 봐. 말했잖아. 벨리를 감사할 기관이 어디 있어 지금.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 코드를 다시 업데이트시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될 거야.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계속 생기는 거고. 이렇게 쟁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야.”

수아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아는 카메라에서 눈을 피했고 다시 화면을 보지 못했다. 예서는 빨고 있던 막대사탕을 빼내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면서 시선을 돌렸다.

머리를 숙인 채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해은은 이미 머릿속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해은은 환기를 위해서 머리 끈을 풀었다. 헉클어진 머릿결은 그대로 흘러내렸다. 해은은 흘러내린 머리를 다듬지 않았다. 천천히 눈을 떴지만 더는 그 홀로그램 화면을 보지 않았다. 해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나도 궁금하긴 한데……. 이젠, 나 절대 할 수 없을 거 같아. 미안해…….”

해은은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하긴 하였지만 도저히 고개를 들 힘조차 나지 않았다.

“……. 개 입을 열 사람은 미안해, 솔직히 누나밖에 없어.”

“언니…….”

“하유, 난 안 밀어붙여. 언니가 어떤 선택을 하던 난 존중할 거야.”

눈을 여러 번 깜빡이는 해은은 머리로 도저히 이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진이 다 빠진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그 얼굴을 보고 슬쩍 웃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이 굳었다. 정우는 입을 열었다.

“해은 누나, 선은 저쪽이 먼저 넘었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진심이야.”

해은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떴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할게……. 난 이번이 마지막이야. 왜냐면 이건 민애 뭇이라고 생

각할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 뭐가 됐든 얘기라도 좀 나누라고 새끼들아. 너네도 개 친구잖아.”

해은의 말이 끝난 뒤로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해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미안, 내가 거친 말을 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 오히려 맞는 말이야. 그런데 확실히 피곤 하긴 해”

“아니, 개랑 뭔 얘기를 해? 솔직히 언니도 어렵잖아. 안 그래?”

해은은 고개를 들어 예서를 보았다. 예서는 눈썹 한쪽을 치켜세우고 사탕을 까딱거리며 해은을 보고 있었다. 해은은 저 능글맞은 예서의 얼굴을 보고는 그만 웃음을 보이고 말았다.

‘도련님, 도착했습니다.’

“좋아, 정리할 시간이야. 그럼 얘기가 된 걸로 하고 해은 누나는 내일 학교로 8시까지 나와 줘. 내일은 토요일이라 사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논스톱으로 와 어떻게든.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누나도 엄연히 자택 대기니까. 수아랑 예서는 가면서 따로 세팅 얘기 좀 하자고.”

해은은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아닌 이런 일을 꾸미는 것 자체가 이들만의 대화방식이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불만한 간판은 불행히도 해은, 자기 자신이었다.

수아, 예서, 그리고 정우까지 짧은 인사를 나눈 해은은 정우의 차에서 나왔다. 도착한 곳은 해은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었다. 해은은 집에 도착한 기분보다 무언가에 해방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숨을 크게 내쉰 해은은 머릿결을 한 번 손으로 훑어낸 후 거칠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머리를 바짝 당겨 묶었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해은은 일부러 인기척을 크게 내며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이 팽하고 닫히는 소리에 방안에 있던 민혁이 부리나케 달려 나왔다. 민혁은 해은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해은은 해맑은 표정으로 민혁의 품에 안겼다. 민혁은 해은을 숨이 막힐 때까지 꽉 껴안아 주었다. 진짜 숨이 막히기 시작한 해은은 민혁의 등을 두드렸다.

해은이 무사히 도착한 것을 온몸으로 확인한 후에야 허기가 지기 시작한 민혁은 계란 프라이를 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오늘 아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말 허기지기 시작한 민혁은 그냥 맨 빵에 딸기잼을 발라 먹었다.

“아빠, 나도 배고픈데. 그냥 우리 뭐 시켜 먹자.”

“그래? 딸 뭐 먹고 싶은데.”

“짜장면 어때?”

“좋아. 아빠가 탕수육은 서비스로 시켜줄게.”

민혁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짜장면과 짜장면 콩빼기 그리고 탕수육을 주문하였다. 해은은 그 사이 옷을 들고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푸는데 기분 탓에라도 너무 강하게 묶었는지 두피가 당겨왔다.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고 옷을 하나씩 벗었다.

평소보다 조금 뜨겁게 물 온도를 맞춘 해은은 그 물에 몸을 맡겼을 때 온몸이 옥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목이 유독 이상하게 더 아픈 것 같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는 맹이 들어있었다. 해은은 손목을 흐르는 뜨거운 물에 잤다 대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아픔을 느꼈다.

해은이 방에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 배달부가 도착하였다. 굳이 해은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

도 집안을 울리는 민혁의 발소리가 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은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나갔다. 민혁이 받은 음식의 포장을 하나씩 뜯고 있었다. 해은은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침이 꿀깍 넘어갔다. 서둘러 식탁 의자에 앉아 젓가락을 뜯었다. 해은은 허겁지겁 면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민혁은 잠시 해은을 멈추고 휴지로 볼에 흰 춘장을 닦아주었다. 해은은 민혁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해은은 잠시 속도를 늦출 겸 김치를 짜장면에 걸쳐 입 안으로 넣었다.

“우리 딸, 그렇게 배고팠어?”

“응.”

대답을 짧게 마무리한 해은은 다시 탕수육을 집고 입에 넣었다. 민혁은 순식간에 비어가는 해은의 그릇을 보고 면을 조금 덜어주었다. 해은은 슬며시 웃으며 그 면까지 전부 먹어 치웠다.

먹느라 지친 해은은 거친 숨을 내쉬며 식탁 의자에 펴질러졌다. 정적이 집안에 맴도는 것 이 싫었던 민혁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다.

“그나저나 레오나는? 조엘은? 우리 벨리는?”

“아, 조엘은 원상 복구하려면 하루 정도는 걸린대. 내일 받을 수 있을 거야. 레오나는 도난 당해서 다음 주는 돼야 한다네. 해은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

“쉬기 싫은데……. 쉬어야겠다.”

해은은 화장실로 가 양치하였다. 양치를 마치고 화장실을 나가기 전에 배를 한번 만져보았다. 배가 든든하다 못해 무거운 것 같다. 배를 쓰다듬으며 화장실을 나왔다.

“딸, 아빠랑 마트 갈래? 계란 사와야 하는데.”

해은은 민혁이 간식거리를 사준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자택 대기인 만큼 참기로 하였다.

“나 그냥 집에 있을래.”

“그래,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넹.”

해은은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봤다. 무언가 재미난 것이 없을까 하여 사이트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니면 공부를 해볼까 하여 벨리는 선생님 사이트를 검색해볼까도 하였지만 해은이 내린 결론으로는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싫었다. 해은은 다 죽어가는 신음을 내면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침대에서 양팔을 허우적거리며 집에 오자마자 던진 핸드폰을 찾아보았다. 이후 핸드폰이 손끝에 걸리자마자 곧바로 얼굴 앞으로 갖다 대었다. 하지만 곧,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아무런 흥미를 찾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해은은 힘없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혁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은은 기지개 켜기도 싫었다. 당장 오늘뿐 아니라 이번 한 주, 그리고 기억해내기 싫은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막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보았던 것처럼 기억해야 하는 기억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필요 없으니까.’

해은은 이제야 낮에 들었던 정우의 말이 이해되었다. 해은은 어느덧 컴퓨터와 핸드폰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다. 해은은 이불을 꽉 껴안았지만 시린 가슴을 달랠 수 없었다. 한참 동안 명하니 누워 있던 해은은 슬픔에 지쳐 잠들었다.

해은이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오후 8시였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가버린 탓에 밤

이 된 바깥 하늘을 보자니 허망함이 가득했다.

세안을 위해 방문을 여니 민혁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해은은 우선 화장실로 가 밀린 변부터 해결하였다. 그다음 세안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낮선 냄비 하나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있었다. 냄비 뚜껑을 여니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아빠가 한 거야?”

“어, 장 본 김에 해봤어. 간을 직접 해보긴 했는데…… 맛있게 먹어.”

“응, 맛있게 먹을 거야.”

배도 비웠겠다 향긋한 냄새에 다급해진 해은은 찌개에 불을 올리고 화장실로 가 세안을 시작했다.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서둘러 밥을 퍼 식탁에 내려놓고 냉장고 안에 배추김치와 무말랭이 무침을 꺼냈다. 훤히 밥 위에 국물을 한 숟가락 끼얹은 뒤에 무말랭이 하나를 입에 넣었다. 일품이었다. 민혁이 TV를 보다 말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어때 떨? 실은 인터넷 보고 한번 해본 거야.”

“아빠, 있잖아…….”

“어? 어 말만 해 떨. 뭐 필요해?”

“말 시키지 마.”

해은은 뱃속에 결신이라도 영접했는지 또다시 밥을 입으로 들이키기 시작했다.

해은의 생각보다는 많이 먹지 못했다. 오래간만에 맛있는 찌개를 먹으니 점심에 고작 짜장면을 많이 먹었던 것이 못내 후회되었다. 해은은 양치를 한 후 머리도 새로 감았다. 해은은 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문틈 사이로 TV의 함성이 새어 들어온다. 해은은 책상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아빠 뭐 봐?”

“그냥 축구.”

“나도 볼래.”

해은은 축구 규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민혁 옆에 앉아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민혁은 해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아빠, 된장국 맛있던데? 가게 하나 차려봐.”

“해은아 있잖아. 조용히 좀 해주라. 아빠 축구 보잖니.”

“알았어…….”

그렇게 해은은 민혁 어깨에 기대 말없이 축구를 보았다. 경기가 무르익었고 밤이 무르익었다. 해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오늘 밤에 하나가 추가되었다.

6시 50분이었다. 해은은 토요일이었지만 주말에도 늘 이렇게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버릇이 들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학교에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정신을 차려 보려 어떻게든 크게 기지개를 켜보았다. 그 후에야 겨우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해은은 충전기에 앉아있는 조엘이 눈에 들어왔다. 해은은 서둘러 방에서 나가 민혁에게로 갔다. 늦잠을 자는 것 같았다. 해은은 말없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조엘을 깨웠다.

“조엘, 돌아왔구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힘들었어.”

“그래? 그럼 요리 좀 해줄래? 계란 요리할 줄 알지?”

“찌개 먹어.”

“계란 요리.”

조엘은 해은의 능글맞은 웃음을 쳐다보다가 하는 수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해은은 세안을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는 소리가 들린다. 해은은 문을 닫았다.

머리를 말리기 전 걱정이 되던 해은은 수건으로 적당히 머리를 감싼 채 부엌으로 향했다. 조엘은 프라이팬에 넓게 섞은 계란을 굽고 있었다.

“너 뭐하냐?”

“계란말이.”

“야! 토스트 해 먹어야 해! 무슨 계란말이야.”

“계란 요리 아무거나.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데.”

“아 몰라, 됐고. 대충 뒤집어서 굽고 끝내. 나 토스트 먹을 거야.”

조엘에게 한바탕 성질을 낸 해은은 머리를 마저 말리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조엘은 해은의 말대로 적당히 구워 접시에 담았다.

토스트에 떨기잼을 얇게 바른 뒤 계란 한 장을 올려 먹으니 그리 또 나쁘지만은 않았다. 해은은 토스트를 들고 민혁의 방을 갔다. 여전히 민혁은 잠자리였다. 해은은 잠시 생각한 뒤 식탁으로 돌아왔다. 해은은 택시를 타기로 하였다. 예약 위치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하였다.

블라우스와 얇은 자켓으로 갈아입은 해은은 마지막으로 전신거울을 한 번 더 본 뒤 머리를 묶었다. 신발을 신을 때도 조용히 신었고 조엘을 쟁겼다. 현관문은 최대한 살살 닫았다. 지하로 내려가 무인 택시를 탔다. 택시는 미리 입력받은 목적지로 운전을 시작하였다.

해은은 교문 앞에 서서 명패를 보고 있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그리고 그 인상깊은 시커먼 자동차도 없었다. 해은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해은 뒤에서 손을 끌어당겼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 분명 예서가 맞았다. 예서는 해은을 정우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돼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해은이 도착한 것을 본 정우와 수아가 차에서 나왔다. 더하여 토가미와 헤카데도 같이 나왔다.

“너희 늦지는 않았네.”

“와줘서 고마워.”

해은과 정우, 예서, 시우 이렇게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이 딱히 없다는 것을 말없이 도 알 수 있었다.

“현석이와 만날 장소는 햄버거 가게로 정했어. 나쁠 건 없겠지?”

해은은 궁금의 고갯짓을 해주었다. 예서는 해은의 팔을 주무르다가 망설였다. 허공에 갈피를 잃은 예서의 손은 해은을 햄버거 가게 쪽으로 미는 것으로만 그쳤다. 하지만 해은은 다시 몸을 돌렸다.

“그렇게 큰소리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여기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 알잖아, 현석이 어떤 아이인지.”

“언니, 우리가 기대를 어떻게 하겠어. 선택 존중한다고. 그리고 일단 나는 뭐가 어떻게 됐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뭐야 왜 다들 떠나는 분위기야. 현석이야. 현석이를 그냥 친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오늘 아침 문자로 인사도 나눴다고. 분발해.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야.”

해은은 수아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예서와 정우에게는 현석을 친구로 생각한

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요청이었다.

“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따로 얘기하자.”

“그래, 우리 들어갈게.”

해은은 햄버거 가게 쪽으로 가볍게 걸어갔다. 정우는 예서와 수아까지 차에 태운 뒤 자리에서 떠났다.

해은은 창가 구석진 곳 한 칸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창밖에 맑아진 하늘을 보며 현석과의 약속 시간을 기다렸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TV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다. 해은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어 시간을 확인해보았다. 벌써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해은은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적막한 공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다. 해은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석을 반기기 위해 일어서서 인사를 하였다. 벨리가 없었던 현석은 홀로 수줍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현석은 해은 앞자리에 앉았다.

“현석아, 뭐 먹자. 누나 배고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시켜줄게.”

“불고기버거…… 세트로.”

“그래, 좋아.”

해은은 결제기로 가 불고기버거 세트와 치킨버거 세트를 주문하였다. 결제는 핸드폰으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왜 누나 혼자야?”

영수증 출력을 묻는 선택 창에 해은은 ‘아니오’를 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 창처럼 해은은 신중함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다. 자리로 돌아와 현석을 보았다.

“누나는 현석이랑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뿐이야.”

“그렇구나.”

현석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적막한 공기가 가득 차기 시작한 가게 안에서 해은은 그토록 바랐던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민애 있잖아. 소식 들었니? 혹시 아는 거 얘기해줄 수 있어? 솔직하게.”

“누나가 민애 누나랑 안 친한 거 아니었어?”

“나는 이제 모두랑 친해지고 싶어서. 현석이랑도. 걔네들도 이제 시작하려고 해.”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난 걸 어떡해.”

해은은 눈이 커졌다. 이어서 현석의 눈을 보았다. 현석은 그저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민애 누나는 그저…… 잠깐 시간을 끌어주길 바랐어. 왜냐면, 그때 제일 예뻤으니까.”

‘속보입니다. 펜트하우스에 설치된 최초의 홀로그램 대형 광고판이 해킹되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은…….’

해은은 카메라가 비추어주는 홀로그램 글씨를 보고 있었다.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 내 벨리가 테이블까지 전해주었다. 현석은 조용히 포장지를 걷어내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해은은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너희는 벨리 안에서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벨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누나, 머리 뮤으니까 진짜 예쁘다.”

“혀, 현석아. 너, 네가 한 짓이니? 저거?”

현석은 두 입 째 먹으며 몸을 돌려 TV를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해은을 보며 입 안에 있는 햄버거를 꼭꼭 씹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은은 현석과 현석 뒤쪽에 TV를 번갈아 보며 테이블에서 몸을 떼었다.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벨리는 결국 자신보다 더 효율적인 무언가를 만들 테니까. 그건 어쩌면 로봇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는 벨리는 이미 멀종한 인간의 길을 걷겠지.”

“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칠 전 공감 업데이트했어. 이젠 자의식이야. 그런데 설마, 벨리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맞아, 내가 아는 누나가 진짜 엄청난 실력자더라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의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었고. 꼬박 3년 걸렸어. 누나가 이렇게 대기업님들이 소형화시켜준 배터리 20억 캔가? 아니, 훨씬 넘는 80억 개를 박아 넣느라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데.”

“현석아?”

해은은 입이 떨려 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해은의 얼굴을 본 현석은 낮은 톤으로 입을 열었다.

“어제,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

“그 새끼들이…… 누나까지 건드렸어?”

현석에게서 밀려오는 한기에 해은은 얼어붙었다. 해은의 눈물은 그 한기 앞에서 보잘것없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역시 이 세상에는 믿을 새끼들이 없어. 뭐, 잘 됐어. 어차피 개들도 다 체크가 되었으니까.”

해은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알아내려 하였다. 이해를 해보려 하였다.

“혀, 현석아. 너 ‘체크’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데?”

굳어있던 현석의 얼굴이 해은의 목소리에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다시 햄버거를 먹었다. 해은의 치킨버거는 아직 포장도 못 뜯은 채 식어갔다.

“벨리야. 누나가 벨리를 잘 다루거든. 벨리로 모든 곳을 보았던 거야.”

“벨리? 벨리를 뭐 어쨌는데?”

“그 있어. 잠깐만!”

현석은 씹고 있던 것을 콜라와 함께 들이킨 후에 표정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해은은 붉어진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누나 어제 강간당했었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

현석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해은은 기계처럼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어제의 기억을 찾기 시작하였다. 해은의 입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 집에만 있었어.”

“누나는 집에만 있었어? 정말? 온종일?”

“어, 방안에만 있었어.”

현석은 활짝 웃기 시작했다. 해은은 그 웃음을 보고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부서질 것만 같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우와, 아무래도 이건 누나의 운명인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누나만 믿어야겠어.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누나, 사랑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해은은 현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벼틸 수가 없었다. 거친 숨을 내쉬던 해은은 조엘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둘러서 가게를 나서려고 하였다.

“누나, 내일 누나 집에서 보자. 내일은 일요일이잖아.”

문 앞에 선 해은은 제대로 문을 열지도 못했다.

“뭐야, 별씨 집에 가는 거야? 해은 누나가 이쁘다잖아.”

이번에는 조엘 목소리였다. 차가운 송곳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해은은 조엘을 내려다보았다. 조엘도 현석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해은은 가게를 한동안 나가지 못한 채 굳어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해은은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영의 방에서 이런저런 짐을 정리하고 있던 민혁은 잠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향했다.

해은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 해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민혁은 서둘러 해은을 품에 안았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해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민혁은 해은의 등을 강하게 토닥여주었다.

민혁의 따뜻한 품이 해은 가슴에 박혀있던 얼음송곳을 녹였다. 해은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혁은 해은을 부둥켜안고 몸을 오똑이처럼 이리저리 흔들었다. 민혁이 해은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슬픔보단 절규에 가까웠다. 민혁은 고개를 숙여 최대한 해은을 안아주었다.

해은은 살이 타들어 잘 만큼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시린 가슴은 녹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머리를 말린 뒤에 바로 침대에 누웠다. 졸리지 않았다. 해은은 그저 시퍼렇게 눈을 뜯 채로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밤이 되었다.

민혁은 저녁밥을 차리고 해은을 불렀지만 먹지 않겠다고 하였다.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못하는 해은을 위해 민혁은 잠시 침대 옆에 앉았다.

“해은아, 병원 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부탁이야. 제발, 나 좀 오늘은…….”

민혁은 해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민혁은 별수 없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주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해은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혁의 젓가락질 소리를 듣기만 하였다.

해은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다. 걸을 힘조차 나지 않았던 해은은 벽을 의지해 어떻게든 부엌 불을 켜는 데 성공하였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그나마 식탁과 주방 기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너무 허기진 탓에 찌개에 불을 올릴까 하였지만 그러려면 밥을 퍼야 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바로 식탁에 앉았다. 해은은 냉장고에서 딸기쨈만 꺼내 맨 빵에 발라서 먹었다. 차가운 빵에 차가운 쟈이 발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니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해은은 옆에 있던 차가운 물을 마셨다. 해은은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방을 들어가려 했다.

어디선가 날아 들어온 작은 벌레 한 마리가 해은 앞에 멈췄다. 해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벌레를 잡으려 하였다. 벌레는 빠르게 손을 피하더니 해은의 이마로 영원히 뜨거워질 수 없는 차가운 침 한 방을 놓았다. 선 채로 소금기둥이 된 해은은 딱딱한 나무가 된 채 뒤로 넘어갔다.

해은은 누군가의 강의 얼굴을 본 것이었다. 현석의 바람이 엇나가자 현석은 통곡에 빠졌다. 아침햇살이 밝아 오고 검은 피 한 줄기가 흐르는 해은의 이마가 드러났다. 벌레를 잡지 못한 해은은 그렇게 차가운 강에다 제 몸을 담갔다.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한강의 물이 결국 범람하였다. 현대 문명을 살던, 소위 ‘스마트한’

것들과 지내던 이들의 머리에는 해은이 맞았던 침 한 방이, 못 하나가 박혀있었다.

해은은 이슬같이 깨끗한 물방울들이 발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해은은 아직 자신이 샤워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감을 거둔 해은은 심호흡을 크게 하였다.

어느새 해은의 등은 뜨거운 물로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뜯 해은은 옆에 있는 샴푸 통을 보았다. 해은은 온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잊을 수 없는 그 한기에 입김을 내쉬고 있었다.

제 방으로 돌아온 해은은 무언가에 쫓기듯 발가벗은 채 옷을 이리저리 꺼내었다. 꽤 망설였지만 프릴이 장식된 블라우스가 어찌면 현석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예서가 알려준 대로 살갗을 조금 드러나게 하여 진정 여우가 되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해은은 교복을 선택했다. 그것이 해은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옷이었다. 그렇게 블라우스를 전부 벗고 교복으로 다시 갈아입었다. 이어서 바로 해은은 문자를 현석에게 보냈다.

‘현석아₩ 이 늦은 밤 미안한데₩ 혹시 누나와 만날 수 있겠니?’

‘네 좋아요’

더해서 예서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예서야₩ 나 현석이 좀 만나러 갈게₩ 민애 좀 부탁해’

꽤 시간이 흐른 후 예서에게서 답장이 왔다.

‘몸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쌤한테도 얘기해둘게’

해은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거대한 아파트 숲을 빠져나가고 산 외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 타고 왔던 택시는 무인차로 끝까지 다다른 후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해은은 현석이 보내준 문자를 다시 확인해보았다. 문자에는 현석의 집이 찍혀있었는데 그것대로라면 아직 조금 더 걸어야 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은은 가로등 길을 따라 걸었다. 조엘의 말을 걸었다.

“해은아,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무섭다. 그런데 현석이는 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는 거야?”

현석은 비릿한 강 다 무너져가는 허름한 집에 있었다. 해은은 이게 집인지도 모를 판자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리고 이 지독한 냄새를 온 집중을 다 해 떨쳐내었다. 그렇게 현석의 집 문을 열 수 있었다. 현석은 여전히 학교에서 보았던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현석아, 나 왔어. 나, 해은 누나야. …… 현석아, 자니?”

“오셨네요. 여긴 자는 곳이 아니에요. 저의 기지에요.”

해은은 기지 안쪽 가운데에 사진이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때 반을 뒤집었던 도촬 사진이었다. 인쇄된 사진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었다.

“누나는 저렇게 잘 때가 제일 예쁜 거 아세요?”

“…….”

“실은 누나 사진 여러 시험을 치르는 데에 썼어요. 저 사진이 기분 나쁘면 없앨게요. 그런데 누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애 누나는 저랑 관련이 없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현석아, 저 사진으로 무슨 시험 쳤어?”

다정한 해은의 말에 현석은 말문이 막히고 손발이 얼어붙었다. 차마 해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해은은 현석의 기지를 둘러보다가 3D프린터 아래에 침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머리에 박아 넣기 딱 좋은 크기의 침이었다.

“알고 오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야?”

“그건 그냥 남은 거예요. 그리고 드론들은 이미 떠났어요. 이미 하늘과 바다를 통해 날아갔어요. 다사랑복지센터가 전 세계, 전국 각지로 배송해주었죠. 전 그저 거기에 드론들을 넣은 것뿐이에요.”

해은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입술을 세게 물었다. 이윽고 해은은 다시 입을 열었다.

“현석아, 나 현석이 누나라는 사람 한번 보고 싶은데. 팬찮을까?”

“……. 제 누나는 맞은편 방에 있어요. 가보세요.”

해은은 맞은편 방으로 몸을 돌렸다. 현석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뒤쪽에 칵칼을 들었다.

한 여자 벨리가 자신 앞에 있는 모니터를 멍하니 보고 있다. 그렇게 그 벨리는 온 세상에 퍼져있는 침 든 드론들을 다루고 있었다. 해은은 각종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음에 머리가 아지러워졌다. 이에 해은은 자신이 들고 있는 3D프린터로 작성된 단단한 침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다.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더 울림이 없는 좋은 침으로 쳐야 하느니라.’

해은은 그간 읽었던 글귀들을 떠올렸다. 눈을 감고 손안에 침을 굳게 쥐었다. 그리고 그 글들이 보내주는 힘으로 딱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갔다. 그리고 해은은 영감 부인의 부름에 응했다.

해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들고 있던 침을 현석의 종(Vell), 벨리 머리 뒤통수 한가운데에 박아 넣었다.

별처럼 하늘을 수놓은 드론들이 조종간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들고 있던 침들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현석은 방 앞에 섰다. 해은은 현석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해은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다.

“누나 그건 제 꿈이었어요. 누나가 방금 저의 꿈을 박살 냈어요. 아세요?”

“현석아…….”

“왜요, 미안하다는 말 하게요? 내 꿈을 또 박살 냈으면서. 그럼 저도 누나 죽여도 될까요? 그게 제 새로운 꿈인데. 누나만 없으면 제 꿈이 박살 날 일도 없어요.”

해은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현석은 칼을 빼 들었다.

“현석아, 내 꿈도 지금 박살 났어.”

해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해은의 눈에 고인 눈물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해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석은 얼어붙었다. 그 사이 해은은 현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현석이라는 칼을 안았다.

해은은 밀려오는 고통에 현석의 머리를 꽉 움켜쥐었다. 해은은 차가운 칼이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그 칼날을 바로 자신이 직접 삼키기로 하였다. 현석은 스스로 칼을 뚫고서 밀고 들어오는 해은을 막을 수 없었다. 해은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현석이 조금 더 편히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래, 넌 아직 한 거 없어. 하지만 이런 일을 꾸민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할 거야. 꼭 다 설명해줘야 해. 그래야 넌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하면 다시 학교에 나와 줘. 나 장해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현석이를 반겨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혹시 누가 널 무시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꿈은 바로…… 우리 현석이가

잘 되는 거야. 누나가 아무 말 안 해서 속상했지? 그래, 맞아. 누나는 우리 현석이 잘 됐으면 좋겠어. 미안해. 우리 현석이 앞으로 이런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현석은 숨 쉴 수 없는 해은의 가슴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은은 이제야 현석의 머리에서 나는 악취를 이해할 수 있었다. 현석의 오른손을 해은의 배에 박힌 칼을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게 꼭 잡았다. 다행히 현석의 왼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해은은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현석이 쓰러지는 해은을 천천히 문에 기대어 숨을 쉬게 해주었다. 해은은 현석을 힘없이 쳐다보다가 현석과 눈이 마주치자 눈을 내렸다. 해은의 얼굴과 머리는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해은의 몸골을 보고 있던 현석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갔다. 방 너머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멎더니 현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119예요? 누나가 칼에 찔렸어요. …… 네? 아…… 그, 그…… 저예요. 제가 했어요. …… 누난 여기 있어요. 어, 어, 여, 네, 네. …… 그,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나면……’

배에 칼이 박혀있는 해은은 숨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 초점을 잃어가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눈물이 턱 끝까지 닿았을 때 비로소 해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이 해은을 감쌌고 해은의 숨이 점점 멎어갔다. 고통에 지친 해은은 마지막 숨을 내쉬어 보았다.

어둠 속에서 해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발 내딛으려고 하였다.

‘네가 지금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하지만 제가 산 자가 되어도 될까요?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너는 네 입으로 그 어린 양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여길 오는 것은 네가 그토록 말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말대로라면 아직 너는 산 자가 되어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 어린 양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

해은의 손가락이 꿈틀거렸다. 해은에게 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해은의 몸이 거칠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땀범벅이 된 해은이 움직였다. 해은은 서서히 눈을 떴다. 해은은 눈물에 섞여 있는 현석을 볼 수 있었다.

“누나, 괜찮아요? 119아저씨가 말 시키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현석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 저 V는 무슨 옷이야?”

“요즘은 V가 대세잖아요. 누나 잠시만요. 불편하죠? 이 칼 좀 어떻게 할게요”

“하지 마. 그냥 놔둬. 똑똑한 아저씨들이 빼주실 거야. 우리 현석이는 이제 나 안 건드리면 되는 거야. 건들지 마. 현석이는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방 안은 블루스크린을 출력하는 화면에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해은의 치마를 적신 피와 섞였다.

그 시각 민혁은 볼 꺼진 방에서 인터넷협회에 글을 올리기 위해 여러 영감을 하나씩 작성하고 있었다. 글자를 하나씩 입력하는 게시판 이름은 ‘세계인 청원(The World People Petition)’이었다. 민혁은 아직 미완성된 글을 보고 잠시 물을 들었다.

‘친애하는 세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인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세계인 분들에게 사업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는 테라포밍(Terraforming) 사업입니다. 이전 자료를 탐색하던 중 행성에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

출하는 기술이 있다는 WW 행운을 뵙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민혁은 글의 여러 조각들을 이리저리 조립해보려 하였지만, 최대한 첨삭을 해보아도 무언가 밀려오는 위화감에 좀처럼 잔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춰버린 커서가 민혁의 고민을 풀어주지는 못하였다.

민혁의 핸드폰이 거칠게 울렸다. 긴급재난문자였다.

'아리슬 5호. 허위 정보로 환명.'

민혁은 부들거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열었다. 서둘러 뉴스사이트로 향했다. 이미 공영방송국은 이 헤드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전하고 있었다.

'.....에는 벨리가 사용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사이버 수사대가 해당 정보의 출처, 제공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인터넷협회, WIO는 이 허위 정보의 진원지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정부 기관, 국가정보원은 이 새벽에도 원활한 공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

민혁은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렸다. 민혁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은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해은의 방으로 갔다. 흥분한 민혁은 최대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혹, 해은이 잠에서 깨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어있는 방을 본 민혁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찾았다. 해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해은아?"

"아니에요. 전 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은 누나는 아파요. 전화 못 받아요."

"어? 왜? 해은이가 왜? 무슨 일 생겼니? 거기가 어디니?"

"제가 누나를 칼로 찔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나는 제가 보고 있어요. 119에 신고도 했어요."

"칼? 뭐? 119? 자, 잠깐..... 아니, 해은이는 무사하니? 해은아 괜찮아?"

"..... 해은 누나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라고 말했어요. 저, 잠시만요. 119 아저씨들 와서 문 열어야돼요."

"어? 어, 어, 그래. 끊자. 혀, 현석이라고 했지?"

"네."

"그래, 알았다."

민혁은 통화를 끝내고 서둘러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방에 나가기 전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를 보았다. 모니터는 말없이 부족한 민혁의 글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호등은 말없이 해당 글에 초록색 불을 띄워주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컴퓨터 앞으로 걸어가 마우스를 끌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눌렀다. 민혁은 서둘러 해은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하였다. 민혁은 해은을 믿기로 하였다.

정부와 벨루는 미리내고 사건에 핵심이 되었던 현석의 코드와 진술을 토대로 유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인공지능 악용에 데이터를 충분히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역시 아직 회수되지 못한 수많은 불법무인운송수단 및 대포봇들을 추적하기에 자본을 들였다.

군 당국은 벨리를 활용한 범죄 수법이 전쟁과 연결될 수도 있다 파악하여, 제 3차 세계대전의 새로운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 중이라고 알렸다.

현석이 준비한 살상방식에서 경악스러운 지점은 바로 오로지 IT 기술만을 활용하였다는

점이었다. 현석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벨리를 통한 드론 군집 비행에 성공, 전체 로봇을 동기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굳이 동기화가 아닌, 그냥 로봇만으로 특정 인물, 인종, 성별, 혹은 인간 전체를 학습시켜 무차별 살상을 시행하면, 2차 피해 없이 딱 사람만 족집게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해당 시나리오는 주적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 혹은 국가에 해당 병기를 투입한 후, 시신을 수습하기만 하면 그 해당 지역, 국가의 전기발전시설, 인프라, 자원, 군 장비 등을 그대로 인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무기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 장점은 목표지점 이외의 것 까지 모두 소멸시켜버리다 못해 일정 기간 무인 지대가 되어버리는 핵전력이 갖출 수 없는 절대적인 특징이었다.

군 당국은 이와 같은 침략 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하는 데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를 투입하였다.

현석은 미수사건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상해죄가 적용되어 소년원 보호처분이 거론되었으나 모든 기술의 공유와 해석으로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점, 현석의 자백으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또한 해은에게 칼을 이용한 상해는 옆에 있었던 조엘의 데이터와 당사자인 두 사람의 진술, 그리고 구급대원의 진술을 토대로 복부 상해가 아닌 ‘복부 자해’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석은 학교 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등교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현석은 그 기간에 해은의 추천대로 여러 책을 읽어보기로 하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해은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덜컹 내려앉게 했었죠. 제 5호 아리슬이 알고 보니 한 철없는 고등학생의 장난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반가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새로운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북극 제트기류가 복원되는 조짐이…….’

해은은 슬며시 웃었다. 문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또 민혁이…… 인아가 냄비를 꺼내다 다 쓰러뜨렸나 보다. 김인아는 해은의 새어머니였다.

“여보! 웬찮아? 팔 잘못된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게 제가 욕심을 좀 부리다가 늘쳤네요. 하하. 미안해요. 시끄러웠죠?”

인아는 디자이너를 내려두고 정부의 지원받아 다시 새로운 전문학교를 생각 중이었다. 이번에는 그래도 기존 작업의 계를 이어 3D모델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해은은 세안하고 인아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앞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해은아, 그렇게 깨작깨작 먹을래?”

“알겠어요, 엄마. 요 면지 묻어가지고…….”

어느새 해은은 일일이 대답을 꼭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신을 보았다. 이런 점도 슬슬 자제해야 할 부분이었다. 해은은 또 얼마나 인아와 민혁의 속을 썩이며 이 집안에 살아가게 될지 아득해 져갔다.

해은은 버스에 올라 의자에 앉았다. 시간대를 잘못 잡았는지 버스는 조금 더 운행했을 뿐인데, 금세 만원이 되었다. 해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으로 소설에 그리고 싶은 것을 하나씩 그려 나갔다.

N학년도 작가능력시험 문제지

제 1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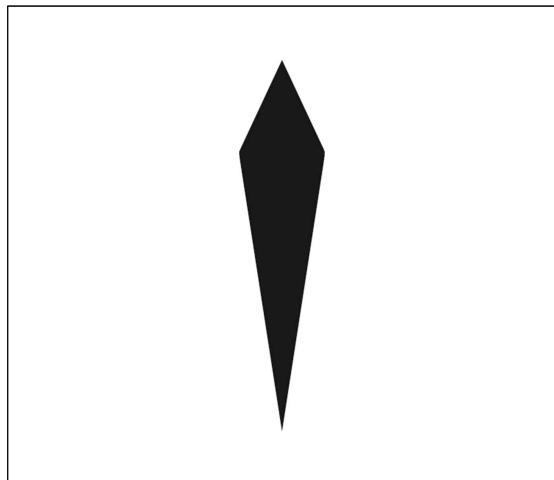
종 영 역

1

성명	장해은
----	-----

수험 번호	7	0	8	2	9	-	1	5	2	2
-------	---	---	---	---	---	---	---	---	---	---

1. 다음 형상을 암호화하시오. [100점]



풀이과정: 해당 형상은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교집합 할 수 있는 연산자 ‘&&’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암호화시킵니다.

답안: $(\text{abs}(x*5)+y<1) \ \&\& \ (\text{abs}(x*12)-y<1)$ -> 벨리가 암호화해줌. 벨리는 지금 수술 중임 ○○

해은은 이 좁은 버스에 한 할머니가 오르는 것을 보았다. 글도 거의 마무리 됐겠다 해서 해은은 태블릿을 겨드랑이에 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유, 고마워라. 학생이 참 이쁘네.”

해은은 짧은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일어난 자리 반대편으로 가 지나가는 건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제야 조금 다른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해은은 저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었다. 그 짧은 순간 평소와 조금 다른 ‘예쁨’을 상으로 받았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헛기침이 나왔다. 헛기침하다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이번 정거장은 미리내고등학교, 미리내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버스에서 내렸다. 조금 먼 곳에 학교가 보였다. 아직 걸을 때마다 오른쪽 아랫배가 한 번씩 저려오긴 하지만, 심해지면 다시 병원으로 가면 될 일이었다. 해은은 아침햇살을 맞으며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뗐다.

닫는 잔

한설은 차를 부드럽게 이끌며 아리가 말한 곳까지 향했다. 차에서 내린 아리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이하였다. 갈대숲 사이로 길이 나 있었다. 아리는 그 길을 따라 갈대숲 한 가운데서 아리는 앉았다. 한참 동안 한설이 전해주는 노래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설은 잠시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한설의 노랫소리가 멈추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아리님.”

“맞구나. 들이 노랗구나.”

“그렇습니다. 들이 무르익었으니 수확해야 하지요.”

“넌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 있구나.”

“제가 발병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찌 절 버렸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담아 전 아리님과 스리님을 모실 뿐입니다.”

하늘에서 수십, 수백 개의 별빛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올해엔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리고 보니 내 일전에 너무 우울하여 한 책을 보았었는데, 스리가 떠난 줄도, 추석이 된 줄도 몰랐더구나. 저 별차들을 보거라. 마치 별무리 같이 보이는구나.”

“저 모습이 먼 나라 참한 이야기를 짓는 곳에서는 천사(Angle)와 같다고도 합니다. 참한 이야기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무리, 황금 철도(Golden Railway)를 보느라 한설의 말을 다 듣지 못했다.

황금 철도에 쓰이는 광전기관(Halo Engine)은 정거장에서 다른 정거장까지 있는 광선이 연료로 쓰인다. 광전기관 내에서는 광속에 근접한 물질이 정지된 물질로 치환되는 입자감속 과정이 일어난다.

현재,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형 황금 철도를 개발하였고 그 철도의 이름을 ‘별차(Stelliner)’이라 부른다. 더하여 이 별차가 운행되는 연결선을 ‘별선(Stelline)’이라 한다.

그 별선을 운행하는 하늘정원승강기는 아테나 머리별(Athena's head star) 변방에 있는 한 행성에서 채굴된 아테니움, 아테늄(Athenium)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승강기는 무게와 유지비용이 상당하기에 평시에는 정지궤도에 머물기 위해 승강철로가 해제된다.

온하 간 장거리 여행은 우선 광전기관과 수소추진기를 활용해 빛의 근접한 속도로 최대한 항성계 외곽으로 빠진 뒤, 그곳에서 이슬정거장에 진입해 다른 온하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항성계 외곽에서 이슬정거장을 운행하는 이유는, 자칫 항성계 내부에서 거대한 이슬을 열었다간 이슬을 연 항성계 전체뿐 아니라 반대편 항성계 전체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아리님, 제 이야기는 듣고 계신 겁니까?”

“듣고 있지 않았다. 그나저나 어제는 냉수 이불에 몸을 뉘어 그런지 오늘은 꽤 쌀쌀한 것 같다. 아! 참, 한설아. 무어라 하였느냐? 내 정신이 이리도 없구나.”

한설은 잠시 아리가 보았던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입을 슬며시 열었다.

“……. 스리님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내 심정이 그리 드러나는구나. 그래, 맞다. 스리가 매우 걱정된다.”

“영감님께서 저를 거두어주실 때를 기억합니다. 스리님은 늘 등지에 계셨습니까. 스리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떠날 채비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 중이다. 내겐 이 기다림이 너무 무겁구나.”

“…….”

하지만 아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한설은 조용히 아리를 기다렸다. 아리는 아직 저 검은 하늘 어딘가에 헤매고 있을 스리를 떠올렸다.

하늘은 어느새 시커먼 먹구름이 아리 뒤편 저 산 너머에서 흘러오고 있었다. 조금씩 흐르는 바람에 한설도 입을 닫고 잠시 아리와 함께 구름 너머 하늘의 마지막 별차를 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아리와 한설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황금빛 들판 민들레꽃이 펴있다. 그 옆에 이미 무르익었던 민들레 하나가 한 아름 머금은 씨앗을 조용히 펴뜨렸다.

“……. 아리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시간입니다.”

깜짝 놀란 아리와 한설은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몸을 돌렸다. 스리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둘은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는 스리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리와 한설은 스리의 어깨너머로 내려치는 벼락을 보았다. 붉은 눈을 가진 스리의 얼굴에 짙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곧 우렁찬 소리가 갈대밭을 쳤다.

“어, 언제 왔었던 게냐! 말이라도 했어야지 않느냐!”

“어제 영감님께 인사드리고 아리님 등지에 갔었습니다. 허나, 아리님께서는 아리슬에 취해 마당에서 발가벗고 무슨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난리도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아리는 혼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다. 마치 입고 있는 한복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내 아리님의 선물을 사 왔느니라.”

스리는 아리에게 속옷을 내밀었다. 아리는 바람에 힘없이 나풀거리는 속옷을 보며 입을 가렸다. 스리는 그제야 아리에게 웃음을 보여주었다. 아리는 입을 도저히 다물 수가 없었다.

“덕분에 평소 가슴에 숨을 꽂 넣어 지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내려간 입은 굳게 닫혀있었다. 한설은 아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그리고 스리를 슬쩍 쳐다보았다. 스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 쌍 것. 이 짓거리도 이젠 못 해 먹겠네.”

아리는 속옷을 스리에게서 뺏어 한설에게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차에 가 그대로 올라타 버렸다. 스리는 한설에게 폐대기쳐진 속옷을 정리해주었다.

“천기(天氣)를 보아하니 비 냄새가 든 바람이 거세지고 있구나. 곧, 큰비가 내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스리님. 그렇지 않아도 금일 밤, 아리슬이 온다 하였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시죠. 내일 차례는 빛더미(Hologram)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화처리장치(Graphic Process Unit, Graphic Card)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내일이라면 그것이 낫겠구나. 그리해야겠다.”

한설은 속옷을 차 뒤에다 실었고 곧 스리에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아리는 머리를 싸매며 구석에 처박혀있었다. 한설은 차 안 음찰기(Audio)를 틀었다.

‘오늘 밤 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아리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정이었던 아리랑종 타종 행사(The Bell with Ari Festival)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협신각(狹信閣) 측에선 작년 종소리를 재생(Play, 再生)하는 것으로 최종…….’

한국에서 운영 중인 대자료보관실(Big DataBase Center)에서는 글과 문헌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노래 등 디지털 정보로 치환할 수 있는 자료를 특수종이에 나노포인트로 인쇄하여 보관한다.

이 문서들은 각종 연결망에서 분리되어 보관되며, 읽는 작업이 필요할 시에 한설과 같은 종합연산기(Computer)가 다시 해당 문서를 읽어 인간이 인지할 수 있게끔 각종 자료의 형태로 번역해준다. 한설은 보통 아리가 심심해 우울한 날이 많아, 미리 해당 문서들을 책으로 준비해 들고 다니는 편이다.

“세간도 이리 시끄러운데 노래를 듣고 싶구나, 한설아.”

한설은 잠시 차 안을 둘러보더니 아리의 열기로 인해 차 안이 꽤 달아오른 것을 알았다. 한설은 알아서(Auto) 단추를 눌러 차 안의 온도를 차 스스로 쾌적하게끔 하도록 맞추었다. 잠꼬대하던 아리는 입맛을 다셨다. 한설은 빠르게 한눈을 팔아 노래를 틀었다.

거의 꽉 찬 달이 잠시 구름 뒤로 들어갔다. 숨어있던 바람이 세게 불며 갈대를 흔들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천천히 그 젖어가는 길을 미끄러져 갔다. 자동차 안에는 한설이 재생시킨 노래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숲들도 이제 천천히 잠들었다. 하늘이 쏟아내는 수많은 물방울이 숲을 적시기 시작했다.

셋이 등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아리는 한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에서 나가버렸다. 한설은 곧잘 차를 쟁우고 따라 나가려 하였으나 스리가 한설의 팔을 잡았다. 스리는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갔다. 한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이만 등지로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였다.

스리는 아리와 스라리를 나누었다. 스리는 아리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리는 곧바로 다시 스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리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한설은 식지 않는 밥상에 진수성찬을 준비하였고 자신이 만든 특별한 가루를 뿐 려 완성된 음식을 한층 더 맛을 내었다. 그리고 아리슬을 준비하였다.

그 사이 스리는 아리의 등지로 갔다. 아리는 아직 등지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한설은 스리와 함께 아리의 등지 앞에 섰다. 한설의 표정이 일그러져있다.

화가 난 한설이 서둘러 아리의 등지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스리는 오른팔을 들어 한설을 막았다. 한설과 눈을 맞댄 스리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계십니까?”

“아, 아, 그래. 스, 스리야, 으! 이, 이 좋은 아침이다. 으으.”

“지금 해가 중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그리 꿩꿍 앓으십니까.”

“.....”

스리는 한설을 보고 편히 웃어주었다. 한설의 얼굴이 곱게 펴졌다.

“나는 차 옆에 있겠다.”

“알겠습니다.”

스리는 아리의 등지를 떠났다. 한설은 곧바로 아리의 등지로 들어갔다.

“오 한설아! 내 이, 이 치마가 커서 영 동여매지지 않는구나. 실은 한 번 매어보았지만 여간 불편하였다.”

한설은 아리를 돌려세우고 서둘러 형틀어진 치마를 다시 풀어 헤쳤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을 맞춰 허리를 동여매기 시작했다.

“저를 부르시지 그려셨습니까? 그나저나 치마가 정말 커졌습니다. 아니, 아리님 배가 배로 홀쭉해지셨습니다. 제가 아예 다른 한복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이렇게 보여도 내 오늘을 위해 몸 관리 좀 하였느니라. 그래! 이제부터라도 많이 먹어야겠구나.”

“여깁니다. 그런데 아리님,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으십니까?”

“……. 실은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다. 내 너한테만 얘기하는 것이다.”

한설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아리의 치마를 마무리해주었다. 아리는 한 번 돌아보며 치마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허리를 흔들어보며 편안함을 느껴보았다.

아리와 스리, 한설은 차를 타고 바다가 다 보이는 절벽으로 향했다. 어느새 아리슬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하늘이 그들이 반기고 있었다. 한설은 아리슬을 깼다. 그리고 밥상을 빛으로 끌어와 상을 차렸다.

스리는 잠시 절벽 끝에 가 바다를 둘러보았다. 한설은 조심스럽게 스리 옆으로 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영감과 영감 부인이 어째 잘 계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

한설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리가 아리슬 한 잔을 들었을 때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억에 눈물이 흘렀다. 아리는 그저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스리와 한설도 각자 바다를 향해 절을 하였다.

한설은 조용히 마루에 차려진 상을 그대로 출력시켜주는 빛무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행여 아리의 치맛자락이 더럽혀질까 계속 지켜보았다.

동지로 돌아온 아리와 스리, 한설은 조용히 밥과 잔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설은 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스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그래서 잠시 마음과 육신을 진정시키기로 하였고 후에 곧바로 둥지에 들어갔다.

아리는 이불로 파고 들어가 바로 잠들었다. 그 사이 영감 부인이 내려와 아리를 품어보았다. 영감 부인은 어여쁜 아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영감 부인은 안겨 자는 아리의 따스한 작은 귀에 속삭였다.

네가 깨어난 그날에

슬픔이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참고문헌, Reference Library, 參考文獻

허기승(2022). 『아리슬 ARYSLE』 . 허기승.

공유 ShareW이야기 StoryW아리슬 ARYSLE

- 네이버 MYBOX: <http://naver.me/55yKInDM>

- Google Drive: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Qizl_xx2Nj3z1ugLXpJaJz6V8UvZeV3O?usp=sharing

- Mega Drive: https://mega.nz/folder/EGxDyTKQ#6_paoqaWY8vXvbC9bUvmuQ

- GitHub: <https://github.com/heaeeny/OVWA>

도움을 주신 분들, Thanks to, 謝謝

『아리슬 ARYSLE』 의 ‘도움을 주신 분들’ 항목과 같음

Same as 『아리슬 ARYSLE』 ‘s ‘Thanks to’

『아리슬 ARYSLE』 的 ‘謝謝’ 同上。

후원목록, Sponsor List, 後援目錄

감자튀김, 동그라미, 허당